

격월간 · 중국을 주제로 / 발행처 · 시넵(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
서울 서초구 방배로동 756-7 / 전화 · 594-8038, 533-5497 / 발행인 · 이동화 /
발행일 · 1994. 3. 30 // 등록 · 1994.2.14일자(등록번호:바 - 2078) · 제1호(통권27)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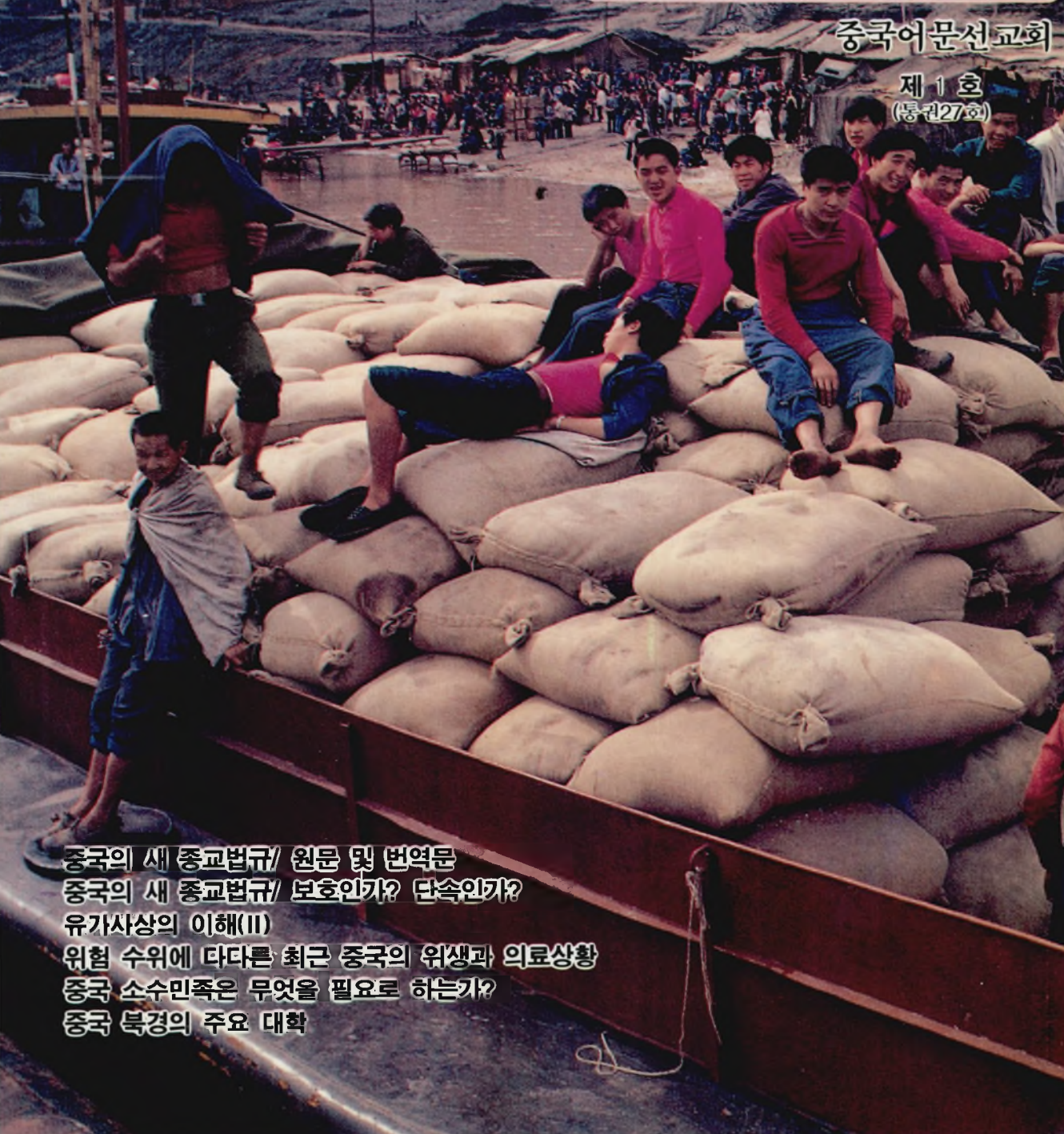
격월간

1994. 5·6

중국을 주께로

중국어문선교회

제 1 호
(통권27호)



중국의 새 종교법규/ 원문 및 번역문

중국의 새 종교법규/ 보호인가? 단속인가?

유가사상의 이해(II)

위험 수위에 다다른 최근 중국의 위생과 의료상황

중국 소수민족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중국 북경의 주요 대학

정기구독 신청안내

● <중국을 주제로>의 구독은 중국선교의 첫걸음입니다.

중국선교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대하를 이루듯, 구체적 헌신의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 전 중국을 주제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구체적 헌신의 하나가 바로 <중국을 주제로>를 성실히 읽는 것입니다.

● <중국을 주제로>를 받아보시려면.

-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에게는 회원 1인에 한하여 1부씩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 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구독이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먼저 본회 (TEL. 533-5497, 594-8038)로 연락을 주시어 정확한 주소와 성함을 알려 주시면 지로용지와 함께 우송해 드립니다.
- ▷ 대금은 1부당 2,500원이며(1년 구독은 15,000 원), 보내 드린 지로용지의 '기타'란에 '회지 대금'이라고 쓰신 후, 은행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중국을 주께로

격월간

1994. 5-6

제1호(통권27호)



표지설명:
湖北省과 四川省 경계지역의
장강 삼협에 위치한 巴東의
한 바지선 선착장.
중국에는 아직 육로 수송망
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운이
발달되어 있다.
과거 허드슨 테일러가
복음을 싣고 오고 갔던 이
양자강에 머지않아 복음실은
바지선이 다닐 수 있기를
기도한다.

발행인 칼럼/ 중국여행 자유화·이동화 / 2

말씀/ 중국의 새벽·주지호/ 3

특집/ 중국의 새 종교법규/ 7

 중국의 새 종교법규 원문/ 8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10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 11

 보호인가? 단속인가?/ 13

1P묵상/ 기도하는 곳이 바로 사역의 장소다/ 21

중국교회의 이해/ 물질 풍조하의 중국신도·黃樂靈/ 22

조경현 박사의 중국 이야기/ 儒家思想의 理解 (II)/ 26

현지에서 온 소식/ 위험 수위에 다다른 최근 중국의 위생과 의료상황·강성광/ 30

중국 소수민족을 알아①/ 중국 소수민족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38

중국 소수민족을 알아②/ 그들은 어디에 살며,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43

오늘의 중국/ 시대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광주역(廣州站)·關夕芝/ 50

중국유학 안내/ 중국 북경의 주요 대학·박명수/ 56

대만선교의 이해/ 대만선교 그 걸림돌은 무엇인가?·이탁섭/ 66

중국기독교 인물소전/ 중국 토착 교회 耶穌家庭의 창시자 敬奠瀛/ 69

최근 중국교회 인물/ 중국 기독교협회 부회장 총무 심이번(沈以藩)/ 76

중국선교의 발자취/ 내가 본 중국인의 민족성·방지일/ 78

대륙성도의 간증/ 피난처 되신 주님·淑貞/ 80

중국어 찬양/ 奇異恩典/ 87

그림으로 배우는 선교중국어/ 在敵人的地方/ 88

중국선교 참고도서/ 90

중국여행상식/ 버스·택시·자전거/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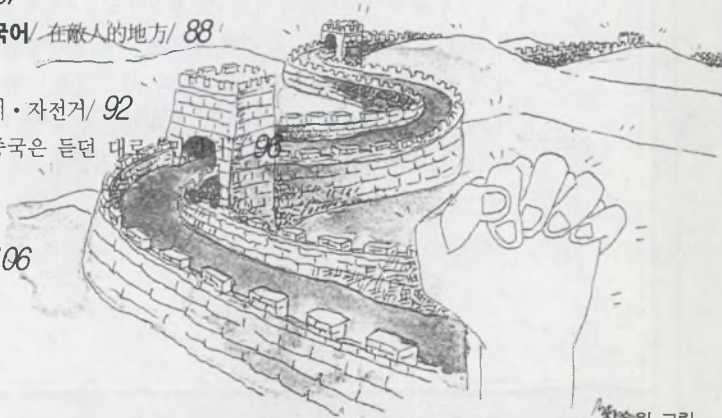
중국선교훈련원 소식/ 중국은 듣던 대로/ 96

최근 중국 동향/ 98

填字遊戲/ 105

중국을 위한 중보기도/ 106

알림/ 108



장승원 그림

중국여행 자유화

이동화

4월 1일부터 중국여행이 자유로와 진다. 그 동안 중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3월말 김영삼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이 제한 규정이 철폐됨에 따라 이제 중국여행은 비자만 있으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정부 당국이 추정하고 있는 올해 예상 중국 여행자 수는 70~80만으로 지난 해 중국 방문자 수 11만 명에 비해 무려 7배에 이른다. 이 중 직접, 간접으로 선교와 관련된 여행자 수는 전체 여행자 수의 5%는 될 것이므로 올 한해 적어도 3만 명이 넘는 숫자가 선교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세계선교에서 차지할 중국선교의 비중과 또 중국선교에서 기대되는 한국 교회의 역할을 생각할 때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역자, 선교사 후보생, 선교회 회원, 학생 할 것 없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여행하여 중국 교회의 실상을 접할 필요가 있다.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중국여행 자유화 조치로 말미암아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조선족 선교의 과다 집중 현상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빌린다면 '중국은 넓고 할 일은 많다.' 13억을 위한 2백만 조선족 선교가 되어야지 '이전투구' 식으로 조선족 선교에 임하다가 오히려 발목이 잡혀 중국선교에 차질을 빚는다면 곤란하다. 최근 이봉 총리에 의해 발표된 반선교 법령의 예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선교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선교대상을 탈조선족화하여 명실상부한 중국선교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국교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과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간에, 한국교회와 선교회 간에, 선교회 간에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번 여행 자유화 조치로 이 점 역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선교는 지나치게 '개인기' 위주의 선교였다. 이것은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결과 다른 선교사들이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 내지 경쟁의 대상으로 비쳐질 때가 왕왕 있었다. 요컨대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호 접촉의 확대로 풀려져야 하고 또 풀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중국의 새벽

주지호

한 획기적인 복음운동이 1994년 벽두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님의 광명으로 인도하는 <중국의 새벽> 운동입니다.

파송선교 학자인 윈터 박사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는 최소한 5천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평균잡아 신자 200명이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면, 중국에는 마땅히 25만여 개의 각기 다른 형식의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과거 몇년 동안 중국 교회의 성장률은 14%였는데, 만약 우리들이 계속 열심히 성경을 배워 복음을 전파하고 생활 중에 주님을 간증하면서 이 성장률을 유지시켜 나간다면, 서기 2천년이 이르기 전에 중국의 교회는 마침내 백십만여 개소에 도달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성장률로 추산한다면 11%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기 2천년에는 광활한 중국대륙에 97만 개의 교회가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중국의 새벽> 운동은 하나의 실제적인 목표를 가지고 전개하는 운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기 2000년이 되기 전까지 100만 개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만약 현재와 같이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지만 않는다면, 아마 1천 명의 중국인 가운데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뚜렷한 비전으로, 모든 중국인 한 사람 한 사람에

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복음운동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지상 대 사명입니다.

이 운동의 성공은 어떤 한 부류의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중국의 새벽> 프로그램에서는 '존 녹스'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을 「새벽을 깨우는 사람」 또는 「새벽을 깨우는 동역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1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의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같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환난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이어야 합니다.

1. 많은 싸움은 곧 격렬한 반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싸움'은 '격렬한 반대'(Strong opposition, NIV)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의 '격렬한 반대'일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7장 1~9절에서 이 단락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매우 극심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써

상당수의 유대인, 헬라인, 귀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정잡배들과 떼를 지어 온 성(城)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배뢰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격렬한 반대'입니다.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큰 소리로 반대하였습니다. 즉,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라고 말하는 상황에서의 극심한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것을 ‘많은 싸움’ 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수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채 마구 맞았습니다. 우리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2.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담대한 마음이 요구됩니다.

어떻게 「많은 싸움중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새벽> 운동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너희들은 알거니와’ 라는 정정당당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12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아나니」 (1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2절), 「너희도 알거니와」 (5절), 「너희가 기억하리니」 (9절), 「너희도 증인이요」 (10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11절).

이런 말씀들은 사도바울의 사람됨 및 사람들을 위한 봉사가 정정당당하고 떳떳한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주일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국 신도들의 모습. 북경 해정구(海澱區) 삼자 교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함, 솔직함,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 교회의 설립은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살전 2:1~2).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공명정대하게 조금도 숨김없이 하였습니다. <중국의 새벽> 운동은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때 반드시 공명정대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경우에도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살전 2:14)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2. 전도의 동기는 정정당당해야 합니다

(살전 2:3~5).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싸움’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진정 목자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그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가 염려할 수밖에 없던 원인은, ①교회에 적이 되는 사람(2:15), ②시험하는 자(3:5), ③사단의 방해(2:18) 등이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배경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장의 상황을 비교해봅시다. 바울이 한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은 믿음만한 사람이 못되니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여 멀리 도망가는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만약 초신자가 이 말을 듣고 왜곡된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바울과 실라는 헛수고를 한 셈입니다(살전 3:5).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6차례나, “너희도



장춘(長春) 치마루 교회의 전경

알거니와”(살전 2:1,2,5,11, 3:3,4), “너희의 간증이 곧 하나님의 간증”이라는 말로 자신의 행동이 정정당당한 것임을 밝히고 또한 그의 동기가 순수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봉사의 가장 귀한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살전 2:4).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10).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환난중에서도 쓰러지지 않은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 주기를 즐
거함…”(살전 2:6-8)과 같은 ‘복음 품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의 ‘복음 품격’은 곧 그
리스도의 복음과 자신의 생명을 같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살전 2:6).

이것은 ‘복음품격’ 중에서 겸손한 자세를 말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큰 필
요조건일 것입니다.

2. 『유순한 자가 되어…』(살전 2:7).

이것은 ‘복음품격’ 중에서 모성애의 정신입
니다. 선교사가 어머니와 같이 모든 사람의
잘못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할 때 하나님
의 영광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3.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살전 2:8).

이것은 목자와 양의 분별입니다(요 10:11~
12). 오늘날 목자는 적고 샅꾼은 너무 많습니
다. <중국의 새벽> 운동은 이런 희생적인 마
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전도사 존 녹스는 아
주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저
는 차라리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존 녹스는 어디에 있습니
까? 혹시 당신은 아닌지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
에게 주기를 즐거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
하는 자 됨이니라”(살전 2:8).

이것은 바울이 제일 처음 쓴 편지에서 가
졌던 마음가짐일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
만년에 가졌던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기 전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
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
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이제껏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모두 이러
한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에게도 주
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지호/ 극동방송국 중국어방송 담당

中华人

务院令

现发布《宗教活

특 집

之日起施行

总理 李 鹏

1994年1月31日

중국의 새로운 종교법규와 중국선교

第一条 为了保护正常的宗教活动场所的合法权益,有利于根据宪法,制定本条例

어떻게 읽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和国人在宗教活动场所建筑物,设立商业、服务拍摄电影电视片等活动

第二条 本条例所称宗教活动的寺院、官观、清真

设立宗教活动场所国务院宗教

중국 개방화의 열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중국선교에는 알게 모르게 찬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다. 현지에서 사역중인 선교사에 따르면 외국인의 종교활동과 내국인의 외국인과의 접촉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县级以上人

第三条

지난 1월 31일자 총리 이봉(李鵬)의 명의로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과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가 그 법적인 뒷받침이라 할 수 있다.

者位于

第四条

이에 본지는 「새 종교법규」 원문을 입수하여 그 원문과 번역문을 실었다. 또한 지난 3월 7일 중국어문선교회가 주최한 중국선교세미나에서 홍콩 중국교회연구소(CCRC)의 왕쓰웨이 부소장이 “보호인가? 단속인가?”

法律、

接受有

【务部

例规

라는 제목으로 새 종교법규를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여 함께 실어 그 종교법규의 허실을 밝혀보고자 한다. 아울러 앞에 실린 극동방송국의 주지호 목사의 글을 통해 중국선교의 각오가 새롭게 다져지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中华人民共和国境内

布之

管理规定》，自发

总理 李 鹏

1994年1月31日

第一条 为
民共和国境内
仰自由,维护社
据宪法,制定本

和其他宗教用品入境,按照中国
定办理。
带有危害中国社会公共利益内容
和宗教音像制品入境。

第二条 中
尊重在中国境内

外国人在中国境内招收培养
的留学人员或者到中国宗教院校

人民日報

8 FEB 1994

中華人民共和國境內外國人宗教活動管理規定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令

第144號

現發布《中華人民共和國境內外國人宗教活動管理規定》，自發布之日起施行。

總理 李鵬

1994年1月31日

第一條 為了保障中華人民共和國境內外國人的宗教信仰自由，維護社會公共利益，根據憲法，制定本規定。

第二條 中華人民共和國尊重在中國境內的外國人的宗教信仰自由，保護外國人在宗教方面同中國宗教界進行的友好往來和文化學術交流活動。

第三條 外國人可以在中國境內的寺院、宮觀、清真寺、教堂等宗教活動場所參加宗教活動。經省、自治區、直轄市以上宗教團體的邀請，外國人可以在中國宗教活動場所講經、講道。

第四條 外國人可以在縣級以上人民政府宗教事務部門認可的場所舉行外國人參加的宗教活動。

第五條 外國人在中國境內，可以邀請中國宗教教職人員為其舉行洗禮、婚禮、葬禮和道場法會等宗教儀式。

道場法會等宗教儀式。

第六條 外國人進入中國國境，可以攜帶本人自用的宗教印刷品、宗教音像制品和其他宗教用品；攜帶超出本人自用的宗教印刷品、宗

教音像制品和其他宗教用品入境，按照中國海關的有關規定辦理。

禁止攜帶有危害中國社會公共利益內容的宗教印刷品和宗教音像制品入境。

第七條 外國人在中國境內招收為培養宗教教職人員的留學人員或者到中國宗教院校留學和講學，按照中國的有關規定辦理。

第八條 外國人在中國境內進行宗教活動，應當遵守中國的法律、法規，不得在中國境內成立宗教組織、設立宗教辦事機構、設立宗教活動場所或者開辦宗教院校，不得在中國公民中發展教徒、委任宗教教職人員和進行其他傳教活動。

第九條 外國人違反本規定進行宗教活動的，縣級以上人民政府宗教事務部門和其他有關部門應當予以勸阻、制止；構成違反外國人入境出境管理行為或者治安管理行為的，由公安機關依法進行處罰；構成犯罪的，由司法機關依法追究刑事責任。

第十條 外國組織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的宗教活動適用本規定。

第十一條 僑居國外的中國公民在中國境內，台灣居民在大陸，香港、澳門居民在內地進行宗教活動，參照本規定執行。

第十二條 本規定由國務院宗教事務部門負責解釋。

第十三條 本規定自發布之日起施行。

(新華社發)

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145号

现发布《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总理 李鹏

1994年1月31日

第一条 为了保护正常的宗教活动,维护宗教活动场所的合法权益,有利于对宗教活动场所的管理,根据宪法,制定本条例。

第二条 本条例所称宗教活动场所,是指开展宗教活动的寺院、宫观、清真寺、教堂及其他固定场所。

设立宗教活动场所,必须进行登记。登记办法由国务院宗教事务部门制定。

第三条 宗教活动场所由该场所的管理组织自主管理,其合法权益和该场所内正常的宗教活动受法律保护,任何组织和个人不得侵犯和干预。

第四条 宗教活动场所应当建立管理制度。在宗教活动场所进行宗教活动,应当遵守法律、法规。任何人不得利用宗教活动场所进行破坏国家统一、民族团结、社会安定、损害公民身体健康和妨碍国家教育制度的活动。

宗教活动场所不受境外组织和个人的支配。

第五条 宗教活动场所的常住人员和外来暂住人员,应当遵守国家户籍管理的规定。

第六条 宗教活动场所可以接受信教群众自愿捐献的布施、奉献、七贴。

宗教活动场所接受境外宗教组织和个人的捐赠,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第七条 在宗教活动场所内,宗教活动场所管理组织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经营销售宗教用品、宗教艺术品和宗教书刊。

第八条 宗教活动场所的财产和收入由该场所的管理组织管理和使用,其他任何单位和个人不得占有或者无偿调用。

第九条 宗教活动场所终止、合并,应当向原登记机关备案,其财产按照国家有关规定处理。

第十条 宗教活动场所管理、使用的土地、山林、房屋等,由该场所的管理组织或者其所属的宗教团体按照国家有关规定领取证书。

国家征用宗教活动场所管理、使用的土地、山林、

房屋等,按照《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和国家其他有关规定办理。

第十一条 有关单位和个人在宗教活动场所管理的范围内改建或者新建建筑物,设立商业、服务业网点或者举办陈列、展览,拍摄电影电视片等活动,必须征得该宗教活动场所管理组织和县级以上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的同意后,再到有关部门办理手续。

第十二条 被列为文物保护单位或者位于风景名胜区内宗教活动场所,应当按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管理、保护文物和保护环境,并接受有关部门的指导、监督。

第十三条 县级以上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对本条例的执行情况进行指导、监督。

第十四条 宗教活动场所违反本条例规定的,县级以上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可以根据情节轻重,给予警告、停止活动、撤销登记的处罚;情节特别严重的,提请同级人民政府依法予以取缔。

第十五条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有关规定处罚;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六条 当事人对行政处理决定不服的,可以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第十七条 违反本条例规定,侵犯宗教活动场所合法权益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提请同级人民政府责令停止侵权行为;造成经济损失的,应当依法赔偿损失。

第十八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条例,结合本地实际情况,制定实施办法。

第十九条 本条例由国务院宗教事务部门负责解释。

第二十条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新华社发)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44호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을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총 리 이 붕
1994년 1월 31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의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내 외국인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외국인이 종교 측면에서 중국 종교계와 우호적으로 왕래하는 것과 문화학술교류 활동을 하는 것을 보호한다.

제3조 외국인은 중국 내 불교사원(寺院), 도교궁관(宮觀), 회교사원(清真寺), 교회당(教堂) 등 종교활동장소의 종교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외국인은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이상 종교단체의 요청을 통해서 중국의 종교활동장소에서 강론·설교할 수 있다.

제4조 외국인은 현급(縣級)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처에서 인가하는 장소에서 외국인이 참가하는 종교활동을 거행할 수 있다.

제5조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중국 종교 교직인원을 초청하여 세례·혼례·상례 및 법회 등의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이 중국 국경 안으로 들어올

때, 본인이 사용하는 종교인쇄품과 종교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제품 및 기타 종교용품을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사용하는 한도를 초과하면 중국 세관의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 사회의 공공이익에 유해한 내용의 종교 인쇄품과 종교 카세트테이프·비디오 제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7조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종교 교직인원을 양성하고자 유학인원을 모집하거나, 중국의 종교학교에 유학하고 강의를 할 경우 중국의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종교조직을 만들고, 종교 사무기구를 설립하며, 종교활동장소나 종교학교를 개설할 수 없다.

외국인은 중국 공민들 가운데서 신도를 발전시키거나 종교 교직인원을 위임하거나 기타 포교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9조 외국인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종교 활동을 하면, 현급(縣級)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처와 기타 관계기관은 반드시 그 만두도록 권고하고 제지해야 한다.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행위와 치안 관리행위를 위반할 때에는 공안 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을 하고, 범죄에 해당된 것은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조 외국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은 중국 내에서, 대만 주민이 대륙에서, 홍콩·마

카오 주민이 내지(内地)에서 종교활동을 할 때에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2조 본 규정은 국무원 종교사무부처에서 그 해석을 책임진다.

제13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화사 발
인민일보 1994년 2월 8일자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45호

현재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를 공포하며 이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총 리 이 봉
1994년 1월 31일

제1조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관리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 헌법을 기초로 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일컫는 종교활동장소는 종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불교사원(寺院), 도교궁관(宮觀), 회교사원(清真寺), 교회당(教堂) 및 기타 고정된 처소를 가리킨다.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국무원 종교사무부처에서 제정한다.

제3조 종교활동장소의 관리는 그 장소의 관리조직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하고, 그 합

법적인 권익과 그 장소 내의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침범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제4조 종교활동장소는 반드시 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어떤 사람도 종교활동장소를 이용하여 국가 통일·민족단결·사회안정을 파괴할 수 없고 공민의 신체건강에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 교육제도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종교활동 장소는 국외의 조직과 개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5조 종교활동장소의 상주인원과 외부에서 온 임시 거주인원은 반드시 국가 호적 관

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종교활동장소는 신도들이 자원하여 기부하는 보시·헌금·마칩을 접수할 수 있다. 종교활동장소가 국외의 종교조직과 개인의 헌금을 받으려면 국가의 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종교활동장소 내 종교활동장소의 관리조직은 국가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서 종교용품과 종교예술품 및 종교서적의 판매를 경영할 수 있다.

제8조 종교활동장소의 재산과 수입은 그 장소의 관리조직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점유하거나 무상(無償)으로 전용할 수 없다.

제9조 종교활동장소를 폐지·합병할 때에는 반드시 원 등록기관에 등록하고 그 재산은 국가의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10조 종교활동장소가 관리하고 사용하는 토지·산림·건물 등은 그 장소의 관리조직이나 그 소속된 종교단체에서 국가의 관계규정에 따라서 증서를 수령해야 한다.

국가가 종교활동장소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토지·산림·건물 등을 징용(徵用)할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과 기타 국가의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11조 관계기관과 개인이 종교활동장소에서 관리하는 영역 내에서 건물을 개축 또는 신축하거나 상업·서비스업의 연락망을 설립하거나 혹은 영화·텔레비전의 프로그램 등을 전시·전람·촬영할 때 반드시 그 종교활동장소의 관리조직과 현급(縣級)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처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기관에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2조 문화재 보호장소나 자연명승지로 지정된 구역 내에 있는 종교활동장소는 반드시 관계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서 문화재와 환경을 관리·보호하고 또한 관계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13조 현급(縣級)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처는 본 조례의 집행상황에 대해 지도와 감독을 한다.

제14조 종교활동장소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면 현급(縣級)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처는 사건 내용의 경중(輕重)에 따라서 경고나 활동정지·등록취소의 처벌을 줄 수 있다. 특별히 엄중한 사건은 그 동급(同級)의 인민정부에 제기하여 법에 따라 금지할 수 있다.

제15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할 때에는 공안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조례』의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벌한다.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6조 당사자가 행정처리에 대해 불복할 때에는 관계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이의신청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에게는 현급(縣級)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처에서 동급(同級) 인민정부에 요청하여 권리침해활동의 정지를 명령하도록 한다.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때는 반드시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18조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의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의거하고 현지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제19조 본 조례는 국무원 종교사무부처에서 그 해석을 책임진다.

제20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화사 발
인민일보 1994년 2월 8일자
(번역:중국복음선교회)

보호인가? 단속인가?

- 새로운 중국 종교법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왕쓰웨이



들어가는 말 - 중국 종교법규 제정의 배경

먼저 새로운 중국의 종교법규를 알기에 앞서, 종교에 대한 중국정부의 기본적 원칙을 알아 보겠다. 왜냐 하면 이것이 늘 중국의 종교현상과 종교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유물론, 무신론을 표방하고 있다. 유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종교는 공산주의 세계관과 대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종교를 “뒤바뀌어진 세계관”, “헛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말처럼 종교는 마약적인 성격을 가지며, 자

산계급의 편에 서 있으며, 인민을 노예화하는 작용을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소멸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또 반드시 소멸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중국정부가 종교를 온건하게 대하든 강경한 자세로 대하든 간에 그들은 종교가 당과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1979년 중국은 계급투쟁 위주의 정치 노선에서 경제건설 노선으로 변경하여 「4대 현대화」 건설을 주장하였다. 그로 인해서 그 동안 억제되고 금기시되었던 분야들이 해빙기를 맞이하였다. 문학, 사상, 유행 등이 획일적인 과거의 노선에서 조금씩 해빙되었다.

이러한 영향하에 종교도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다시 말해 1979년 이후에 종교가 새롭게 활기를 찾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종교를 ‘관리, 통제’한다는 당의 기본적인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노선의 변화에 따라 종교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중국의 종교정책은 중국의 당의 노선이 변할 때 비로소 변할 수 있는 종속성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종교법규가 제정된 배경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 사회주의 법제화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1987년 열린 제13차 중국공산당대회에서 중

국 사회와 종교방면에 두 가지 큰 영향을 주었다. 하나는 당과 정부의 분리, 정부와 기업의 분리, 정부와 사회 단체간의 분리에 대한 결정이었다. 이것이 종교 방면에서는 삼자회와 기독교협회의 역할과 책임이 논의로 이어졌고 또 정부와 교회의 분리가 주장되었다. 1988년 정광훈 주교가 정부와 교회의 분리를 제창한 연유가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법제화의 논의와 실현이었다. 이것이 종교법 제정으로 연결되어 종교계에서도 종교법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8년 봄, 국무원 종교사무국의 법규조(法規組)에서 이러한 종교법을 기초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초안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이 종교법은 아직 전인대(全人代)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최초로 공포된 종교법규는 국무원에 의해 제정된 법규일 따름이지만 명문화된 법규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

두 번째, 다양한 종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종교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정상적인 종교 활동에 대한 보호, 관리의 측면.
- 정부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비정상적 종교 활동에 대한 통제의 측면.
- 종교 분쟁 처리의 측면.

세 번째, 해외의 많은 종교단체들이 중국에 들어와 독자적으로 집회를 하거나 소위 비정상적인 가정교회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의 중국 내 종교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느껴져 종교법규가 제정되었다.

또 하나 밝힐 것은, 이번에 제정된 종교법규가 중국 당국의 종교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이번 법규는 기본적인 종교정책 아래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규는 국무원의 원령(院令)으로 공포

되고 시행된다. 중국에서 헌법과 법은 전인대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무원은 국가가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 실정에 맞추어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법규는 하나의 법적인 효력과 권위를 지니는 행정법규이다.

다음으로 이번에 공포된 법규는, 공인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보호하지만 공인되지 않은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제한하고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 종교법규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외국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제144호 법규) 종교법규가 적용된다. 중국 안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종교활동장소는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제145호 법규)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다. 이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는 92년에 초고가 완성되었으며 중국의 합법적 종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 공포되었다.

앞으로 “종교 직업인에 대한 관리 규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신강성, 칭해 등에서는 이미 지방 정부차원에서 종교 직업인에 대한 관리규정이 나온 것이 있다. 국무원 차원에서도 곧 나올 것이다.

새 중국 종교법규에 대한 분석

1) 제144호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의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 중국은 단지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뿐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내 외국인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외국인이 종교 측면에서 중국 종교계와 우호적으로 왕래 하는 것과 문화학술교류 활동을 하는 것을 보호한다.

- 중국정부가 공인하는 합법적인 5대 종교, 7개 애국종교단체와의 우호적 왕래와 문화 학술적 교류만을 보호한다는 의미이지, 선교 활동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나타나 있지 않다.

제3조 외국인은 중국 내 불교사원(寺院), 도교 궁관(宮觀), 회교사원(清真寺), 교회당(教堂) 등 종교 활동장소의 종교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외국인은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이상 종교단체의 요청을 통해서 중국의 종교 활동장소에서 강론, 설교할 수 있다.

-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가능한 활동에 대

한 두 가지 전제가 있다.

정부의 종교사무국과 중국의 합법적인 종교단체를 통한 승인이 있어야만 비로소 활동이 가능하다. 외국인이 종교 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은 단지 중국 내의 각종 종교 활동 장소의 종교활동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다. "참가"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 특정 종교 활동장소에서 강연, 설교, 설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에서 공인된 단체의 요청과 초청이 있어야 한다.

제4조 외국인은 현급(縣級)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처에서 인가하는 장소에서 외국인이 참가하는 종교활동을 거행할 수 있다.

- 외국인들끼리의 종교활동시에도 반드시 정부 종교사무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중국 종교 교직원원을 초청하여 세례, 혼례, 상례 및 법회



지난 3월 7일 있었던 중국선교 세미나 광경



하얼빈교회의 조선족 예배가 끝나고 한족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이 몰려 나오고, 들어가는 모습.

등의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 외국인이 초청할 수 있는 중국의 종교 직업인은 모든 종교 직업인이 아니라, 합법적인 종교 직업인만을 지칭한다.

제6조 외국인이 중국 국경 안으로 들어올 때, 본인이 사용하는 종교 인쇄품과 종교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제품 및 기타 종교용품을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사용하는 한도를 초과하면 중국 세관의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 사회의 공공이익에 유해한 내용의 종교 인쇄품과 종교 카세트 테이프·비디오 제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것은 금지한다.

- 외국인이 자기 사용 한도를 초과하는 양의 종교제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것은 중국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예를 들어 성경·전도 책자·전도지 등이 개인사용 한도 보다 많은 양이라고 해석되면 중국 세관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7조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종교 교직원원을 양성하고자 유학인원을 모집하거나, 중국의 종교학교에 유학하고 강의를 할 경우 중국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외국인이 중국 삼자신학교에 유학과 강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중국의 관계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종교조직을 만들고 종교 사무기구를 설립하며, 종교활동장소나 종교학교를 개설할 수 없다.

외국인은 중국 공민들 가운데서 신도를 발전시키거나 종교 교직원원을 위임하거나 기타 포교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 외국인은 국내에서 종교조직·종교사무기구·종교활동장소·종교학교를 개설할 수 없다.

또, 외국인은 중국 인민들을 전도하거나 종교 교직원들의 위임 즉 목사안수, 신부위임 등을 할 수 없다.

즉 중국 정부와 공식적 종교단체를 통하지 않는 종교활동과 선교행위는 모두 금지되어 있다.

제9조 외국인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종교활동을 하면, 현급(縣級)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처와 기타 관계기관은 반드시 그만두도록 권고하고 제지해야 한다.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행위와 치안 관리행위를 위반할 때에는 공안 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을 하고, 범죄에 해당된 것은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위반했을 때는 종교사무국에서 책임을 진다. 또한 공안기관, 사법기관 등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 무엇을 위반했는지 그 해석권은 제12조에 보면 국무원의 종교사무부처에서 한다고 되어 있다.

제10조 외국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은 중국 내에서, 대만 주민이 대륙에서, 홍콩·마카오 주민이 내지(內地)에서 종교활동을 할 때에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에 거주했던 중국 국민, 대만 주민, 마카오·홍콩의 거주하는 자들, 중국 해외유학생 등이 중국에 들어와 종교활동을 하면 이 규정에 적용된다.

제12조 본 규정은 국무원 종교사무부처에서 그 해석을 책임진다.

- 해석이 모호한 것과 불명확한 규정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 해석은 국무원 종교사무부처에서 책임을 진다고 한다.

2) 제 145호 법규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

여기서 말하는 종교활동장소란, 가정교회를 포함하여 소위 '비공식적' 모든 종교활동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정부가 공인하는 종교활동장소만을 지칭한다.

제1조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관리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 헌법을 기초로 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종교활동 장소관리에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일컫는 종교활동장소는 종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불교사원(寺院), 도교궁관(宮觀), 회교사원(清真寺), 교회당(教堂) 및 기타 고정된 처소를 가리킨다.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국무원 종교사무부처에서 제정한다.

- 모든 종교활동장소의 설립은 반드시 종교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할 때 등록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등록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1992년 9월 11일 발표된 복건성 지방정부의 규정을 보면 그 등록의 조건을 6가지로 정하고 있다.

- ① 고정된 장소와 명칭이 있어야 한다.
- ② 반드시 종교를 믿는 신도들로 구성되며 민주 관리체제를 형성하고 책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 ③ 그 종교활동장소 안에는 반드시 종교 교직원이 있어야 한다.
- ④ 종교활동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 ⑤ 반드시 중국의 헌법과 법률, 법규와 관리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 ⑥ 경비의 합법적인 출처가 있어야 한다.

제3조 종교활동장소의 관리는 그 장소의 관리조직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하고, 그 합법적인 권익과 그 장소 내의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침범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 정상적인 종교활동 장소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 있다.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침범할 수 없다.

제4조 종교활동장소는 반드시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어떤 사람도 종교활동장소를 이용하여 국가통일, 민족단결, 사회안정을 파괴할 수 없고 국민의 신체건강에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 교육제도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종교활동 장소는 국외의 조직과 개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 종교활동장소는 반드시 관리제도를 세워

야 한다. 즉 정관과 제도가 있어야 한다. 종교활동 장소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어떤 사람도 종교활동장소를 이용하여 국가통일, 민족단결, 사회안정을 파괴할 수 없고, 공민의 신체건강에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 교육제도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여기에서 그들은 “사회안정”을 주장하는데, 집회하는 것이 사회안정의 파괴로 규정될 수도 있으며, 또한 안수기도를 하다가 찬자가 죽게 되면 그것은 “공민의 신체건강에 손해를 끼친 것”에 걸리게 될 수도 있다.

제7조 종교활동장소 내 종교활동장소의 관리조직은 국가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서 종교용품과 종교 예술품 및 종교 서적의 판매를 경영할 수 있다.

- 중국의 사찰에 가면 기업화되어 있는 곳이 많다. 절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으며 그곳에서 장사를 하기도 한다. 그 수입은 그 종교단체의 수입이 된다.

제8조 종교활동장소의 재산과 수입은 그 장소의 관리조직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점유하거나 무상(無償)으로 전용할 수 없다.

제10조 종교활동장소가 관리하고 사용하는 토지, 산림, 건물 등은 그 장소의 관리조직이나 그 소속된 종교단체에서 국가의 관계규정에 따라서 증서를 수령해야 한다.

국가가 종교활동장소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토지, 산림, 건물 등을 징용(徵用)할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과 기타, 국가의 관계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11조 관계 기관과 개인이 종교활동장소에서 관리하는 영역 내에서 건물을 개축 또는 신축하거나, 상업·서비스업의 연락망을 설립하거나 혹은 영화·텔레비전의 프로그램 등을 전시·전람·촬영할 때 반드시 그

종교 장소의 관리조직과 현급(縣級)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처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기관에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 제8조, 제10조, 제11조는 다분히 각 종교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정상적 종교활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반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사무국의 역할과 권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 제2조에 보면 종교활동장소의 등록은 종교사무국에서 하기에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등록허가를 주거나 주지 않을 수가 있다.

- 제13조에 의하면 종교사무국에서 법규시행의 감독, 관리를 할 수 있다(참고: 제13조 현급(縣級)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처는 본 조례의 집행상황에 대해 지도와 감독을 한다).

- 제 14조에 보면 처벌권이 있다(참고: 제 14조 종교활동장소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면 현급(縣級) 이상의 인민 정부 종교사무부처는 사건 내용의 경중(輕重)에 따라서 경고나 활동정지, 등록취소의 처벌을 줄 수 있다. 특별히 엄중한 사건은 그 동급(同級)의 인민정부에 제기하여 법에 따라 금지할 수 있다).

- 합법적 권익의 침해시 종교사무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참고: 제17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에게는 현급(縣級)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처에서 동급(同級) 인민정부에 요청하여 권리침해활동의 정지를 명령하도록 한다.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때는 반드시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새로운 중국 종교법규의 의미

1) 새로운 종교법규가 현재 중국의 종교정



장춘 삼자기독교회의 성가대원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 (1993년 크리스마스 예배). 중국 당국이 제정한 종교법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종교활동, 즉 정부에 등록된 삼자기교회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활동의 권익을 보장해 준다.

책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기본적인 종교정책이 법으로 명문화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2) 외국인의 중국 내 종교활동과 중국의 종교활동장소에 관계된 이 두 가지 면에서는 법제화를 통해서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3)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종교활동과 장소는 긍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서의 해외선교활동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선교의 통로를 단일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선교의 통로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종교단체를 통한 창구만으로 단일화시켰기 때문에 선교활동은 법규화를 통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교활동의 자유는 중국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규정에 저촉되는 선교 행위는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 통제와 제한 속에서 순수한 선교활동일지라도 해도 법제화

된 규정의 틀 속에서 범죄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5) 합법적인 종교단체의 권익은 보장받는다.

6) 법규 기준 해석의 융통성과 모호성이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입국할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종교용품의 개인 사용 한도라는 것의 명확한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세관의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신도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그 발전의 의미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모호하다.

새 중국 종교법규의 영향

1) 삼자 교회에 미치는 영향

이 법규는 최소한 정상적, 합법적인 삼자기교회의 종교활동 권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므로 삼자기교회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장소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다.



한국교회는, 무조건 삼자교회는 비복음적이고 가정교회는 다
올바르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할 것 이다. 삼자교회 가운데도
진정한 복음에 헌신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는 교회가
많기 때문이다. 사진은 광둥성 오화현 (廣東省 五華縣)
水寨基督教會.

2) 가정 교회에 미치는 영향

가정교회의 등록 문제가 대두된다. 이제 종교 법규가 법으로 명시화되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가정교회는 제재를 받게 된다. 지방 정부가 가정교회에 대해 강하게 집행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다.

정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삼자교회의 관리 범위 밖에 있는 가정교회는 명문화된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되므로 또 한번의 핍박이 예견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종교에 관한 법집행은 인위적이기 때문에 지방 관리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해외 선교단체들과 협력하는 가정교회는

더욱 위험해진다. 해외의 목회자들과 교류 관계를 가지는 가정교회는 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들 외국인들도 선교활동에 있어서 법규위반이므로 위험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3) 해외 선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

합법적인 학술 문화교류나 공식적인 왕래 등의 우호교류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비합법적인 교류와 선교활동은 명문화된 법규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 이전에는 정책에 의해서 해외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이 금지되었지만 이제는 공식화된 법규에 의해서 선교금지가 명확해졌다.

즉 비공식적인 선교는 곧 범법행위이다.

비공식적인 선교활동이 적발될 경우 법규에 저촉된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처벌된다.

그러나 외국인 선교사의 선교활동이 적발되어 처벌될 때 이러한 문제를 외교적인 문제로 비약하여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인 사역의 안목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핍박을 받는다 해도 십자가의 고난으로 여기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중국 선교가 더욱 위험해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밀화, 은밀화가 요구된다.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두려움에 따른 선교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으로 발전될 수 있으니, 진정한 헌신 자는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편집자주: 위 글은 1994년 3월 7일 중국어문선교회에서 주최(장소:한성중화교회)한 중국선교세미나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 권수영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간사)

기도하는 곳이 바로 사역의 장소다.

사무엘 채드윅은 이렇게 말했다. “마귀의 관심 중 하나는 기독교인이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학문, 기도 없는 일, 그리고 기도 없는 종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노력을 조롱하고 우리의 지식을 무시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 한다!”

기도는 할렐루야(시 150편)이다. 또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빌 4:6).

또 어느 경우에는 중보의 기도로 씨름하기도 한다(롬 8:26). 그리고 보내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 중국, 아프리카, 유럽, 남미와 북미 각곳으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된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영역이다.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곳에 임하는 사람들은 이 전쟁의 상처를 알지만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도 안다.

기도하는 곳이 바로 사역의 장소이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 흩어진 선교사들이 공급을 받고 사역을 유지하는 것이다.

선교사가 사역의 각 단계에서 견고한 기도의 후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로부터의 부르심, 훈련, 재정적 후원을 받는 일, 출국준비 등 사역지에 나가기 전에도 이 기도의 후원은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그곳에 가본 경험이 없기에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고 추상적으로 끝나기가 쉽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를 느낀다.

아래에 선교사들이 특히 당하기 쉬운 시험의 영역들에 대한 목록이 있다. 여러분이 선교사와 편지를 할 때 아래의 내용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기도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 문의하도록 하라. 선교사가 당신의 기도에 대한 헌신을 알면 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요청할 것이다.

- 새로운 언어, 음식, 문화와 기후에 적응하는 것.
- 여행, 건강, 사고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의 보호.
- 아이들의 양육, 생활, 교육문제, 가정생활에 적응.
- 고독함, 향수병, 현지인들과의 교제.
- 개인관계, 자신의 선입관,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 지원을 믿는 것.
- 말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여러 기자재들이 고장나지 않도록 (마지막 신약성경의 번역을 앞두고 인쇄기가 고장나는 경우가 흔하다).
-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역이 수년 간 계속될 수 있다) 더 인내할 수 있도록.
- 그곳의 지역교회 목사나 기독교인들을 위해.
- 안전, 지혜, 자비로운 마음, 용기, 능력, 사랑, 근신 등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도록.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중에서)

물질 풍조하의 중국신도

네 분의 목회지를 방문하여
말씀을 듣다

黃樂靈

개혁 개방 후, 신도들의 세속화, 물질화의 추세는 중국교회가 공인하는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그런데 각 지역의 교회는 서로 다른 지역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신도들이 물질로 인해 받는 영향의 정도도 차이가 크다고 본다. 본부의 사역자들은 전격적으로 네 분의 가정교회 및 삼자교회의 지도자들을 방문하여 그들로부터 신도들이 처한 물질화의 실제 상황을 들어보고 아울러 그들이 취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방문 1 산둥성(山東省) 농촌 가정교회의 지도자

문 : 산둥성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 : 일반적으로 말해서, 도시의 수입은 비교적 부유하고, 농촌의 수입은 아주 낮습니다.

도시의 공장 노동자의 수입은 인민폐로 삼백 원 정도고, 백화점의 직원은 약 삼백에서 사백 원, 외국과의 합자회사의 직원은 약 오백 원에서 팔백 원 정도를 받는데, 호텔 직원의 수입이 가장 높습니다. 청도시(靑島市)를 예로 든다면, 개인의 수입이 오백 원 이상이 되면 생활이 비교적 부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 : 귀하의 교회 성도들이 받는 물질의 시험이 큼니까?

답 : 도시의 교회들이 받는 시험은 아주 큼니다. 그러나 농촌의 가정교회 안에서는 신도들의 수입이 낮고, 생활 수준이 낮기 때문에 물질로 인해 받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도들은 신앙이 아주 굳건해서 모두 분명한 생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문 : 신도들은 물질화된 사회의 풍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 : 교회는 사회의 밝은 등불입니다. 마땅히 물질의 영향과 맞서서 싸워야지요. 신도들이 일찍부터 물질의 유혹을 거부하는 사고들을 배양한다면 지나치게 물질을 추구하는 생활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물질의 유혹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보검입니다.

방문 2 광둥시(廣東市) 가정교회의 지도자

문 : 귀하께서는 항상 곳곳의 가정교회 신도들을 접하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각 곳의 신도들의 물질화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답 : 광주시 대마참(大馬站) 가정교회의 경우, 신도들이 항상 강단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물질화의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이 이로 인해 빠져 나가는 경우도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말해서, 외지고 가난한 지역의 농촌교회들은 비교적 빈궁하기 때문에 받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예컨대 하남(河南), 영하(寧夏), 안휘(安徽), 감숙(甘肅), 섬서(陝西) 등지는 모두 비교적 가난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성도들은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 물질화를 추구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생활이 어려워도 그들은 늘상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 도와주기를 대단히 바라는 실정입니다.

문 : 외지고 가난한 신도들이 어떻게 하

여야 순결하고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하여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 : 이 지역의 교회들은 그 뿌리가 깊습니다. 신도들은 모두 훌륭한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의 헌금은 적지만, 신도들은 모두 열심히 집회에 모여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안에서 전도지를 인쇄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참생명을 소유하고 있을 때 세속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 3 복건성(福建省) 농촌 가정교회의 전도사

문 : 복건성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은 어떻습니까?

답 : 복건성 주민들의 수입의 차이는 매우 큼니다. 일반 노동자 계층의 수입은 인민폐로 삼백 원 정도입니다만, 농촌의 수입은 비교적 적습니다. 농촌으로 말씀드리자면, 매월 수입이 삼백 원 이상만 되면 한 집안의 생활비로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안되지요. 복건성 연해지역의 경제특구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해외 교포들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생활이 비교적 부유합니다.

문 : 귀하께서 목양하는 교회의 신도들이 받는 물질의 유혹이 심각합니까?

답 : 복건성 내의 경제 특구에서는 시민들이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벌고, 가난한 동네와 부유한 동네의 차이가 심한 상황입니다. 현대사회의 풍조가 사람들로 하여금 돈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영향을 받게 되어, 몸을 주께 의탁하고 주만 섬기기를 원

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습니다. 신도들이 모두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여 이전보다 집회에 참여하는 수가 적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거기에 상응하여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시간이나 집회에 참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활의 목표는 오직 돈을 버는 것이니까요.

문 : 신도들이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실족한 사례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 : 물질의 유혹을 받은 한 사역자가 전력을 다해 돈을 벌겠노라며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는데 이후 3개월 만에 그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비록 돈은 좀 벌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돈 역시 자신의 내심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교회로 다시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다른 한 무리의 신도들은 일본에 가서 일을 했는데, 농촌으로 돌아온 후에도 물질화된 생활에 이미 습관이 되어 다시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문 : 신도들이 물질의 유혹을 받고 떠나는 것에 대해 무슨 대책이라도 있으십니까?

답 : 물질이 평신도들에 미치는 유혹은 대단히 큼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강단으로부터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그들의 내심을 만족케 하고, 그들의 물질화된 생각들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저는 육 일 동안 부흥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삼 개월 후에 다시 한 차례 실시하였는데, 부흥회에 끝까지 참여한 신도들은 모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예배의

설교 역시 이 방면의 주제를 많이 다루어 신도들로 하여금 내심의 갈등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 4 광주시(廣州市) 삼자교회 목사

문 : 중국 정부의 고위층에서는 교회가 경제활동을 하도록 적극 부추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 맞습니다! 정부는 지금 적극적으로 교회의 경제활동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발전자양(發展自養 : 독립, 자활의 상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이제 시대의 큰 조류입니다. 교회가 거꾸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문 : 교회가 장사를 하고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 나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여 자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데 찬성합니다. 교회의 경비 부족은 국내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에는 천여 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비록 일부의 교인은 수입이 높지만, 전체적인 현금은 아주 적습니다. 정부의 보조비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경제의 어려운 점입니다. 만약 교회에 증축할 돈도 없고, 땅도 없고, 확장해 나갈 경비도 없다고 한다면 신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문 : 현재 많은 삼자교회에서는 예배당을 세를 내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되는 것은 아닐까요?

답 : 우리 광주시의 교회들은 공동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는 것은 광주시의 교회의 경우일 뿐입니다. 우리 공동협의회에서는, 교회가 세를 내줄 때에 부속 건물만 허용될 뿐 본 예배당은 허용될 수 없다는 협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를 세줌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일은 막을 수 있으니까요.

문 : 목사가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 제 개인적으로는 목사는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들이 장사를 해서 교회의 자활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지요. 목사가 장사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교회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부업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생활을 유지해나가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목사들의 수입은 보편적으로 아주 낮습니다. 일반적인 생활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또 그 중의 8%를 양회(兩會)의 경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대도시의 목사의 사례비는 인민폐 300원 정도, 중소 도시의 경우 100원 정도, 농촌은 70원 정도, 비록 수는 적지만 어떤 가난한 곳에서는 40원 정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동성의 목회자들은 수입에 어려움이 있으면 보조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최대한 300원 정도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광동성의 목회자들은 어떤 부업에 종사하니까?

답 : 현재 광동성에는 164 명의 청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주님께 봉사하는 한편 매주 이틀씩 집에 돌아

가 농사일을 합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삼륜차를 운전하거나 전문 수공업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서문현(徐聞縣)의 한 목사의 경우, 옷을 만드는 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만약 국내의 목회자들에게 부업이 없다고 한다면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부업을 갖고 있습니다.

문 : 현재 대도시의 청년 신도들의 경우, 전문적인 일을 연마하거나 공부하기 위해, 혹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신도들의 이탈현상을 조성하는 것은 아닐까요?

답 : 청년 신도들의 경우 그 유동성이 이전에 비해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동이지 이탈은 아닙니다. 청년 신도들은 지금 공부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시대를 따라갈 수 없고, 장사를 하지 않으면 더욱 좋은 사업의 전도를 스스로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대단히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는 또한 그들의 요구에 상응하여 시간을 그들에게 맞추어 옮겨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낮예배를 저녁으로 옮겨서 진행한다면, 청년여름캠프를 많이 운영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집회에 참가합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동요함은 없습니다. 교회는 적절한 안배를 해줄 필요가 있을 따름입니다.

(「守望中華」) 117期 중에서)
번역:김성근(중국어문선교회 운영위원)

儒家思想의 理解(II)

孔子的 思想이 禮와 仁으로 집약된 人間完成을 지향하는 사유체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공자가 「안연」 편에서 말한 다음의 구절은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기를 극복하고 禮에 돌아가는 것이 곧 仁이다. 하루만 능히 克己하여 禮를 되찾게 되면 천하만물이 다 인으로 돌아오게 된다. 인이란 내 자신에 의해 이룩되는 것으로 남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仁의 사상이 인간의 생활 속에서 사리에 맞게 구체화된 것이 예이다. 여기서 우리는 仁과 禮가 표리의 관계에 있으며 禮의 핵심이 仁에 놓여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공자의 사상이 중국유학의 기초를 놓았다면 孟子와 荀子를 통해 이론의 깊이를 더해 간다. 중국의 유학을 공자와 맹자와 순자를 중심으로 하는 ‘원시유학’과 그후에 ‘한당유학’ 및 송명의 ‘주자학’과 청대의 ‘실학’을 유

학의 큰 흐름으로 볼 때 원시유학의 이론적 완성을 성취한 맹자와 순자의 사상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 과업으로 여겨진다.

공자가 仁과 禮를 중심으로 유학의 방향과 터전을 잡았다면, 맹자는 性善說을 중심으로 공자의 이론을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순자는 性惡說을 기초로 하여 전국말의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속에서 유가를 현실화시켜 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유가사상의 추이는 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가의 사상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시대의 요구에 대하여 적응해 가면서 이론이 보완되고 변용되며 재해석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유가를 대하는 안목도 현대의 문제와 요구에 대하여 유가의 사상이 어떻게 재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 가라는 실용적 관점을 갖고 유학을 대할 때 이 시대에 살아서 숨쉬는 유가를 만날 수 있으리라 본다.



조 경현

孟子가 유가에 공헌한 것은 心性論의 깊이를 더해 주고 王道政治를 주장한 면에 있다고 사려된다. 인간의 내면에 착한 마음의 네 가지 뿌리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仁義禮智의 四端을 性善說의 근거로 제시한다. 맹자도 인간과 금수의 차이가 근소한 차이밖에 없음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인간이 금수와 다른 점은 仁義禮智의 四端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맹자의 인간관은 인간의 이상적 측면을 보고 인간에 대한 신뢰 위에 근거하여 인간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그의 의도에는 전국 중엽의 약육강식의 시대에 통치자들이 부국강병을 통한 정치적 야망의 실현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인격의 완성을 통해 民心을 얻어 천하를 德治에 의한 王道의 실현을 통해 다스리기를 바라는 염원이 깃들여 있다.

전국 중엽의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전쟁을 보면서 천하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방법으로 治者들의 인격완성에 의한 王道政治의 구현을 주장한 것은 그의 숭고한 이상과 그의 사상이 지닌 교육적 가치는 높이 살 수 있으나 현실세계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상론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사마천은

「史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맹가(孟軻)는 추나라 사람으로 子思의 門人에게서 수업하였다. 道에 통한 바 되어, 제나라 宣王을 游事하였으나 선왕은 그를 등용치 않았다. 양나라로 갔으나 양나라의 혜왕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당시는 …… 천하가 바야흐로 합종연횡(合縱連橫)에 힘쓰고 공벌(攻伐)을 현명하게 여기었다. 맹자는 요임금·순임금·우임금의 3대의 德을 풀어 밝

히었으나, 당시의 실정에는 맞지 않았다. 물러나서 萬章의 무리와 함께 詩·書를 서술하고, 공자의 뜻을 풀어 밝히고 「孟子」 7편을 지었다.”

이러한 맹자의 사상을 그의 사후에 1500여 년 동안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당나라 말엽의 志士들과 宋明의 理學者들에 의해 思想의 진가를 인정받게 된다.

유가는 인간을 교육을 통해 도덕을 수양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것의 근거를 공자



중국 유가(儒家)의 창시자 공자(孔子). 그가 주장한 仁과 禮는 중국인들이 중시하는 윤리정서요 사회 인륜질서의 행위규범이다.

가 명시하지 않은 것을 맹자가 人性의 善端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은 측은해 하고, 부끄러워하고, 공경하고,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측은해 하는 마음은 仁이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義이며, 공경하는 마음은 禮이며, 是非를 가리는 마음은 智이다. 이 仁義禮智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단지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 따름이다.” (孟子·告子上)

맹자가 언급한 인의예지는

사람의 천부적인 도덕정감으로 良知良能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지 않고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늘날의 良心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善의 네 가지 근거가 되는 ‘四端’을 확충함으로써 인간은 大人君子로까지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인 것이다. 君子와 小인이 선천적으로 다르게 태어났다고 보다는, 인간이 ‘四端’을 일깨워서 계속 지속시키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버리느냐의 선택에서 인격의 질적인 차이가 오는 것으로 본다. 여기에 대하여 공자는 “천성은 누구나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교양과 관습에 의해 서로 차이가 생기게 된

다.” (性相近也, 習相遠也。) - 陽貨-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맹자는 말하기를 “인간이 금수와 다른 바의 것은 거의 드물다. 서민은 그것을 버리고, 군자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 (人之所以異於禽獸者幾希. 庶民去之, 君子存之。) - 離婁下-

인간이 善行을 하는 근거를 인간의 내면에서 구하고, 이러한 인간의 도덕성의 근거를 道德天에 두는 데에 유가적인 사유의 특색이 놓이게 된다. 즉 유가의 도덕적 가치를 이끌어 내오고 있는 궁극적 근원은 ‘天’에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맹자가 「盡心上」에서 언급하기를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그 천성을 알게 되고, 그 천성을 알게 되면 하늘을 알게 된다.

그 마음을 보존하고 그 천성을 양육하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바이다.”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맹자에 있어서는 知天의 良知와 事天의 良能이 四端의 확충에서 그 가능근거를 갖고 있기에 人間의 主體的 自覺과 主體性이 증시되어진다. 유가에 있어서 自然이 어떻게 있느냐의 天道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풀어 주는 人道的 근거로서 요청되어지고 가치가 부여된 것이지, 天道가 그 자체로서 연구되어지고 관심의



중국의 철학사상은 천도(天道)와 인도(人道)를 매우 중시한다.

대상으로서 순수사변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면이 유가가 지니는 人文的 實用主義에서 오는 장점을 지닌 반면에 또한 한계점이기도 하다. 이는 평화시나 聖王이 통치할 때에는 이상적인 정치가 될 수 있으나, 난세시나 폭군이 등장할 때에는 人間中心의 人文主義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가의 약점이 전국 말엽의 荀子が 살던 시대에는 극대화되어 가면서, 荀子は 孟子를 공격하면서 性惡說을 주장하게 된다.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것으로는 전국말엽의 혼란한 시대를 초래한 원인을 해석할 수가 없다. 인간이 착한데 현실의 사회는 왜 이다지도 혼란하고 전쟁이 그치지 않느냐의 반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荀子は 현실적 인간의 모습을 情欲과 利己心으로 물들어 있는 惡으로 기울기 쉬운 本性의 소유자로 보게 된다.

맹자가 인간의 이상적인 내면을 성찰한 것에 반하여 순자는 인간의 현실적 실상을 관찰한 것이다. 이러한 두 사상가의 차이는 그들이 처한 시대배경에서 연유되어지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天下를 和평케 하려는 목적은 같으나 그것에 이르는 방법과 사유구조가 다르게 나

타난다. 이는 그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의 개성이 다름에서 오는 상대적인 측면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 荀子は 禮治에 의한 통치와 天人之分에 근거한 이론을 중심으로 인간의 주체적 노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순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본성이 악하니 선하다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人之性惡, 其善者僞也. 「性惡」)라고 언급하고 있다.

순자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에 스승과 법도의 가르침으로 心性을 교정하고 계발해야 한다. 즉 人僞에 의한 노력을 통해서만 인간이 善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孔子는 忠恕를 통한 仁의 실현을 도모하였고, 孟子는 盡心을 통해 四端의 확충을 통한 王道의 실현을 추구하였고, 荀子は 禮治에 의하여 性惡을 배제하고 교육에 의한 聖人の 구현에 이르기를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서로의 상이한 주장으로 전개하면서도 이들의 사상이 人間完成을 통한 安百姓의 修己安人의 理想을 추구하고 있음에서 原始儒家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修己治人이 유가 사상의 핵심임을 엿볼 수 있으며, 오늘의 인간부재의 시대에 유가의 인간완성을 통한 사회완성과 天下의

平和를 추구하는 이상이 물질주의와 배금주의를 극복하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가의 인간 중심적인 실용주의는 난세가 되어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의 主體性마저 부패되어 간다는 약점을 지닌 사상체계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유가의 단점을 老莊의 自然主義와 無爲自然의 思想이 보완시켜 주고 있으며 보다 역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활력을 넣어 주기도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기독교인들에게 孔孟의 가르침은 초월되어지고 함포되어져야 할 인격과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교훈으로 여겨짐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오늘의 말만 무성하고 생활이 뒤따라지는 않는 선데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유가의 가르침이 예수에 이르기 전에 넘어서야 할 인간학의 한 분야라고 여겨진다.

그런 연후에야 중국선교를 위한 덕성과 교양이 갖추어질 것이라는 필자의 의견을 제안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조경현/동양철학 박사,
중국어문선교회 회원

위험 수위에 다다른 최근 중국의 위생과 의료상황

강성광

들어가는 말

근래 중국은 돈 벌 수 있는 경제적인 업종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정부의 정책 및 일반인들의 우선 순위도 무슨 업종이든지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곳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정부의 투자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바로 의료 및 교육문제이다. 가장 최우선적인 사람의 건강과 생명, 개인과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교육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다.

중국 관방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교육과 의료 수준은 세계 120개 국가 중에서 거의 가장 하위급에 속한다고 한다. 중국은 지난 45년 동안 사회주의 이념의 정책으로 지식인·노동자 평등대우를 실시하여 전문적이고 고급 지식 부분인 의료, 교육 부문의 성장과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사회발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기부터 중국의 의사들이 자주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 “拿手術刀的不如拿剃頭刀的”(수술 메스를 쥐는 것은 이발하는 면도칼을 쥐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의사들의 수입이나 대우가 일반 노동자보다 못한 현상을 풍자하는 유행어이다.

이런 중국의 의료 제도 및 현실, 여러 문제점들, 각종 질병문제, 그리고 장애자

문제 등을 인용한 자료의 빈약함의 한계는 있지만 개략적인 중국의 최근 의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 우리의 역할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현 중국의 의료제도 및 여러 가지 문제점

1. 현행 중국의 의료제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한 이래로 공비(公費), 즉 국가 부담 제도와 직공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여 형식적으로는 전국민 의료보험제 같은 의료제도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1951년에 400만의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았으나 91년도에는 의료 혜택 인구가 1억 3천만 명으로 늘어났고, 그 경비도 막대해 국가기관, 각종 학교, 연구기관, 각종 공무원들의 의료비도 1978년에는 인민폐 31억 8천 원이었던 것이 90년도에는 220억의 엄청난 액수로 증가됨에 따라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 92년 초부터는 점차적으로 개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도입 추진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본래 중국의 의료 기술이나 설비가 열악한 상황 가운데 국가 운영의 계속적인 투자와 관심의 부실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중국의 의료 수준은 크게 발전할 수가 없었다.

또한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라고는 하지

만 전국민의 80% 이상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는 8억 이상이 의료 시설이 아주 빈약한 농촌 지역에 있을 뿐 아니라, 縣(한국의 군의 행정단위로 3~4개의 군을 합한 것과 같음) 소재지에 왜소한 준 종합병원이 하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진찰비, 약값 등이 비싸지는 않지만 꼭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농촌의 경제 사정상 병원에 간다는 것은 극히 힘들다. 그래서 아직까지 농촌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무슨 병인지도 알지 못한 채 죽는 경우가 많다.

즉 아직도 전체인구의 90% 이상이 의료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제 수준에 비하여 본다면 실제적인 모든 의료비를 지급하고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장 경제 체제의 전반적인 영향에 따라 자비 부담을 늘리는 의료개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예로 광주시의 한 국립 종합병원에서는 한 병동을 특별 개조하여 특별 설비와 고급 의료진으로 특실을 만들어 일반 환자보다 10배 이상의 진료비, 입원비 등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그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등록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절강성 항주시의 절강성 의과대학 제2 병원은 93년 2월부터 매년 정부에서 보조하는 160만원(인민폐)을 받지 않고 기존의 치료비를 30~50% 가량 인상하여 환자들에게 부담을 지움으로써,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독립적인 고가의 병원이 시작되었다. 본래 이 병원은 3급 갑(甲)류의 대학병원으로 진료비가 중급 이하의 병원 같았다고 한다. 그래서 매일 많은 환자들로 북적이고 의사들은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 늘 기진맥진하여 올바른 진료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강성광

고 나쁜 풍조(돈 봉투 건네주기) 등이 싹트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격 개혁)를 실시한 이후로는 환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고 큰 수술은 35% 정도 증가하고, 중·소형 수술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환자가 감소됨에 따라 의사들의 진료 태도도 좋아지고 환자들의 반응도 좋다고 한다. 이러한 병원의 개혁 처사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중국의 위생부장(위생부 장관) ‘천민징’이 이 병원을 시찰하고 나서 크게 칭찬하면서 “이러한 개혁이 의료, 위생 계통 개혁의 돌파구가 되었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러한 점차적인 개혁으로 병원의 수준이나 의료 보사 수준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격 개혁과 시장이 현실화된다고 해서 기존의 의료 기술이나 병원 설비, 의료 서비스가 빠른 가격 개혁에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2. 현 중국의 의료 풍조 및 각종 실태들

(1) 의사들의 돈 봉투 받는 것이 관례가 되다



뿐만 아니라 수술하기 전에도 메스를 든 의사에게 '홍빠오(紅包)'를 주는 것이 관례화 되었다고 한다.

요즘 중국 대륙 전체가 심각한 배금주의 현상에 처한 가운데, 가난한 전문지식인 의사들도 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중국 어느 병원에서나 공공연히 통하고 있는, 돈 봉투의 뒷거래이다. 필자도 중국의 한 작은 지방도시의 3급 의사의 고백을 들어 직접 확인한 적이 있다.

그 한 예를 들자면, 광주의 한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오후 시간이 다 되어 갈 무렵 한 급성 노인환자, 즉 급히 수술을 요하는 응급 환자가 가족들에 의해 실려 왔다. 마침 의사들은 모두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비록 긴급실의 경보가 울렸지만 당직의사는 들은 척도 안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급하여 발을 동동거리며 당직의사에게 사정하자 그 의사의 대답은 “당신들이 급해서 무엇을 할 것이요, 도대체 내가 의사요, 당신들이 의사요? 이러한 상황을 나는 수없이 보았소”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분이 가득한 채 의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당직 의사는 여전히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때

가족 한 사람이 말하길 “죽어 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고, 듣자 하니 요즘 병원에도 ‘돈 봉투(紅包)’가 돈다니 우리도 한번 사용해 봅시다.” 그래서 200원(인민폐)을 넣은 봉투를 마련하여 당직 의사실로 달음질하여 가 보니 의사는 탁자에 다리를 걸치고 앉아 신문을 보면서 사람이 온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가 봉투를 주자 아무말도 없이 즉시 청진기를 들고 응급실로 따라나섰다. 그리고 환자에게 응급 처리를 하고 손수 입원 수속을 해주며 수술 대기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술하기 전에도 메스를 든 의사에게 ‘홍빠오(紅包)’를 주는 것이 관례화되었다고 한다. 광주에 실습 온 견습 의사는 3개월 근무하는 동안 약 30차례나 홍빠오를 환자들의 가족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액수는 모두 5,000원이 넘었다고 한다(의사의 월급50~60원). 요즘 ‘홍빠오’는 의사와 환자간의 무언의 매개 수단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사들의 불성실한 의료행위, 오진 및 그릇된 치료 등의 수술로 인하여

상당수 환자들이 변을 당한다고 한다.

(2) 가짜 불량 약품의 범람

1993년 5월 ‘주용기’ 국무총리가 가짜 불량 약품의 범람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적이 있다. 요즘 적지 않은 중국인들이 돈을 버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닥치는대로 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가짜 불량물건의 범람이 심각하다. 그러나 정부의 의약품에 대한 관리부실(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불량약품의 범람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른 상태이다. 92년도에 중국 전역에서 가짜 약품으로 생명을 잃은 경우가 수십 건 이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더해 가고 있다.

그 한 예로 산둥성 허택지구 조현의 한 개인병원 의사가 두 살 반 된 손녀가 설사를 해서 주사약(주사약 표지에 “상해해보재약창” “9-0-0-8”이란 허가번호가 적혀 있었음)을 놓았는데 얼마 안되어 어린 손녀는 생명을 잃고 말았다 한다. 이런 예가 상당히 많다.

현 중국의 7개 성에 대표적인 큰 약품 도매시장이 있는데 상당수(심지어는 반수 가까이)의 가짜 불량 약품이 대량으로 거래되어 전국적으로 팔려 나간다고 한다. 한 예로 하북성의 한 현에서는 1Km 가량 늘어선 약품상에 약 2만 명의 약도매상이 2천여 종의 양약, 한약(그중 반수가 가까이 가짜 불량 약품)을 팔고 있는데, 1일 총매상량은 300만 원(한화 3억원 정도)이고, 연 총 교역량은 8억(인민폐)을 초과하는 엄청난 양의 약이 중국 전역으로 팔려 가고 있다고 한다.

가짜 약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주사약, 의료기기, 보건 한약품, 양약, 심지어는 동물용 약이 사람용으로 둔갑하여 팔려지고 있고, 수법이나 종류가 수없이 많

다고 한다. 이러한 심각한 가짜 약의 유통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지방 간부들의 부패, 지방보호주의 등으로 분석될 수 있다.

(3) 일회용 주사기의 심각한 위험현상

중국은 1980년대부터 1회용 주사기 사용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실시가 장려되는 기간 동안 북경의 모 큰 병원에서도 일주일 동안 연달아 큰 의료사고가 발생했는데, 수십 명의 환자들이 주사를 맞고 심한 고열과 오한 증세를 나타낸 것이다. 환자 중에는 그 병원 원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고 원인은 위생처리가 잘 안된 상태로 생산된 일회용 주사기에 있었다. 그러나 생산제품의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관리 부실과 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많은 주사기 사고가 나고 있다.

일회용 주사기가 노동집약적 제품이고 개체 군소 생산업자들, 심지어 농민들이 허가증도 없이 아무런 위생적인 시설도 없이 원시적으로 생산하여 포장도 조잡하고 아무렇게나 포장되어 도시지역으로 팔아 넘기고 있다. 이런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생산되는 일회용 주사기가 년 5,000만 개 넘는다고 한다.

더욱 경악할 한 예는 중국 서안을 출발한 한 화물열차가 호남성 장사시에 잠깐 정차했을 때 철도 근무원이 한 량의 화물칸에 파리떼가 엉겨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의 시체가 감추어진 줄 알고 공안원을 데려다가 화물칸 안의 큰 마대 자루를 열자 경악할 만한 일이 폭로되었는데, 피가 묻은 수 없이 많은 일회용 주사기들이 마대 자루마다 들어 있었다.

조사한 결과 서안 지역의 병원에서 주사하고 버린 것을 수거하여 강서성의 한 지역 공장에서 씻은 다음 포장하여 다시 팔기 위하여 운송 중이었다 한다. 이처럼

현 중국의 7개 성에 대표적인 큰 약품 도매시장이 있는데 상당수(심지어는 반수 가까이)의 가짜 불량 약품이 대량으로 거래되어 전국적으로 팔려 나간다고 한다.

요즘 중국의 위생당국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심각한 요오드 결핍증이다.

오늘날 중국의 의료상황들은 팽배한 배금주의 물결과 경제발전의 소용돌이 가운데 심각하게 표류하고 있다.

최근 중국인들의 위생 상태와 각종 질병의 상황들

중국인의 평균 수명은 70세로 세계 평균 수명 65세보다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중국인들이 열악한 위생 환경에 살고 있다. 현재 중국의 6억 이상의 사람들이 위생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

요즘 중국의 위생당국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심각한 요오드 결핍증이다. 중국 영업 총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1991년 요오드 결핍 발생지역이 약 20,274개 지역이나 되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는 4억 8천만 가까이 된다고 한다.

요오드 결핍의 주원인은 요오드가 없는 소금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1992년에는 요오드 결핍 발생 지역이 약 2만 8천지역으

로 늘어났고 이 지역 인구도 5.1억으로 늘어났다. 이 수치는 중국 전체 인구의 반수이며 역시 세계 전체 요오드 결핍 지역 전체 인구의 반이나 되는 엄청난 수치이다.

이러한 주요 원인은 천연 염전 소금을 구하기 어려운 중국 내륙지역 즉 내몽고, 신장, 사천, 귀주, 저장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섬서, 하북성 지역, 심지어 북경까지 밀매 소금(국가의 검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 밀매 소금)이 유통되기 때문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전체 국민의 위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전국적인 불량 소금이 전체 소금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중국 각지에서 목질병, 즉 목에 큰 혹이 생기는 병이 중국에 급속히 만연되고 있고, 또한 산모의 요오드 결핍으로 유산, 조산, 사산아, 그리고 정상적으로 유아가 출생해도 산모가 이런 결핍 현상이 있을 경우 지력장애(정박아)로 출생될 확률이 아주 많다고 한다.

전국 장애인협회의 1987년 통계에 의하면 1,017만 지력 장애인 중 80% 이상이 요오드결핍으로 발생했다고 한다. 그 때 이후로 불량소금 확산량이 많으므로 이런 현상은 가속화되리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요오드 부족으로 전국에 “지방성 갑상선” 환자가 700만 명, 아카당병이라고 하는 요오드 결핍증에 800만 명이 걸려 있다고 한다.

최근 중국의 장애인 문제와 복지정책 및 실태

1987년 통계로 중국은 전인구의 4.9%가 넘는 5,164만 명의 엄청난 장애자가 있다 (도표 참조). 아무리 전체 인구가 많지만 이것은 엄청난 숫자이다. 더군다나 이것이 6년 전의 통계이고 관방 통계로서 보



귀주성 귀양(貴州省 貴陽)의 한 허름한 병원. 대부분 지역의 낮은 의료수준과 불량한 위생상태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수적인 숫자일 것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숫자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여겨진다.

1. 장애자 발생의 주요원인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중국 의료 수준의 낙후, 그리고 상당수의 농촌 인민들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로 인하여 장애자 출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원인을 말하자면 앞에서 지적했듯이 산모들의 요오드 부족현상으로 인한 각종 지력장애자 발생, 농촌 지역에서의 적지않은 근친 결혼 등이다. 그리고 근래 들어 중국의 농촌지역에서 조기결혼 현상이 심각하여 저능아 및 기형아 출산율이 높다고 한다.

호남성의 한 조사 통계에 의하면 호남성 신조현 4개 빈곤지구에서 근래 4년 동안 결혼 등기한 270쌍의 부부를 상대로 결혼 연령을 조사한 결과 놀랄 만한 통계가 나왔다. 한쪽의 나이가 10세 이하인 경우가 10쌍, 12~16세인 경우가 146쌍, 아직 크지 않은 4~5세 미만의 여자 애를 데려다 민며느릿감으로 키우는 경우가 5명이라고 한다.

이런 원인으로 장애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산모의 약물 남용 및 어린이 질병에 대한 잘못된 치료 및 약물 사용의 실수로 평생 불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계속 늘어나는 장애자 문제에 대해, 중국정부의 각종 의료 정책만으로 장애자 숫자를 줄이는 것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2. 현재 중국 장애자들의 직면한 상황 및 문제점

중국의 사회주의 정책의 실시로 오래 전부터 그들의 경제 수준과 다른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애자 복지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 왔다. 더욱이 중국의 최

고 실력자 등소평의 아들 등력방이 중국 장애자협회 주석 겸 이사장으로 막강한 조직과 배후가 있기에 장애자 복지에 큰 기대를 걸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작년 이후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여전한 사회보장 체제의 미성숙,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이해 및 보호 관념의 부족으로 장애인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 복합적인 원인들이 중국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사회 불안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특히 1979년 중국 11기.3차 인민회의 이후로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큰 솥밥 제도(같이 일하여 똑같이 먹자는)가 무너지고 체력과 지력이 완비된 사람이 돈을 먼저 벌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체와 지력조건에서 일반인에 못 미치는 장애인들이 그들과 똑같이 경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렇게 장애자 문제는 정치적인 배려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상황이고 있다. 즉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현시점에서 장애인의 자립, 자존 추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3. 중국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 및 그 실태

중국 정부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책적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실태로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과 국무원 발령의 '중국 장애인 사업 "85" 계획 강요'는 장애인의 충분한 사회 참여와 기회 균등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각 시(지방)는 각 지역의 상황에 근거하여 사회 단위와 직장 단위별로 장애인에게 취업을 할당해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장애인 노동취업 기금'을 납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 도시 장애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현시점에서 장애인의 자립, 자존 추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한 농촌에서 의사들이 순회진료를 하고 있다. 의료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관심 부족으로 대다수의 농민들이 열악한 상황아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근래 시장경제의 경쟁 가운데 해고당하는 장애자의 수가 심각하리만치 늘고 있다.

인 취업률은 50%, 농촌 장애인 취업률은 61%, 전국에 있는 장애자를 위한 복리 기업은 4만 2천여 개소이고 여기에 취업한 장애인은 75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급격한 사회 변혁, 시장경제 체제, 국영기업의 국가 통제 완화, 사영기업 증가 등의 원인으로 장애인 복지 실현이나 취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수천만이 넘는 장애인 중에서 국가 공양(국영기업 취업 포함)은 2.6%, 부모 또는 친척의 부양이 68%, 본인의 능력에 의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30.2%라고 한다. 하지만 중국 전역에 200만의 노동 능력 있는 장애인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근래 시장경제의 경쟁 가운데 해고당하는 장애자의 수가 심각하리만치 늘고 있다. 상해시의 한 지역 공단에서 한꺼번에 7천명의 장애인이 해고를 당했는데 그 중 대부분이 그 직장에서 작업중에 불구가 된 노동자들이라고 한다. 또한 북경시 장애인의 90%가 의식주 어려운

절대 빈곤층에 속해 있으며 전국의 2천만 이상의 장애인이 의식주가 어려운 절대 빈곤층 속해 있다고 한다.

중국의 의료 위생 및 장애인 지원을 위한 외계(국외)의 가능성 및 반응

중국 정부는 1993년 1월 1일부로 “外國醫師來華短期行醫暫行管理辦法”, 즉 외국인 의사의 중국에서의 단기 의료 행위에 관한 법을 정해서 의사나 의료 단체들이 중국 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모두 20개 항의 절차법으로 주요 내용은, 초청 본인 신청에 의하여 단기간 의료 활동을 하는 의료인(외국 의사)은 일 년 임시 기한 내에서 임상 진단, 치료 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의사가 중국에 와서 단기 1년 내외의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정부에 등록하여 위생부의 통행 허가증을 받고 중국의 의료 기관 초청에 의하여 합작기관(병원 등)과 합작 협정서에 조인하고 외국 의사 학위 증명서 및 의사 자격증, 의사의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92년 말경부터는 의료 부문에 대해 투자를 허락하여 외국과 합작(기술 합작), 합자(자금 및 기술 유치) 병원 등의 형태로 외국 의료 기술과 설비 자본을 유치하여 중국의 의료부문의 개혁과 발전을 꾀하려 하고 있다. 그 범위도 전반적인 의료부문으로 자금, 기술, 설비, 병원 합작,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시급 이상의 위생 행정 부문에서는 합작병원 설립, 외국 의료인 초청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중국의 약 2천만 명에 달하는 지체 부자유자 중에서 30~40% 정도는 외과 수술, 보조기구, 특수 훈련(물리치료)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낙후된 의료 시설 수준, 경제

적 빈곤으로 인해 많은 장애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알게 된 홍콩의 의사 및 의료인들이 「관회행동(關懷行動; 관심과 사랑의 행동)」이라는 자선 기금회를 조직하여 중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장애자(지체 부자유자)가 많은 지역을 방문하여 수술 및 물리치료 등을 통하여 많은 환자와 장애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한 번에 10~12명의 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들이 빈곤한 지역에 찾아가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1년에 두 번 씩 계속 이런 의료 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맺는 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중국의 의료상태, 장애자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이 글을 정리한 이유는 우리의 이웃이며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필요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지루하고 딱딱한 글을 옮겨 보았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돌아보시고 치료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의 영혼의 필요뿐 아니라 전인격적인 필요를 보고 관심과 사랑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돈만 알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던 홍콩 사람들이지만 의료인들은 동포애를 가지고 많은 돈을 기부하며 그들의 의료기술과 시간을 기꺼이 동포애 실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목적론적 접근만이 아닌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품어 주셨듯이 우리도 중국을 향하여 좀 더 큰마음과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국 장애자 인구통계(1987년)

종 류	숫 자
청력과 언어장애	1,770만
지능장애	1,017만
신체장애	755만
시력장애	755만
정신장애	194만
다중장애	673만
총 계	5,164만 (총인구 4.9%)

※ 자료출처:중국 장애자연협회

중국 장애자 교육, 취업 및 복지 상황(1991)

특수학교	820개
일반학교내의 특수교육반	2,651반
직업훈련센터	28개
장애자 복지기업	4만2천개 (총75 만명)
장애자 취업율(도시)	50%
장애자 취업율(농촌)	1%

※ 자료출처:중국 장애자연협회

이제는 단순한 목적론적 접근만이 아닌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품어 주셨듯이 우리도 중국을 향하여 좀 더 큰 마음과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국 소수민족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熊黃惠玲譯

만약 이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려 한다면 세계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국 소수민족은 전세계의 복음의 혜택을 받지 못한 민족 중 그 인구가 가장 많은 무리 중의 하나이다. 정치, 언어, 빈곤, 문화 등의 장애가 그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한 요인이 되었다.

중국 대륙의 공인된 55개의 소수민족 중 극소수만이 늘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기회가 있을 뿐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황폐하고 궁벽한 촌락이나 아득한 고산지역, 심지어는 외부에 개방이 금지된 구역에 거주하고 있다. 만약 이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려 한다면 세계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경번역

오늘날, 백만 명 이상의 소수민족들이 18종류의 소수민족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장족(壯族)은 소수민족 가운데 1,500만 명을 육박하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민족이지만, 그 외에 인구가 매우

적은 독룡족(獨龍族, 인구: 5,816), 기약족(基諾族, 인구: 8,021), 덕앙족(德昂族, 인구: 15,462) 등의 소수민족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소수 민족은 자기들의 언어만 이해할 뿐 기타 중국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번역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여 믿음으로 의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찍이 1949년 전에 이미 묘문(苗文), 이문(彝文), 조선어(朝鮮語)로 된 부분적 성경번역 작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인쇄되어 책으로까지 판매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역시 각 소수민족들의 언어로 성경번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장기적으로 헌신할 크리스천들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한어가 소수민족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교제

언어이므로, 중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는 보통화에 정통한 해외의 중국인들이 훨씬 번역 작업에 적합하다. 외국인들은 먼저 한어를 배운 후에 또 자기가 번역할 소수민족의 언어를 습득해야 하지만, 이미 한어에 능숙한 해외의 화교들은 중복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현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꺼이 희생을 치루고 중국 소수민족의 복음화에 장기간 헌신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방의 백인들이다.

복음 방송

사실이 증명하는 바로는 복음전파방송은 여태껏 극소수의 열심 있는 신자들의 소수민족에 대한 복음전파에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 되어 왔다. 소수민족의 문맹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쇄된 문서 간행물보다는 복음전파 방송이 훨씬 효과적이다.

광서(廣西)와 운남(雲南) 두 성의 서남부에 분포하는 소수민족에 관해 말하자면, 전파방송은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초신자로 양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

백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위구르족(維吾爾族), 장족(壯族)과 토가족(土家族)들은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할 뿐더



와족(佯族) 어린이의 맑은 눈망울. 이 어린이의 미래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러 자신의 글로 된 성경도 없으므로 복음방송 사명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런 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

문서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 모두 독특한 문화와 역사, 세계관을 갖고 있다.

운남성(雲南省) 서남부에 거주하는 백만여 명의 다이족(傣族)을 위해 쓰여진 복음 서적들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우선 그들의 소송불교 세계관과 연관지어 말해야 한다. 이는 불교가 다이족(傣族)의 사상형태에 대단히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일반 중국인들을 위해 세심하게 씌

어진 복음적 문서라 하더라도 다이족에게는 실제로 별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중국의 각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는 회족(回族)들에게도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영하회족(寧夏回族) 자치구가 그러하다. 이때 만약 복음 서적들이 회족들의 문화와 사상형태에 적합하게 씌어진다면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회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량으로 간행물들이 출판되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이것들을 전문적으로 번역하여 중국의 회족들에게 보내어 읽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다.

9백 80만의 거대한 인구를

사랑하는 만족(滿族)은 그들의 유구한 역사와, 청조가 중국에 행한 공헌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의 세계관에 초점을 맞춰 저술되는 간행물이 만약 만족의 역사나 청 제국의 문화를 예로 들어 저술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4백 50만의 장족(藏族)을 위해 쓰여진 복음 간행물은 필연코 그들이 신봉하는 라마교의 민감한 반응에 부딪힐 것이다. 그들 내에 존재하는 경건한 기도, 귀신, 영혼, 불공의 관념 등을 빌어 복음간행물의 내용 속에서 기독교의 구원의 은혜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소수민족 중 최대 민족인 장족(藏族)에 있어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 민간설화와 문화적 특색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돕는 훌륭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도 문화를 초월하여 인종학과 인류학의 훈련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장족의 민간 신앙을 연구하며 기독교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장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시골 민간에 잘 알려진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 과수원이 하나 있었

다. 그런데 한 귀신이 장족을 부추겨서 나무 열매를 먹게 했는데, 그만 열매가 목구멍에 걸리게 되었다. 이후 장족은 인간세상으로 쫓겨나 고생하며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또다른 전설은 사망을 장족에게 가져다 준 거짓말하는 뱀에 관한 전설이다.

장족뿐 아니라 기타 다른 소수민족들 모두 음악의 독특한 악풍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 음악가들이 정리하여 소수민족을 위한 성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반 문맹이나 완전 문맹인 민족들에게는 녹음 테이프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크리스천들의 간증이나 방송 프로그램들을 한 번 녹음하면 녹음기를 이용하여 수 천 번도 더 들려 줄 수 있으니, 소수민족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라도 이 테이프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산 넘고 물 건너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복음을 설명하는 비디오 테이프가 소수민족의 언어로 제작되었고, VTR도 점점 축소되고 가벼워지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보기도

전세계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것은 중

국 소수민족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효과적인 기도는 반드시 먼저 정확한 소식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소수민족들의 필요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을 알려야 한다.

제한된 환경하에서는 특별한 기도망을 만들어 중국 55개 소수민족을 위해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만약 매 소수민족들 가운데 한 개의 중국인 교회가 있어 그들을 위해 소식을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세계 각지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알려 기도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 확신한다.

55개 소수민족들을 위해 55개 처소의 중국인 교회가 중보기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가 가장 많은 만주족(滿族)이나 장족(壯族)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필요를 위해 도처에 있는 중국인 교회, 북미, 아시아, 유럽 등지의 교회들이 공동으로 기도의 부담을 지는 것이다.

인구가 비교적 적은 소수민족의 경우는, 개별 교회들이 이들의 필요를 수집하고 이를 전달해 주는 책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교회가 복음이 미치지 않는 개개의 소수민족을 대신자로 삼아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그



다이족(傣族)이 발수절(潑水節) 축제를 벌이는 광경. 우리는 이런 축제 기간을 이용하여 이들과 접촉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들의 복음사역을 지지해 주는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이들 소수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처럼 한 민족을 태신자로 삼는 일은 하나님의 소수민족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초보적 단계의 실천이다.

단기적인 기회

관광사업은 중국정부가 외화를 끌어들이는 주요 수단이다. 많은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들, 예컨대 서장(西藏), 내몽고(內蒙古), 신강성(新疆省), 운남성(雲南省), 광서성(廣西省) 모두 외국 여행객들에게 개방되는 지역이다.

운남성 남부의 서쌍판납(西雙版納) 다이족 자치구에 거주하는 다이족(泰族)은, 매년 4월이 되면 모두 경홍시(景洪市)로 모여들어 그 유명한 발수절(潑水節) 행사를 거

행하는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이 행사에 참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크리스천, 특히 태국으로부터 온 태국북부의 토속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라면 아무런 곤란없이 다이족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다. 관광객들을 이 절기에 참가하도록 배려하면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으며 수많은 다이족들과의 접촉도 보장된다. 그들은 그 절기에 참가하려고 시골 각지에서 경홍(景洪) 등과 같은 대도시로 대거 몰려든다.

음력 3월 3일이 되면 친육백만이나 되는 장족(壯族)들이 그 유명한 <3·3 신년>을 경축하기 위해 모여든다.

중국 대륙정부는 매년 이때가 되면 세계 각지 즉 유럽·북미의 관광객들과 해외의 화교들이 광서성에서 거행되

는 이 절기에 참여토록 권장하고 있다. 수많은 장족들이 다 함께 모여 산가(山歌)경연대회 및 독특한 운동경기로 밤새껏 축제를 즐긴다.

외국의 크리스천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산간 벽지에서 온 장족들과 신앙에 대해 함께 얘기할 수 있다. 크리스천들이 경영하는 각 여행사들은 외국인을 위해 10~15일의 장기적 중국 선교 여행단을 조직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소수민족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특별 여행단에 참가하는 크리스천들은 거의 서방인사들이다. 해외의 화교 크리스천들은 중국어를 알고 또 그 지역의 문화에 비교적 익숙하지만 화교 크리스천 중에서 이러한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극소수여서 아쉽기만 하다.

특수 전문인 지도자들은 외국인 전문가의 신분으로 중국 소수민족이 함께 모여 사는 지역에서 일할 기회가 매우 많다. 이 지역의 빈곤한 사정은 고질적이어서 아시아 개발은행 또는 세계은행과 같은 조직들이 자금지원하는 개발공사에 외국 고문, 농업 전문가, 영양학자와 기타 개발을 도와줄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이들 전문가들 중 대다수가 중국어에 밝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발 공사는 단기간이든 장기기간이든 이미 제공된 기회이며, 이러한 것은 빈곤한 소수민족의 복음 사역을 위해 크리스천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중국 연안 지방의 성들 중 일부지역에 이미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은 해외의 화교들이 중국 대륙에 학교, 병원, 기타 공중 시설을 세우도록 원조하는 것을 보고 도전 받은 해외 이민 크리스천들이 교회당을 건축하는 데 원조하였기 때문이고 그들도 이것으로 인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태평양 연안의 어떤 중국 촌락의 경우, 해외 친척들이 고향에 있는 친척들을 위해 금전적으로 원조하고 공공시설물을 건립한 사실에 대해 주민들이 굉장한 긍지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해외 화교들이 극

빈한 소수민족의 거주지역에 기금을 원조하여 학교, 병원, 교회를 건립한다는 소식은 영 듣기가 어렵다. 사실 이 지역이야말로 중국에서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지역인데도 말이다.

전문적인 의료분야에서 일하는 적지 않은 수의 화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황폐하고 궁벽한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들을 방문할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이들이 단기간이라도 자신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수민족의 병원에서 회의, 강좌, 학습 프로그램들을 주관하는 사역들이 북경이나 상해를 방문하는 일부 '귀족' 전문의들의 명예나 지위와는 비교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돕는 것은 더욱 영광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해외의 화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들은 이주한 국가 안에서 훌륭한 사업을 이룰 수 있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 안에서 기지와 재능을 발휘하여 사업들을 일으킬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낙후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해외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지역 내에서 합자기업, 무역회사, 제조생산업체들을 건립하기를 끊임없

이 권장하고 있다.

중국 대륙을 자주 찾는 사람들은 중국 어느 곳을 여행하든지 대만이나 기타 해외로부터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찾고 있다. 해외 화교들도 이런 사업을 기반으로 삼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설립하며 신도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등의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이상으로 복음의 혜택을 받지 못한 중국의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책임져야 할 도전이다.

만약 우리들이 서기 2000년에 모든 언어로, 모든 부족,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함께 협력하여 소수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데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야만 할 것이다. 2000년대 복음 전파의 비전은 바로 이때 실현될 것이다.

(「誰來關心我?」 중에서)

번역:이성철(중국어문선교회 회원)

그들은 어디에 살며, 어떤 언어를 사용하나?



민족 대단결. 각 소수민족들이 다 함께 모여 가무(歌舞)를 즐기고 있다.

만족 (滿族 ; Manzhu)

인구 및 분포 :

인구 9,821,180명의 만족은 동북 3성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요녕성에 가장 많이 거주하여 성 인구의 40%를 차지한다. 그 나머지는 흑룡강, 길림, 하북, 내몽고, 신강 등의 성과 북경, 천진, 심양, 하얼빈, 장춘, 성도, 광주 등의 대도시에 고루 거주한다.

언어 :

언어는 만어(滿語)를 사용하는데 알타이어계 통구스어족 만어갈래에 속한다.

1599년에 누루하치는 몽고문자를 빌어서 만문(滿文)을 만들도록 명령했다. 이런 문자는 부호(符號)가 없는 '고만문(古滿文)'이다.

1632년 황태극(皇太極)은 고만문을 개선토록 명령하고 부호를 더 첨가하여 다른 어음으로 구별하였으니, 이 개량된 만문이 부호가 있는 '신만문(新滿文)'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17세기부터 중원의 주인으로 중국을 통일한 만족들이 숫자적으로 우세한 한족 가운데서 생활하며 통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어(漢語)를 배워야만 했다. 한어는 만족의 교제언어, 통용어가 되었고 만어의 사용은 오히려 감소되었다. 다만 흑룡강과嫩江(嫩江)일대의 만족만이 촌락을 이루고 만어를 쓰고 있을 뿐이었다.

1931년 일본군은 9·18사변 후 중국 동북 지역에 들어와 주민을 흑하(黑河)로 옮기고 만족 촌락을 파괴하였으며, 강제로 한어를 사용토록 하였기에 그 결과, 만어를 말하거나 이해하는 만족이 날로 감소하



회족(回族)

게 되었다.

1961년 만어와 만문이 소멸되는 데 대해 위기 의식을 느낀 전 총리 주은래(周恩來)의 지시로, 북경 중앙민족학원에 5년 기간의 만족어문의 과정이 개설되어 만어학자를 길러낼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흑룡강, 길림, 요녕 등지에서도 동일한 과정을 마련하여 만문을 보존토록 하였다. 또한 번역 인재를 훈련, 양성하여 청 정부의 대량의 진귀한 문헌을 한문(漢文)으로 번역하게 했다.

조선족 (朝鮮族 ; Korean)

인구 및 분포 :

인구 1,920,579명의 조선족은 길림, 흑룡강, 요녕성에 주로 거주하며 그 나머지는 북경, 천진, 상해, 항주, 광주 등 전국 각 대도시에서 흩어져 살고 있다.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주요 거주지이며 약 76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언어 :

조선족은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갖고 있다. 어떤이는 조선어가 알타이어계에 속한다고 하나 결론은 내릴 수 없다. 조선족은 15세기 중기에 문자를 창제했는데, 각지고 반듯한 글자 모양의 소리문자로서 남북한에서 함께 통용되고 있다. 대도시에서 흩어져 사는 소수의 조선족들은 한어를 '통용하고 있다.

다워르족 [達斡爾族 ; Daur]

인구 및 분포 :

인구 121,357명의 다워르족은, 내몽고 자치구의 달씨다워르족(達氏達斡爾族) 자치기(自治旗; 자치현에 해당), 오원크족 자치기(鄂溫克族自治旗), 흑룡강성의 제체합이시(齊齊哈爾市) 교외지역, 매리쓰(梅里斯) 구역, 부라이치(富拉爾基)구에 주로 거주하며 소수는 신강성의 탑성(塔城), 괵성(霍城) 지역에서 살고 있다.

언어 :

다워르어는 알타이어계 몽고어

족에 속한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므로 포특합(布特合), 제체합이(齊齊哈爾)와 신강(新疆) 3 종류의 방언으로 형성되었으나, 큰 구별 없이 사용된다. 다워르족은 문자가 없으며 과거에는 만문을 통용하였으나, 신해혁명 후에는 보편적으로 한어(漢語)를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 몽고문(蒙古文), 위구르문(維吾爾文), 카자크문(哈薩克文)을 겸해서 사용하고 있다.

오원크족 [鄂溫克族 ; Ewenki]

인구 및 분포 :

인구 26,315명의 오원크족은 주로 내몽고 자치구의 오원크족 자치기, 모리따와 다워르족 자치기(莫力達瓦達斡爾族 自治旗), 어룬춘족 자치기(鄂倫春族自治旗), 아영기(阿榮旗), 포특합기(布特哈旗)에 거주하며, 그 외 소수는 흑룡강성의 늘하(訥河), 감남현(甘南縣)과 신강 위구르 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에 흩어져 있다.

언어 :

오원크족의 본족(本族) 언어는 알타이어계 만·통구스어족 통구스어 갈래에 속하며 본족의 문자는 없다. 목축구역에서는 몽고어문을 통용하며 농업지역과 산간구역은 한문(漢文)과 다워르어(達斡爾語)를 겸용하고 있다.

어룬춘족

[鄂倫春族 ; Oulunchun]

인구 및 분포 :

인구 6,965명의 어룬춘족은 주로 내몽고 자치구역, 호윤견이맹 어룬춘 자치기(呼倫貝爾盟鄂倫春自治旗), 모리파와 다워르족 자치기(莫力達瓦達斡爾族自治旗), 그리고 흑룡강성의 호마(呼瑪), 애휘(愛輝), 손극(遜克), 가음(嘉蔭)현 등에 분

포 거주한다.

언어 :

어룬춘어(鄂倫春語)는 알타이어계 만·통구스어족 통구스어 갈래에 속하며 본족 문자가 없이 한문을 사용하고 있다.

허쩌족 [赫哲族 ; Hezhe]

인구 및 분포 :

인구 4,245명의 허쩌족은 대부분 흑룡강성 동강(同江), 무원(撫遠)과 요하(饒河) 등 현의 강변지역에 있으며 소수는 특득리(勒得利), 가목사(佳木斯) 등에 거주하고 있다.

언어 :

허쩌어는 알타이어계 만·통구스어족 만주어 갈래에 속하며 문자가 없고 대부분 한문을 사용한다.

회족 [回族 ; Hui]

인구 및 분포 :

인구 8,602,978명의 회족은 주로 영하·감숙·하남·신강·청해·운남·하북·산둥·안휘·요령·북경·내몽고·흑룡강·천진·길림·섬서성 등의 도시에 고루 분포해 있다.

언어 :

공동언어로 한어를 사용하지만 약간의 아랍어와 페르시아 어휘가 남아 있고 한문을 통용하고 있다. 변방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민족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몽고족 [蒙古族 ; Mongolian]

인구 및 분포 :

인구 4,806,849명의 몽고족의



몽고족(蒙古族)



내몽고의 히라穆仁 초원. 초원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은 대부분 천막으로 이동생활을 한다.

주요 거주지는 내몽고 자치구이며, 요녕·신강·길림·흑룡강·청해·하북·하남·감숙·운남 등지에도 고루 분포되어 있다.

언어 :

몽고어는 알타이어계 몽고어족에 속하며 내몽고, 위라특(衛拉特), 파이호(巴爾虎)의 포리아특(布利亞特) 3 종류의 방언이 있다. 몽고는 13세기 초에 이미 문자가 있었는데 17세기 때 자아(咱雅), 반제달(班第達)을 거치면서 개량되어 도덕몽고문(陶德蒙古文)이라 불려지게 되어 신강 등지의 몽고족 가운데 통용되게 되었다.

똥상족 [東鄉族 ; Dongxiang]

인구 및 분포 :

인구 373,872명의 똥상족의 주요 분포지는 감숙성 임하 회족

자치주(甘肅省臨夏回族自治州), 똥상족 자치현 경계 내에 있으며 그 외 감숙성 광하(廣河), 화정(和政), 임하(臨夏) 등의 현과 신강이리(新疆伊犁) 지구에 흩어져 있다.

언어 :

똥상어는 알타이어계 몽고어족에 속한다. 어휘 가운데 몽고어, 돌궐어(突厥語),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빌어 쓰며 한어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본족은 문자가 없어 지금은 한문을 사용하고 있고, 민족의 대다수가 한어를 이해하고 있다. 종교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랍문을 알고 있다.

투족 [土族 ; Tu]

인구 및 분포 :

인구 191,624명의 투족은 청해성 동부의 호조 투족 자치현(互助土族自治縣), 그리고 민화(民和), 대통(大通) 두 현에 있다. 그 외 동인, 낙도, 문원, 도란, 오란, 귀덕, 공화, 서령과 감숙성의 적석산, 탁니, 빙등, 숙남, 천축 등지에 흩어져 있다.

언어 :

투어는 알타이어계 몽고어족에 속하며 호조(互助), 민화(民和), 동인(同仁)의 3대 방언이 있다.

기본 어휘는 몽고어와 서로 같거나 유사하며 한어(漢語), 장어(藏語) 어휘를 적잖이 흡수하였다. 똥상어(東鄉語)와 빠오안어(保安語)는 더욱 유사하다. 일부 토족은 한어와 장어(藏語)를 겸용하고 있다. 투족은 본족의 문자가 없이 줄곧 한문과 장어를 사용해 왔는데, 1979년 청해성 정부는 투족을 위해 라틴문의 자모로 기초가 되는 문자를 제정하여 현재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싸라족 [撒拉族 ; Salar]

인구 및 분포 :

인구 87,697명의 살라족의 주요 거주지는 청해성 순화 살라족 자치현(青海省循化撒拉族自治縣)이며 그와 인접한 화룽회족 자치현 감도향(化隆回族自治縣甘都鄉), 감숙성 적석산(積石山) 빠오안족·똥상족·살라족 자치현에 분포되어 있



중국 소수민족 축제에서 소수민족들과 여행객들이 함께 어울려 춤을 추고 있다.

으며 청해, 감숙 그리고 신강의 縣市 안에도 소수가 거주한다.

언어 :

살라어는 알타이어계 돌궐어족 서흉노어 갈래 오고사어족에 속하며 위구르어, 우즈베크어가깝다. 한(漢), 회(回), 장(藏)의 각족과 교류하므로 적지 않은 한어와 장어 어휘를 받아들인게 되었다. 이 외에도 소수는 페르시아, 아랍의 종교용어를 빌어 쓰기도 하며 본족의 문자가 없어 한문을 통용한다.

위꾸족 [裕固族 : Yugu]

인구 및 분포 :

인구 12,297명의 위꾸족의 주요 거주지는 감숙성 숙남 위꾸족 자치현이며 소수는 신강 주천현 황니보 위꾸족 향(新疆酒泉縣黃泥堡裕固族鄉)에 거주하고 있다.

언어 :

위꾸족은 3종류의 언어를 갖고 있다. 서부의 위꾸어는 알타이어계 돌궐어족에 속하며 옛날의 회골어(回鶻語)의 일종이다. 동부의 위꾸어는 알타이어계 몽고어족에 속하며 13,14세기의 몽고어에 근접하고 있다. 두 종류의 언어는 고대 언어의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적잖은 외래어의 성분을 받아 들였다. 이 밖에 한어를 사용한다.

위꾸족은 역사상 교회골문을 사용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전

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한문을 사용한다.

빠오안족 [保安族 ; Bao'an]

인구 및 분포 :

인구 12,212명의 빠오안족의 주요 분포지는 감숙성 적석산(積石山) 빠오안족·퉁상족·살라족 자치현, 임하대하가(臨河大河家), 유집(劉集) 일대이며, 소수는 임하 회족 자치주의 각 현과 청해성(青海省) 순화현(循化縣) 등지에 거주하고 있다.

언어 :

빠오안어는 알타이어계 몽고어족에 속하며 투족, 퉁상족의 언어와 유사하다.

또한 대량의 한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빠오안족은 모두 한어를 알고 있으며 한문을 사용하고 있다.

위구르족 [維吾爾族 ; Uygur]

인구 및 분포 :

인구 7,212,431명의 위구르족은 주로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 거주하며 일부분은 호남성 도원상덕현(湖南省桃源常德縣)에 거주한다.

언어 :

본족의 언어와 문자를 갖고 있다. 위구르어는 알타이어계 돌궐어족에 속하며 문자는 아랍자모를 기초로 하고 있다.



카자크족(哈薩克族) 할아버지와 손자.

카자크족 [哈薩克族 ; Kazak]

인구 및 분포 :

카자크족은 인구 1,111,718명 중 99%가 신강 위구르 자치구 이리(伊犁) 카자크 자치주 목루(木壘) 카자크 자치현과 파리곤(巴里坤) 카자크 자치현에 거주하며, 소수는 감숙성 아극새(阿克賽) 카자크족 자치현과 청해성 해서(海西) 몽고족·짱족·카자크족 자치주에 거주하고 있다.

언어 :

카자크어는 알타이어계 돌궐어족에 속한다. 카자크족의 분포 지역은 매우 넓으나 언어의 차별은 크지 않다. 각 국가의 카

카르크족은 어휘상에 있어 비록 차이는 있지만 통용이 가능하다.

카자크족의 문자는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쳤다. 역사상 그들은 악이혼-엽니색문(鄂爾渾葉尼塞文), 회골문(回鶻文)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이슬람교가 들어온 이후부터 아랍자모를 빌어 카자크어를 병음표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59년 그들을 위해 라틴 알파벳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문자를 설계했으나 사용되지 않았다. 결국 1982년에 정부는 아랍자모를 기초로 하는 옛문자를 사용하고 신문자는 음표로 삼아서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씨버족 [錫伯族 ; Xibe]

인구 및 분포 :

인구 172,847명 중 5만여 명은 요녕의 심양(瀋陽), 개원(開原), 의현(義縣), 북진(北鎭), 신민(新民), 봉성(鳳城) 등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3만여 명은 신강위구르 자치구 내의 찰포사이 씨버족 자치현(察布查爾錫伯族自治縣) 그리고 광성(霍城), 공유(鞏留) 두 현에 거주한다. 그 외에는 길림성의 부여(扶餘), 흑룡강성의 쌍성(雙城), 내몽고 동부, 북경과 전국 각 도시에 흩어져 있다.

언어 :

씨버어는 알타이어계에 속하며

통구스어족 만어갈래로 만어와 유사하다.

씨버문은 기본적으로 만문의 전례를 따른 문자다. 1947년 몇몇 병음부호를 없애버림으로써 현재 씨버족 자치현에서 통용되는 문자가 되었다.

키르기즈족

[柯爾克孜族 ; Kirgiz]

인구 및 분포 :

인구 141,549명의 키르기즈족은 거의 대부분이 신강 서남부 극자족 소가이 키르기즈족 자치주(克孜勒蘇柯爾柯爾克孜族自治州)에, 그 나머지는 이리(伊犁), 탑성(塔城) 등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 밖에 흑룡강성 부유현(富維縣) 내에도 수백명의 키르기즈족이 있다.

언어 :

키르기즈어는 알타이어계 돌궐어족 동흥어갈래에 속하며 대부분 기본 단어 어원은 기타 돌궐어족과 같다. 그래서 언어가 비록 구별되어 있어도 기본적으로 통할 수 있다.

古키르기즈 문자는 아랍자모를 한어병음표기를 썼지만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1949년 이후 라틴 문자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키르기즈 문자를 만들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위구르문(維吾爾文)과 카자크문(哈薩克文)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타지크족 [塔吉克族 ; Tajik]

인구 및 분포 :

인구 33,538명의 타지크족은 주로 신강위구르 자치구 서남부의 탑십고이우(塔什庫爾于) 타지크 자치현에 거주하며 그 나머지는 남강의 사차(莎車), 택보(澤普), 엽성(葉城), 피산(皮山) 등지에 분산되어 있다.

언어 :

타지크어(塔吉克語)는 인도, 유럽어계 이란어족 동부이란어갈래에 속하며 위구르어와 일부 한어의 어휘를 많이 흡수했다.

위구르족과 왕래가 밀접하여 약 60%의 주민은 위구르어에도 능통하다.

본족 문자가 없으므로 위구르문을 사용한다.

우즈베크족

[烏孜別克族 ; Uzbek]

인구 및 분포 :

인구 14,502명의 우즈베크족은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이닝(伊寧), 탑성(塔城) 우루무치(烏魯木齊), 사차(莎車), 엽성(葉城) 등에 분포, 거주한다.

언어 :

우즈베크어는 알타이어계 돌궐어족에 속하며 위구르어, 타타르어(塔塔爾語)와 아주 유사하므로 서로 통할 수 있다. 우즈베크문은 일종의 아랍문자를

기초로 하는 병음문자로 위구르문자와 서로 흡사하다.

백러시아족

[俄羅斯族 ; Russian]

인구 및 분포 :

인구 13,504명의 백러시아족은 신장 이리(伊犁), 탑성(塔城), 우루무치 등지에 흩어져 있으며 그 중에 이리인(伊犁人)이 비교적 많고 그 나머지는 내몽고 자치구와 흑룡강성 내에 분포되어 있고 북경, 상해 등의 도시에도 흩어져 살고 있다.

언어 :

백러시아어는 인도, 유럽어 계열, 슬라브 어족에 속하며 아문(俄文)을 사용한다.

타타르족 [塔塔爾族 ; Tatar]

인구 및 분포 :

인구 4,873명의 타타르족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에 흩어져 있으며 이닝, 탑성, 우루무치 등의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 외 기태(奇台), 길림살이(吉林薩爾)와 아룩태(阿勒泰) 등 현의 농목축 지역에도 소수가 살고 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중소 도시에 많이 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티베트족 [藏族 ; Tibetan]

인구 및 분포 :

인구 4,593,330명의 티베트족은 주로 서장 자치구와 사천·청



티베트족 청년들

해·감숙·운남 등 성의 일부 지역에 거주한다.

언어 :

티베트족은 통일된 문자를 갖고 있다. 장문(藏文)은 서기 7세기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는데 4개 모음과 30개 자음, 자모로 이루어진 병음문자이며 좌에서 우로 글을 쓴다.

자체는 머리가 있는 자(楷體)와 머리가 없는 자(草體)의 두 종류로 나누어 진다.

장어는 위장(衛藏), 강(康), 안다(安多)의 3종류 방언으로 구분된다.

먼빠족 [門巴族 ; Menpa]

인구 및 분포 :

인구 7,475명의 먼빠족의 주요 거주지로 서장 자치구 동남부의 문우(門隅) 지역이며, 소수는 서장 자치구 임지전구(林芝專區)의 목탈현(墨脫縣)과 미림현(米林縣) 및 산남전구(山南專區)의 착나현(錯那縣)에 살고 있다.

언어 :

먼빠어는 한(漢), 장어(藏語) 계열 장면어족(藏緬語族) 장어 갈래에 속하며 본족의 문자가 없어 장문을 통용하고 있고 장어를 아는 사람도 적지 않다.

뤄빠족 [珞巴族 ; Lhoba]

인구 및 분포 :

인구 2,312명의 뤼빠족의 주요 분포지는 서장 동남부의 낙유(洛渝)지역이며, 미림(米林), 목탈(墨脫), 찰우(察隅) 낭현(朗縣), 융자(隆子) 등 변경현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언어 :

뤄빠어(珞巴語)는 한, 장어계 장면어족(藏緬語族)에 속하며 본족의 문자가 없어 기본적으로 장문을 사용한다.

(「誰來關心我?」 중에서)

번역:이성철(중국어문선교회 회원)

(다음호에 계속)

廣州站

시대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광주역(廣州站)

關 夕 芝

持票旅客
候车区

Marlboro

광주역에 가까이 가기도 전 멀리서부터 악취가 코를 찌른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는지...

나는 갑자기, 어느 잡지에선가 세계에서 가장 지저분한 역을 선정하는 독자 여론조사 결과를 읽었던 일이 생각났다. 조사결과 뉴욕의 지하철이 1위로 선정되었지만 만약 오늘 다시 한 번 선정을 한다면 분명 광주역이 1위를 차지할 것 같다.

광장 근처에 가보니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 있어 역전 입구로 들어가는 통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그냥 맨땅 여기저기 누워 있는데 심지어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웅기쭉기 모여 있는 것도 보인다. 그들은 몇 명씩 모여 얽은 비닐로 이불을 만들어 맨바닥에서 그냥 잠을 잔다.

그들 옆에는 시커먼 물이 고여 있고 반찬 찌꺼기들이 썩 냄새를 발산하며 무더기로 쌓여 있다. 그러나 이 나그네들은 무표정한 모습으로 그런 주위 환경에도 아랑곳없이 남에게 다리를 밟혀도 움직이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홍콩을 왕래하는 직행 터미널의 양쪽 출구에도 코를 찌르는 오줌흔적과 한 무더기의 대변이 쌓여 있다. 알고 보니 역내에 있는 유일한 화장실이 요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많은 외지 노동자들이 요금을 안 내려고 그냥 대낮에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본다는 것이다.

나는 그제야 그 지긋지긋한 악취가 오물, 반찬 찌꺼기와 한동안 몸을 씻지 않은 외지 노동자들의 땀 냄새가 모두 합쳐진 냄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얼마 전에 일거리를 찾으러 북부지방에서 남쪽의 광동으로 내

려온 사람들이다.

나는, 한쪽에서 얼굴을 가리고 작은 소리로 울고 있는 한 작은 여자아이를 달래고 있는 몇 명의 소녀들을 보았다. 나는 그 아이들과 얘기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 그들은 사천성의 무계현(巫溪縣)에서 며칠 동안 배를 타고 무한(武漢)까지 와서 다시 기차를 타고 광주에 온 아이들이었는데, 오기 전 이미 재작년에 광둥 동완(東莞)에서 일하고 있는 고향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마중나와 달라고 부탁을 했단다. 그런데 광주에 도착한 뒤 고향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친구의 완구공장은 이미 공원모집이 끝나 새로운 사람은 받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대로 그냥 고향으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역전 광장을 헤매고 다녔다고 했다.

울고 있는 이 여자아이는 방금 소매치기를 당해 겨우 남겨 가지고 있던 20여 원(약 3달러)과 갈아입을 옷 한 벌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그 애들에게 여기 온 지 며칠이나 됐냐고 물었더니 5일 되었다고 한다.

밤에는 어디서 잠을 자느냐는 물음에 그들 중 좀 어른스러워 보이는 한 아이가 대답하기를, "역전 로비에서 잘 때도 있고, 고가도로 아래서 자리를 펴서 번갈아 잘 때도 있어요. 비가 오면 날이면 몹시 고달프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비가 내리면 온몸이 다 비에 젖어요."

언제 사천에 돌아갈거냐고 물으니 한참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그 중 한 명이 말했다. "어렵게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 모두 한 번 더 운수를 시험해 보고 싶어요. 다른 고향 친구에게도 부탁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게다가 집에

광장 근처에 가보니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 있어
역전 입구로
들어가는 통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거의 매일 이 모양입니다. 무질서한 것은 일요일이면 더 심해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승객은 많은데 관리하는 사람이 매우 부족합니다.”

돌아갈 차비도 없어요”

역전 앞 광장에 깔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처지도 이 소녀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듯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혐오감은 사라지고 갑자기 한 가닥의 동정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 오른다.

역 중앙의 홀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짐 보따리들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마침 심천(深圳)행과 상해(上海)행 열차의 승차시간이라, 역내에 불과 두 곳밖에 없는 작은 개찰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어떤 아줌마가 사람들에게 떠밀려 짐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그것을 주우려고 몸을 구부리다가 그만 인파에 밀려서 넘어졌다. 다행히도 어떤 재빠른 청년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올리는 바람에 밟혀 죽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플랫폼에는 또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호남성(湖南省)의 회화(懷化)에서 오는 열차가 막 들어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무더기로 열차에서 뛰어 내려 직접 옆에 있는 플랫폼에 대기한 열차 창문으로 마구 기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서 있던 공안원들이 큰 소리를 치며 저지했지만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플랫폼 위는 시끌벅적하고 연기가 자욱하여 마치 머리 없는 파리떼들이 뿔뿔 날아다니는 것만 같았다.

창문으로 넘어온 사람들에게 자리를 빼앗기자 원래 그 열차의 승차권을 갖고 있던 승객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야단법석이었으나 그 사람들을 쫓아낼 방법이 없었다.

광주, 심천, 홍콩 세 지역을 자주 왕래하는 한 승객이 내게 귀뜸하기를, “거의 매일 이 모양입니다. 무질서한

것은 일요일이면 더 심해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승객은 많은데 관리하는 사람이 매우 부족합니다.”

관리원은 확실히 부족하다. 광주 철도청 직원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큰 규모의 광주역에서 일하는 직원의 수가 천여 명밖에 안되고, 관리 방법 및 설비도 낙후하여 아직도 역무원이 개찰기를 들고 표를 찍는다. 그뿐만 아니라 역무원의 서비스질도 갈수록 점점 뒤떨어진다. 이전에 광주역의 서비스 태도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유명했으나 지금은 적지 않은 직원들이 적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데서 오는 불만이 사기에 영향을 미쳐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들어온 많은 수의 계약 노동자들이 있는데,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은 그들은 자주 승객들의 비위를 거슬리고 심지어는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한다. 나도 어떤 보안직원이 승객에게 주먹질 하고 발로 차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다.

위에서 언급된 부분은 그래도 좀 나은 상황이다. 혼란의 절정을 이루는 곳은 매표소가 있는 역 내의 로비이다.

로비 안에는 사람들이 뻘뻘하게 줄을 지어 서 있는데, 줄 선 사람들의 그 긴장감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92년 8월에 일어났던 “심천 증권 대소동(股災)”과 가히 비교될 만하다.

내가 역내 로비에서 10분 간 서 있는 동안 두 사람이 소매치기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 중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광경을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이 표를 산 후 한 손에 돈을 쥐고 고개를 숙여 표를 보고 있는데, 매표구 옆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손에서 돈을 빼 갔다. 그 소매치기가 얼

마나 태연했던지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서로 친구인 줄로 착각할 정도였다.

나중에 표를 샀던 이가 돈이 없어졌다며 소리를 쳤다. 그 도둑이 줄행랑을 친 뒤에야 사람들은 그 사람이 파렴치한 소매치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개 소매치기는 범죄집단에 비하면 한낱 새 발의 피다.

내 친구가 며칠 전에 이곳에서 위조 열차표를 만든 범죄 집단을 적발해 내었다. 그들이 위조한 차표는 진짜 차표와 똑같고 표에 찍힌 인감도 거의 진품과 같아서 전문가들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들이 위조열차표를 대량으로 판매함으로써 본래 혼란하고 무질서한 광주역을 더욱더 혼란하게 만들었다.

광주역도 영광스러운 시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74년 완공될 당시 그 화려하고 웅장한 시설은 중국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열차역이었다. 일곱 개의 대기실을 갖춘 총면적은 3만 평방미

터, 매일의 유동 승객수는 1만 명으로 설계된 광주역의 당시 승객 유동양은 하루 평균 6천여 명이었고, 시설과 관리면에 있어서도 “수도십대건축(首都十大建築)”이라 불리는 북경역보다 더 현대적이어서 광주 시민들의 자랑거리이기도 하였다.

광주역의 한 간부의 말에 의하면, 74년 4월 광주역이 정식으로 개통된 후 승객 유동양은 매년 20%에서 30%의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현재에 이르러 장소와 크기는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매일 평균 6만에서 7만 명의 승객을 맞아들여야만 하는 형편이다. 절정을 이루는 구정연휴에는 매일 20만 이상의 승객을 맞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20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들 승객의 대부분이 북방의 각 성에서 온 외지 노동자로, 설날을 맞아 고향 가는 사람들이다.

이 많은 귀향객을 수송하기 위해 광주역은 모든 화물기차를 정지시키고

이들이 위조열차표를 대량으로 판매함으로써 본래 혼란하고 무질서한 광주역을 더욱더 혼란하게 만들었다.



오갈 데 없는 이들의 무표정한 눈동자,
희망없는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 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꾼들은 어디에 ...



광주역 앞의 인파. 춘절 기간에는 보통 때보다 20여배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혼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사람이 가장 많을 때는 콩나물 시루같은 객실마다 복도, 의자 밑, 짐 놓는 곳, 심지어는 그 좁은 의자의 등받이까지 사람들로 꽉 차서 소름이 끼칠 정도라는 것이다.

객차를 증차시켰다. 이렇게 해도 사람이 가장 많을 때는 콩나물 시루같은 객실마다 복도, 의자 밑, 짐 놓는 곳, 심지어는 그 좁은 의자의 등받이까지 사람들로 꽉 차서 소름이 끼칠 정도라는 것이다.

내가 그 간부에게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무슨 장기적인 개발계획이라도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는 광주지도를 펼치면서 대답하였다.

“광주역의 제일 곤란한 점은 모퉁이에 위치해 있다는 그것입니다. 이 때문에 더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도층에서 몇 가지 해결방안을 연구했습니다.”

해결방안 중 하나는, 현재의 대합실 빌딩에다 건물을 개축하여 원래의 4층 건물을 8층 건물로 넓혀 대합실의 용량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침은 광주시 정부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 대합실의 크기를 확대한다 해도 도로와 대중교통이 따라오지 못하면 더 혼

잡해 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안은 승객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광주역은 북상(北上)행만 책임지고, 동광주역(廣州東站)은 광구(廣九;광주-구룡)·광심(廣深;광주-심천)선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비록 결정된 안건은 아니지만 이미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머지않아 동광주역이 증축될 예정이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담강(湛江), 무명(茂名), 광서(廣西) 등 서선(西線) 여객을 책임지는 새로운 역을 하나 신축할 것을 건의했는데, 이 방안은 의사 일정상에서 언급되지는 않은 것 같다.

역의 문을 나서니 동쪽 꽃밭의 꽃들이 사람들에게 밟혀서 다 시들어 버린 것이 눈에 띄었는데, 흙만 남은 꽃밭 옆에서 몇 명의 경찰이 소리를 치고 있었다.

인파를 물리치고 앞으로 나가서 보니 화단 안에 웬 50~60세쯤 된 남자인 명이 벌거벗다시피 거의 다 헤진 속옷만 입은 채, 입을 크게 벌리고 눈

은 크게 뜨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 -남쪽으로 내려와 “도금(淘金)”(원래는 노다지 캐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큰돈을 벌다라는 뜻) 하려는 외지 노동자들 중에 노인들도 많다. - 그 장소에서 일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은 이 사람이 벌써 이틀 동안 거기 누워서 꼼짝도 안하길래 자는 줄만 알았다고 말하였다. 주위 사람들의 피곤에 지친 무감각한 얼굴을 바라보는 내 심정도 점점 무거워졌다.

예전에 사람들은 곧잘, 광주를 중국의 남대문이라고 했었다. 만약 그렇다면 광주역은 필시 이 남대문(南大門)을 출입하는 관문이 아닌가? 이 관문(열쇠구멍)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모든 광경들이 사람들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시사하는 바 중의 하나는, 계획경제로 중국 대륙에 경제 붐을 일으켰던 중국대륙이 지금에 와서는 전반적인 계획이 결핍된 상태라는 것이다.

개혁개방 10년 동안 각종 산업은 모두 나름대로 발전을 했지만 교통 건설의 진행은 거북이 걸음이다. 얼마 정도 겨우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경제 발전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니 이것이 모든 경제의 발걸음을 늦추게 만드는 주원인이 아닐까?

개혁개방이 가져온 폐단 중 하나는, 무슨 일을 막론하고 돈만 잘 번다 하면 모두 몰려들어 국가의 기본 건설을 소홀히 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개혁개방은 실로 위험천만이다.

두 번째 시사하는 바는, 광주역이 반영하고 있는 이 같은 문제들이 교통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개혁 개방을 통해 일부의 사람들이 먼저 부유하게 된 것이 좋은 일인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들도 부유한 길로 들어서도록 도와줄 방도는 없는 것일까?

고향을 떠나 “노다지를 캐러” 도시로 오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고향에 남아 있는 더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그냥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중국 남대문의 관문」 광주역(廣州站)...

광주역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허리가 휘 채 신음하고 있다.

(「亞洲週刊」 '94년 2월 13일 중에서)
번역:차이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간사)



막 시골에서 올라온 외지인. 개혁개방이 가져다 준 부작용은 무슨 일든지 돈을 번다 하면 너나 할 것없이 몰려 든다는 것이다.

개혁 개방을 통해 일부의 사람들이 먼저 부유하게 된 것이 좋은 일인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국 북경의 주요 대학

박명수

북경대학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학부와 전공의 수가 가장 많으며, 교수진의 자질이 가장 우수한 명실공히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 및 과학연구의 중심지이다.

북경대학 (北京大學)
Beijing University

1. 학교 소개

북경대학은 국가교육위원회 관할하의 중국 주요대학 중 하나이다. 9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경대학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학부와 전공의 수가 가장 많으며, 교수진의 자질이 가장 우수한 명실공히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 및 과학연구의 중심지이다.

중국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북경대학의 역사는 1898년에 설립된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혼란한 청나라 말기에 일어난 무술변법을 계기로 1862년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신식학교로 설립된 경사동문관(京師同文館)은 경사대학당 설립의 기초가 되었다.

즉, 강유위(康有爲), 양계초(梁啓超) 등 유명한 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청나라 황제 광서는 1898년 선포한 “명정국시소(明定國是詔)”를 통해 “경사대학당은 각 주의 모범이며, 우선한다.”고 하여 중국 최고 권위의 학교로 공인함으로써 각 성에 설치되어 있는 학당들을 관리·감독하도록 하였다.

또한 양계초는 경사대학당의 장정(章程)을 통해 “중국의 학문은 주체이고, 서양의 학문은 실용이다. 따라서 중국의 학문과 서양의 학문은 함께 쓰고 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경사대학당은 당시 중국 최고의 대학이면서 최고의 교육행정기관으로 인정되었다.

청나라 왕조의 몰락을 가져온 신해혁명(1912)이 일어난 뒤 경사대학당은 지금의 북경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이며 교육자인 엄복(嚴復)이 이 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1916년에는 유명한 교육가이며 민주주의의 혁명가로 알려진 채원배(蔡元培)가 교장으로 부임하였으며, 중국공산당의 창시자로 유명한 이대침(李大針), 진독수(陳獨秀), 모택동(毛澤東) 그리고 중국 신문화 운동의 기수이며 문학가, 사상가로 유명한 노신(魯迅) 등 많은 유명한 인사들이 북경대학의 교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대학은 5.4운동(중국 현대사의 전환점)을 시작했다는 명성을 갖고 있으며, 1947년 중국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대학 축에선 5월 4일을 개교기념일로 삼고 있다.

1984년에 대학원의 설립 이후 대학원의 비중을 확대시키면서 현재 대학원생의 수가 전체 학생수의 1/3에 달할 정도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즉,

**오늘날의
북경대학은
과학과 인문학
중심의 대학에서
과학, 기술,
인문학,
사회과학,
경영과
교육과학의
포괄적이고
각 전문분야와
유기적인
협력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 문리과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초 과학센터로부터 자연과학, 기술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관리과학과 교육과학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과학연구기관으로써 명실공히 중국의 교학과 과학연구의 중심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이 대학에는 총 81개 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대학원 건물, 성인교육부 건물을 비롯하여 27개 연구소와 12개 타분야 협력 연구센터를 부설하고 있다. 특히 이 대학에 설치된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요 노벨상 수상자인 이정대(李正臺) 교수가 소장직을 맡고 있는 북경 현대물리연구소와 과학문명연구를 위한 국제센터가 있다.

오늘날의 북경대학은 과학과 인문학 중심의 대학에서 과학, 기술, 인문학, 사회과학, 경영과 교육과학의 포괄적이고 각 전문분야와 유기적인 협력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2. 개설학과

가. 학부(Department)

- Dept. of Mathematics
- Dept. of Probability and Statistics
- Dept. of Mechanics
-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Technology
- Dept. of Physics
- Dept. of Radio Electronics
- Dept. of Geophysics
- Dept. of Technological Physics
- Dept. of Chemistry
- Dept. of Biology
- Dept. of Psychology
- Dept. of Geology
- Dept. of Geography
- Dep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Dept. of History
- Dept. of Archaeology



북경대학(北京大學)의 도서관 전경.

Dept. of Philosophy
 Dept. of Economics
 Dept. of International
 Economics
 Dept. of Economic
 Management
 Dept. of International Politics
 Dept. of Law
 Dept. of Library Science
 Dept. of Sociology
 Dept. of Eastern Languages and
 Literatures
 Dept. of Western Languages and
 Literatures
 Dept. of English Languages
 and Literatures
 Dept. of Rus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International Politics
 Economic Management
 Law
 Library Science
 Sociology
 Eastern Languages and Literatures
 Western Languages and
 Literatures
 English Languages and Literatures
 Rus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나. 석사과정 (Postgraduate Programs)

Mathematics
 Probability and Statistics
 Mechanics
 Computer Science and Technology
 Physics
 Geophysics
 Technological Physics
 Radio Electronics
 Chemistry
 Biology
 Psychology
 Geology
 Geography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Archaeology
 Philosophy
 Economics
 International Economics

다. 박사과정(Doctoral Programs)

Chinese Philosophy
 Modern Foreign Philosophy
 History of Marxist Philosophy
 Logics
 History Foreign Economic
 History of Foreign Economic
 Thought
 History Chinese Economics
 History of Chinese Economic
 Thought
 Political Economy
 National Economy Planning and
 Management
 Jurisprudence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ternational Law
 History of Legal Thought
 Constitution
 Modern Chinese Literature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Linguistics
 Classical Texts
 Modern Chinese
 History of Chinese Languag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Indian Language and Literature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비로소
지금의 북경으로
이전하여
중국인민대학으로
개편되었다.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rchaeology
Ancient Chinese History
Modern History of the World
Political Science
International Politics
History of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Sociology
Physiological Psychology
Mathematics
Computational Mathematics
Applied Mathematics
Probability and Statistics
Theoretical Physics
Nuclear Physics
Electron and Iron Physics
Spectroscopy and Quantum
Electronics
Inorganic Chemistry
Analytical Chemistry
Physic-Chemistry
Organic Chemistry
Chemistry of High Polymers
Isotope Chemistry
Environmental Chemistry
Paleontology and Stratigraphy
Structural Geology
Petrology
Natural Geography
Historical Geography
Economic Geography
Astridnamic
Atmospheric Physics
Space Physics
Biology
Plant-Biology
Biophysics

Zoology
Entomology
Physiology
Biochemistry
Cell-Biology
Solid Mechanics
Fluid Mechanics
General Mechanics
Computer Softwares
Theory of Computers
Computer Application

3. 학교 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北京市 海澱區 海澱路
5號(北京大學 外國學者留學生處)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

Zhongguo renmin university

1. 학교 소개

36개 국가 중점대학 가운데 사회과학종합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이 학교는 항일전쟁중이던 1937년 연안에 설립되었던 함복공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연안지역이 항일전쟁의 중심지가 되면서 연안예술학원, 연안공인학교, 안오보청년훈련반 등 3개 학교를 통합하여 화북연합대학을 구성, 학생수가 1,700여명에 달하는 종합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비로소 지금의 북경으로 이전하여 중국인민대학으로 개편 당시 8개 계열에 12개의 전공학과를 개설하였던 이 학교는 현재 12개소의 연구소, 258만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과 중국 최초로 설립된 대학출판사 등을 부설하고 있다. 사회과학부문 17개 계열에 41개의 전공학과를 가진 중국 최대의 사회과학종합대학으로 특성화되



중국인민대학 (中國人民大學).

었다.

교수 150명을 비롯하여 1,618명의 교수
진과 학부 4,500여 명, 대학원 1,400여 명
포함, 주야간 18,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하고 있다.

2. 개설학과

Departments

- Dept. of Philosophy
- Dept. of History of Communist Party
of China
- Dept. of International Politics
- Dept. of Economics

College of Economic Planning and Statistics

- Dept. of Economic Planning
- Dept. of Statistics

* * *

- Dept. of Industrial Economics
-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 Dept. of Commercial Economics

College of Labour and Personnel Administration

- Labour Economics
- Personnel Management
- Social Management

* * *

- Dept. of Finance
- Dept. of Economic Information
Management
- Dept. of Law
- Dept. of Journalism
- Dept. of Population Studies
- Dep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Dept. of History

College of Archives

- Management of Historical Archives
- Management of Scientific and
Technical Archives
- Techniques of Archive Conservation

3. 학교 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北京市 西北郊 海澱區
海澱路 39號

칭화대학(淸華大學)

Qinghua University

1. 학교 소개

칭화대학의 역사는, 1900년에 일어난 의화단(義和團) 사건의 결과로 야기된 서구 열강에 대한 배상금의 명목으로 중국정부가 미국에 조차하였던 지역에 설립했던 칭화학당(淸華學堂)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11년에 일어난 신해혁명(辛亥革命) 이후, 이 학교는 고급반과 초급반의 2단

1952년 시행된 정부의 학원, 학부의 조정에 따라 청화대학은 공과 위주의 대학으로 전문화되었다.

계 과정인 4년제의 미국유학 예비학교로 개편되었고, 1925년에 이르러 비로소 4년제의 대학으로 승격되었다.

이 학교는 1928년에 문과대, 이과대, 법과대 등 3개 단과 대학에 15개 학과를 개설한 국립청화대학으로 재 개편되었으며, 1931년에 공과대학이 추가됨으로써 종합대학으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37년 항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곤명(昆明)으로 이전해 북경대학(北京大學), 남개대학(南開大學)과 함께 임시대학인 남서연합대학(南西聯合大學)으로 개편되어 교육활동을 계속하였다.

항일전쟁의 종료 후인 1946년에 이르러 북경으로 되돌아온 이 학교는 문과·법과·이과·공과·농과 등 5개 단과대학에 26개 학과를 개설한 중국 최대의 대학으로 발전하였다.

1952년 시행된 정부의 학원, 학부의 조정에 따라 청화대학은 공과 위주의 대학으로 전문화되었다. 이에 따라 이 학교의 문과와 이과대의 대부분의 학과는 북경대학에 합병되었고, 농과대는 북경농과대학으로 개편되었다.

그의 다른 단과대학과 학과들은 새로이 설립된 다른 고등교육기관의 유사학과에 통합되거나 독립교육기관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1956년 이후 중국 최고의 공과대학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 학교는 현재 핵 에너지 기술, 방사성 전기학, 컴퓨터와 자동조절, 정밀기계 등 첨단과학기술 관련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컴퓨터 센터, 강도와 진도센터, 핵에너지 연구소, micro-electric 연구소 등 모두 140여 개의 실험실을 부설하고 있다.

2. 개설학과 Departments

Dept. of Architecture
Dept. of Civil Engineering
Dep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Dept. of Hydraulic Engineering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Dept. of Precision Instrymnts and Mechanology
Dept. of Thermal Engineering
Dept. of Automobile Engineering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Dept. of Radio Electronics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Dept. of Automation
Dept. of Engineering Physics
Dept. of Engineering Mechanics
Dept. of Chemical Engineering

Scool of Science

Dept. of Applied Mathematics
Dept. of Modern Applied Physics
Dept. of Chemistry
Dept. of B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School of Economic Management

Dept. of Economics
Dept. of Management Engineering
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Dept. of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Dept. of Social Sciences
Dep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Editing
Dept. of Foreign Language

3. 학교 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北京市 海澱區 清華園
1號(清華大學 外國留學生工作辦公室)

북경중의학원(北京中醫學院)

**Beijing Colle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 학교 소개

전통적인 중의학의학을 교육하는 고등교육 기관으로는 중국 최초로 설립된 북경중의학원은 1956년에 설립되었다. 1956년 7월, 국립대학 입학 시험을 치른 신청자들 가운데 처음 120명의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1960년에 중국 전통 약학과를 설치하고 같은 해 40명의 학생을 받았고, 계속해서 내과학 규범, 열병, 전염성 열병과 처방 등 35개 전공 또는 교습 부분이 증설되면서 크게 확대되었다.

1982년에 3개 학과(침술, 찜질과 안마, 전통 중의학의학의 간호와 전통 중국 의학의 관리)와 6개의 연구소를 설립한 이 학교는 총 건평 50,000m²의 캠퍼스에 454명의 교수진, 현 등록 학생수가 3,214명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2개의 부속병원, 실험조제 공장, 국제 훈련센터 등을 부설하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중의학 자격시험인 국가중의약고시(國家中醫藥考試)와 국제침구고시(國際針灸考試)를 주관하는 등 중국 최고의 중의학 전문 교육기관이라고 하겠다.

2. 개설학과

Departments

Dept.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Dept. of Chinese Pharmacy

Dept. of Acupuncture, Massage and
Moxibustion

Dept. of Advanced Studies of
Nursing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Dept. of Administ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3. 학교 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北京市 朝陽區 北三環東
路 11號(北京中醫學院 國際培訓部)

북경외국어학원(北京外國語學院)

1. 학교 소개

중국 국가교육위원회 직속의 국가중점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이 학교의 역사는 1941년 설립된 중국인민항일군정대학의 제3분교로부터 시작되었다.

1944년 연안외국어학교로 개편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9년 북방대학과 화북대학의 외국어학과를 합병하여 북경외국어학교로 신설되었다.

또한 1959년에는 러시아어 교육을 위해 1949년 북경에 설립했던 북경 러시아어 특별학교를 흡수 합병함으로써 중국 최대의 외국어 전문교육학교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30여 외국어 관련 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등 많은 외국어 전문가를 배출해 온 어학 전문 연구기관이다.

교수 47명을 포함하여 700여 명의 교수진과 학부 1,700여 명을 포함한 3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2. 개설학과

Departments

Dept. of English

Dept. of Russian

Dept. of Japanese

Dept. of Arabic

Dept. of French



특히 이 학교는 정상적인 중국유학을 위한 예비학교로써 대학교육을 위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Dept. of German
 Dept. of Spanish
 Dept. of Eastern European Languages
 Dept. of Asian-African Language
 Dept. of English(II)
 Dept. of Chinese

학교현판을 내림으로써 학교활동이 정상화되었다.

매년 이 학교에는 약 100여개 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천명과 중국 각지에서 온 1천여 명의 학생 등 약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정상적인 중국유학을 위한 예비학교로써 대학교육을 위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중국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대학입학허가 유무를 떠나 먼저 이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교수, 부교수 200여 명 포함 600여 명의 교수진과, 외국인 유학생 1천여 명, 중국인 학생 1천여명 등 모두 2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3. 학교 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北京市 西三環北路 2號

북경어언학원(北京語言學院)

1. 학교 소개

처음 중국에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중국어 교육을 위한 예비대학의 목적으로 1962년 설립된 이 학교는, 1964년 북경어언학원으로 개편되면서부터 외국에 파견되는 중국인들에 대한 외국어교육과 함께 중국어 교사양성을 위한 어학교육기관으로 확대되었다.

문화대혁명이 진행 중이던 1971년 한때 학교가 해체되는 수난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1972년 수상 주은래가 학교 회복에 동의하고 1974년 모택동 주석이 친필

2. 개설학과

Departments

Dept. of Foreign Students(I)

Dept. of Foreign Students(II)

Dept. of Foreign Students(III)

Dept. of Foreign Languages

Dep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특히 미술교육, 창작, 연구 등에서 중국 미술의 중심적인 연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3. 학교 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北京市 西北郊 海澱區 學院路

중앙미술학원(中央美術學院)
Central Institute of Fine Arts

1. 학교 소개

중국 최고의 미술대학으로 유명한 중앙 미술학원의 역사는 1918년에 설립된 북경예술전과학교(北京藝術專科學校)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38년에, 화북연합대학(華北聯合大學)의 미술학부와 연안지방에서 설립된 노신예술학원을 합병한 이 학교는 1950년에 이르러 지금의 중앙미술학원으로 교명을 개칭하였다.

특히 미술교육, 창작, 연구 등에서 중국 미술의 중심적인 연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학교는 1950년 이래 지금까지 3,500여 명의 예술 전문가를 양성해 왔

며 이 학교 출신 졸업생의 대부분이 중국 미술계의 지도적인 위치에 산재해 있는 등 중국 최고권위의 예술대학으로 인정 받고 있다.

현재, 이 학교에는 중국화, 유화, 판화 등 8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400여 명의 100여명의 재학생과 교직원이 재직 하고 있다.

2. 개설학과,
Departments

- Dept. of Traditional Chinese Painting
- Dept. of Oil Painting
- Dept. of Engraving
- Dept. of Sculpture
- Dept. of Folk Arts
- Dept. of History of Fine Arts

3. 학교 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北京市 東城區 校尉胡同 5號 (中央美術學院 留學生辦公室)



현재 졸업생의 대부분이 중국의 각종 음악단체 및 음악학교에서 중요한 지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 학교의 권위가 인정되고 있다.

중앙음악학원 (中央音樂學院)
Central Conservatory of Music

1. 학교 소개
오늘날 중국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중앙음악학원의 역사는, 1950년 남경 국립음악원을 중심으로 연경대학, 북경예술학교, 상해중화음악학원, 동북노신예술학원, 화북대학 문예학원 등에 개설되어 있던 음악 관련 학과 등을 통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처음 천진에서 학사활동을 시작한 이 학교는 당시 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 등 4개 학과에 불과하였으나, 1958년 학교를 지금의 북경으로 이전하면서 음악이론, 지휘, 전통악기, 민족음악 등 4개 부문을 추가하면서 모두 8개 학과에 10개의 전공을 개설한 대학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또한 1964년 북경예술학원의 음악학부를 분리, 통합하면서 중국음악학원(中國音樂學院)으로 교명이 변경되었고, 1967년부터 10년간 진행된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는 신입생 모집과 학사활동이 정지되는 시련을 겪어야 했다.

1977년 학사활동이 정상화 되면서 중앙음악학원으로 교명이 변경되면서 부터, 대학원, 교직원 기숙사, 유학생 전용 숙사 등을 부설하는 등 중국예술학교 중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육성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학부, 석사, 박사과정에 40개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이 학교에는 음악도서 13만여 권을 포함한 20여 만 권의 장서와 17만 장의 음반을 소장하고 있는 학교 도서관과 학생 각자가 활용할 수 있는 피아노 연습실이 무려 300여 실이 확보되어 있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음악대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각각 3년제인 부속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부설되어 있어서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어린이들을 상대로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개교 이래 40여년 동안 이 학교는 학부, 대학원 과정에서 외국유학생 포함 모두 4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왔으며, 현재 졸업생의 대부분이 중국의 각종 음악단체 및 음악학교에서 중요한 지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 학교의 권위가 인정되고 있다.

- 2. 개설학과**
Departments
Dept. of Composition
Dept. of Musicology
Dept. of Conducting
Dept. of National Instrumental Music
Dept. of Wind and String Instruments
Dept. of Piano
Dept. of Vocal Music and Opera

3. 학교 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北京市 西城區 鮑家街 43號 (中央音樂學院 外事處)

박명수/ 「해외유학가이드」 저자
계성문화관광 대표

* 중국유학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분은 위 자료를 제공한 박명수씨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el : 778-3773).

대만선교 그 걸림돌은 무엇인가?

이탁섭

선교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다.

2000년대를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세계선교의 사명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세계 55억의 인구 중 3분의 2가 아시아에 살고 있는데 이 아시아 지역 선교는 한국 교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시아 지역 중 한 곳인 대만의 선교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이 곧 올바른 선교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각종 문제점들

현재 대만에는 상당수의 대륙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주며 리드하고 있는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등 각 분야), 이들 중 상당수가 반기독교적인 잠재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역사적 자만성

어떠한 사상이나 종교도 중국 역사를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도 안된 기독교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② 문화적 자만성

장구한 역사로 누적된(유형, 무형) 문화적 풍성함을 자랑하며, 그 이상의 문화적 요소는 기대하지 않는 문화적 우월감을 갖고 있다.

③ 종교적 자만성

중국의 유교, 도교, 불교(불교의 유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까지도 자신들의 고유의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조상숭배, 위인 숭배 등 각종 우상들을 신격화함으로써 기독교의 진리의 필요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2 대부분의 대만인들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과 대등한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여기에도 지원 기관의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관리를 잘못하는 것은 지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여건들로 인해서 현지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3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내부부의 중국인들의 관념을 이해하고 지도해갈 수 있는 훈련이 부족하다.

4 전통문화에 대해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닌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이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성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예가 많은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형식적인 장례의식, 전통문화라는 명목의 각종 종교행사 등 무비판적인 태도로 군중심리에 이끌려 따르는 것이다. 심지어 정치 고관들도 이러한 의식에 참여하며 각종 절기 때마다 거리에서, 주택가에서 고성외 폭죽을 터뜨린다는지 집집마다 부적과 향

을 태워 공기를 오염시키는 일 등(이러한 일을 사업장이나 아파트 밀집지대에서도 하므로 참으로 곤혹스럽다)이 수시로 행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먼저 이해하고 여기에 비판이나 설득력 있는 대응 방침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어느 개인의 노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5 지역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과 상식의 결여다.

이 점은 현지의 선교사나 오래전부터 대만에서 선교하는 전문 선교회 및 몇몇 교단들도 대동소이한 실정이다. 사실 대만에는 여러 종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생활방식, 언어, 관습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선교적 차원에서 연구된 자료들이 현재 전무한 상태이므로 대만 각 종족에 대한 연구도 선교의 공동 과제라 할 수 있다.

6 한국교회의 선교적 이해의 부족과 각종 지원 등에서 야기되는 문제가 있다.

선교적 이해의 부족으로 야기된 문제는 선교를 하면서 단기간 내에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정책을 바꿔버리는 것이다. 지원문제는 재정지원, 행정지원, 자료제공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① 재정 지원

인재양성에 있어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 도중에 지원을 중단하여 마무리 못한 상태에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일이 빈번하다.

② 행정 지원

대만의 경우 한 곳 교단을 제외하고는 행정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다. 선교 방면에서 그룹 선교가 효율성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행정지원의 부재로 현지 선교사들은

제각기 사역을 하고 있다. 현지에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룹 선교는 계획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③ 자료 제공

선교는 가능한 한 모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동원하고 활용해야 하므로 다방면의 정보와 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각 교단 선교회나 각 전문 선교회의 정보와 자료의 부재로 인해서 현지의 선교사들까지도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 노력, 재정 등을 소모하므로 어려움이 많다.

7 건물 없는 교회의 예배처소의 대책.
건물 사용료, 공동 건물(APT, 상가) 관리비



대만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도교(道敎) 신당 앞에서 “拜拜” 하고 있는 대만 사람들. 한국교회가 대만의 영적 상황을 잘 이해하고 꾸준히 선교적 지원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회중심 선교사역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활동을 하려고 해도 재정적인 곤란으로 선교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대만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이해

대만선교를 피선교지로 대하는 데 주의해야 할 점은, 평지지역 교회의 경우 주변시설을 이용할 때 큰 문제점이 없지만, 산지지역 교회를 방문할 때는 방문 시설 이용, 현금 문제, 그곳의 교인과의 약속 등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1 대만의 교회들과 한국교회간에 연계가 모색된 후에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교류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명 반짝 교류, 일방적인 교류(불균형 교류), 선물에 대한 사전 상식 부재-예: 예의에 맞지 않는 선물을 받고 돌아서서 어이없다는 식으로 씩쓰레 웃거나 냉정한 표정으로 못마땅해 할 때가 종종 있다.-등의 문제가 있다.

2 지도자, 교역자의 상호 지속적 교류에서 비롯된 집회, 교회생활 지도, 신앙훈련(제자 훈련) 등은 대만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선교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교회와의 교역자 교류나 선교사들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는 교회들은 교회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일 찬양예배, 수요 기도예배, 금요 기도회, 아침 예배들을 실시하며 수시로 은혜집회를 가지는 변화들을 일부 대만 교회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와 관계가 없는 교회들은 현재도 종전과 같이 주일 예배 한 시간 정도를 신앙 생활의 전부로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지 선교사들에게 관계된 문제점

1 현재 대만에서 활동하는 외국 선교사는 약 1,200명(비공식 통계 수치지만 근거 있는 수치이다) 정도인데, 이들 선교사들이 선교사역 중에 남긴 여러 가지 결점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자유주의에 속한 선교사들로 인해서 기독교의 유일성과 진리의 보수성이 흐려져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순수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기복주의적 신앙상태로 흐르는 등 선교 사역에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2 선교사들의 현지 사역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앞서서도 잠시 거론하였듯이 선교의 능률성을 이루기 위하여 그룹 선교가 바람직하나, 파송 기관의 행정지도 부재하에서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실정이다.

3 결과 보고에만 치우친 선교를 하는 데 문제가 있다.

4 문화 충격의 수용능력이 부족하다.

5 본질적 선교 소명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6 지원 부족으로 인해 언어 훈련을 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상으로 대만선교의 문제점과 대만선교에 대해 한국 교회가 이해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그 동안 현지사역을 하면서 평소 느끼고 생각하며 기도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적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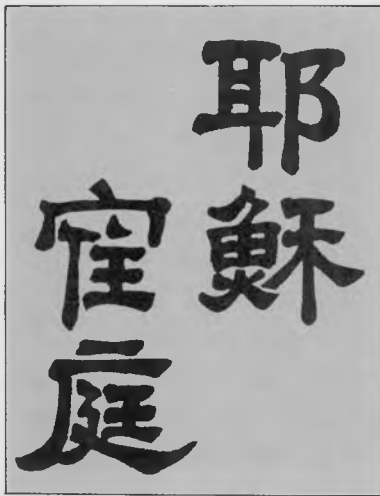
경전영 선생은 중화민국 시기의 중국 토착 교회의 하나인 <耶穌家庭>의 창시자이다.

민국이래 기독교 교회는 토착화 노선을 걷는 교회 단체가 많았는데, 가장 유명하기로는 속칭 '작은 무리'라 하는 <教會聚會所>, 참예수회(眞耶穌會), 예수가정(耶穌家庭) 등이 있었다. 예수가정은 이들 중 비교적 특수한 단체인데, 성경에 근거한 초대교회 형태를 일종의 가정 형태의 사회로 확장시켜 놓은 공동체였다.

경전영 선생은 먼저 그의 고향인 山東省 泰安, 馬莊 지방에 다 첫 예수가정을 세웠고, 그 후 계속해서 같은 성 내의 여러 지역에 크고 작은 예수가정을 세웠다. 이어 근처 지역으로 확대, 서북, 화북 지방 등에도 세워지면서 2, 30년 동안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국내외 교회 인사들의 주의를 끌었다. 경전영은 예수가정을 창설한 사람으로 잘 알려진, 교회 각계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였다.

중국 대륙의 체제가 바뀐 지 몇 년 되지 않아 경전영은 체포 구금되었고, 예수가정 또한 공산당의 명령으로 조직이 바뀌었다. 체포된 후의 그의 행방과 생사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해외 교회 인사와 신앙동역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사랑을 받았던 중국대륙교회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경전영은 淸 光緒 16년



敬奠瀛
(1890~1953?)
山東省 泰安縣

중국 토착 교회
<耶穌家庭>의
창시자.

(1890), 山東省 泰安縣 馬莊의 敬씨 집안에서 출생했다. 부친은 한의사이며 유가를 신봉했기에 기독교에 대해 늘 반감을 갖고 적대시 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 수준이 대단히 높은 것을 인정했으므로, 민국 원년(1912년) 경전영은 22세의 나이로 미국의 Methodist Episcopal Church가 태안에 설립한 萃英중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 학교는 현지에 세워진 학교 중 가장 우수한 학교였다.

萃英중학교에서 경전영은 최고 연장으로 반장을 맡아 전체 학우들을 이끌고 보살폈다.

이 학교는 교회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늘 기독교 교리를 경청할 기회가 주어졌다. 경전영은 부친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유교에 심취하여 도(道)에 대한 깨달음을 갈망하고 있었으므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도 단지 연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몇 년의 성경 연구 기간을 거친 후 그는 결국 공자에서 예수로 바꾸어 정식으로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 자신도 나중에 회고하기를 “수년 동안 자세히 살핀 결과, 기독교는 세상 것을 떨쳐 버린 후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참진리이며, 예수님이 진실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구주이심을 알게 되어 의심없이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하였다.

경전영이 정식으로 기독교인

이 된 지 얼마 후에 피할 수 없는 극한 시련을 당하게 되었다. 일찍이 부모의 뜻을 받들어 전족(纏足)을 한 중국 여성과 중매로 결혼했던 경전영은 후에 전족을 핑계삼아 신식과 구식은 서로 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아내를 처가로 돌려보냈던 것이다. 이 후 신앙이 성숙함에 따라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는 몇 번의 내적 갈등을 거친 뒤 결국에는 아내를 데려오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그녀가 사는 곳이 15리나 떨어져 있었기에 전족을 한 아내를 걸을 수도 없었고 또 타고 갈 차도 없었으므로 경전영은 그녀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부가 화목하게 되어 가정을 다시 이루게 되니 이는 진실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며 더욱 아름다운 것은 그가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해 주어 성실히 믿게 했다는 것이다. 그 때부터 두 사람이 손 잡고 천국 길을 달려갔는데,民国 29년(1940년) 그의 아내가 병사하기까지 두 사람은 20여 년의 세월을 함께 하였다. 그녀는 경전영이 항상 의지했던 반려자요 예수가정을 창설함에 있어 커다란 공헌을 한 인물이었다.

경전영이 예수가정을 창설한 과정은 꽤 긴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그리스도께 돌아온 후 신앙 안에

서 두 분의 여 선교사를 맞게 되었는데 즉 Nora Dillenbeck 양과 Lillian Breer 양의 인도를 받은 것이다. 이 두 여 선교사는 모두 성령 체험을 추구하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 - 성령 체험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성령충만, 방언, 영가찬양 등의 행위를 추구하는 것으로 당시 이런 기독교인들을 오순절파라고 불렀다. 일반 교회 신자와 목회자, 신학자들의 오순절파에 대한 태도는 일치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경멸하거나 심지어 적대시하였고, 또 어떤 이는 무관심 또는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성령 체험의 현상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당시 오순절파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경전영도 신앙적인 면에서 성령 체험을 강조하였고, 그 후 그가 창설한 예수가정 또한 성령 체험의 색깔이 대단히 짙은 교회였다. 성령 체험의 특색을 추구했기에 성령 체험과 예수가정의 설립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런 관계는 또 경전영 초기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경전영은 외부에 예수가정의 연혁을 소개할 때 말하기를,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이미 가난한 생활을 좋아했고, 사유재산의 소유를 정신 생활에 있어 최대의 감옥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믿은 후에 더욱 견고하여져, 신앙 안에



장승원 그림

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힘을 받게 되었다.

경전영과 그의 아내는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스스로 가난하게 전도생활을 했다. 그들 두 사람은 일생 동안 예수님의 평민화 정신을 본받고자 자신을 부인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 갔던 것이다. 이들의 자기 헌신의 태도는 나중에 예수가정을 세운 힘과 근원이 되었다.

민국 8년(1919년), 그는 사회의 각종 어두움과 인간 욕심의 횡행, 상호간의 불협조와 불화가 국가,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에 무형의 큰 손실을 입히는 것을 목도하고, 분연히 일어나 신도들을 모으고 성실을 경영 정신으로 하는 상점을 설립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밝히고자 하였다.

민국 10년(1921년) 음력 정월 초하루, 이 합작식 상점을 정식으로 고향 馬莊의 敬家杭에 세우고, <聖徒信用會社> 줄여서 <聖徒社>라고 이름붙이니, 이것이 곧 예수가정의 전신이다. <聖徒社>는 계속 발전하여 민국 원년 19년(1930년)에 마장의 서쪽 2, 3리 떨어진 좁은 24 에이커 반의 새 토지를 얻어 '베다니'라 명하였다. 이로써 예수가정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경전영 부부가 창설한 <聖徒社>가 창설된 지 육 년째, 필요를 느껴 馬莊夏家에 <잠사와 말씀의 집>을 세웠다.

그들은 친구에게 몇 채의 집을 빌리고, 부근 2 에이커의 땅을 세웠으며, 3 대의 낡은 직포기를 샀다. 그리고 십 여명의 남녀 신도들을 모아 남자는 농사를 짓고 여자는 베를 짜는 집단 생활을 시작하였다. 당시 경제적으로는 빈곤하였으나 그들의 믿음과 경전영의 격려, 가르침이 있었기에 정신적, 영적으로는 모두 풍성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 후 경전영은 성도사의 <잠사와 말씀의 집>이 이미 가정의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가정'이란 새로운 이름이 더욱 알맞다고 여겨 민국 16년(1927년)에 <耶穌家庭>으로 정식 개명하였다.

馬莊夏家에 최초로 세워진 예수가정은 세워진지 몇 년이 되지 않아, 끊임 없이 새로 들어오는 신도들로 인해 더 이상의 수용이 불가능해졌다.

민국 19년(1930년)에 예수가정은 마장 서북쪽 언덕의 새 토지로 옮겨 갔다. 이곳은 원래 경전영의 증조부가 백여 년 전에 별 뜻없이 사들인 면적 약 3 에이커 남짓의 땅으로 경씨 일가 4대 째 내려 온 것인데, 이제 경전영이 이를 예수가정의 본가로 삼은 것이다.

그 후 예수가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부근의 토지를 모두 사들여 24.5 에이커에 달하는 본가에 터를 이루었고, 예수가정의 구성원들은 이 집을 고향집이라고 불

렀다.

마장 북쪽 언덕에 예수가정의 본가가 생긴 이래, 경전영 부부와 황항신(董恒新), 진벽쇄(陳碧鎖), 좌홍순(左順興)등 몇몇 동역자들의 협력 아래 예수가정은 점점 견실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해 갔다.

마장의 예수가정 본가는 그 외관으로 말하자면 사실 전혀 새로운 마을이라 할 수 있다.

민국 19년(1930년), 경전영이 처음 신도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옮겨 왔을 때는 아직 미개발 상태였으므로, 이들은 경씨의 지도하에 먼저 허름한 초가 일곱채를 지어서 비바람을 피하고 저녁에 휴식할 용도로 사용했다.

곧 이어 신도들은 전 구역의 사방에 백양나무를 심어 외부와의 사이를 막아주는 담장으로 삼았다. 10여 년이 지나 백양나무들은 모두 자라서 그 높이가 14, 15척 가량이나 되었고 나뭇잎들이 뽁뽁하고 곧아 무척 장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것은 예상대로 병풍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었는데 예수가정 본가에 사는 신도들도 이러한 백양나무를 성스러운 울타리라고 칭했다.

다시 경전영은 모든 신도들을 통솔하여 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공동으로 짓기 시작했다. 예배당이 완성된 후에 계속하여 각 가정이 거주할 곳과 작업장을 지었는데 앞 뒤로 약 200여 채

에 달했다. 이로써 전체 본가의 '외관은 엄숙하면서도 그 특유의 고요함을 잃지 않은 모습이었다.

예수가정의 한 교회 인사의 회고를 들어보면, “성스러운 울타리 내의 한 채 한 채 집들을 보면 집 앞 돌기둥에는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고 높은 대 위엔 천막이 쳐 있었다. 양과 소는 서로 울어대고 멧돌 돌아가는 소리 달달거리고, 베 짜는 기계 소리 찰찰 찰찰 들리고 있었다.” 라고 하였다. 예수가정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이나 무릉도원, 인간 세상에 도래한 천국과 같은 풍경으로 사람들이 모두 꿈꾸는 그런 곳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들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전영을 비롯한 예수가정의 가장들의 지도하에 가정 구성원들이 손발을 맞추어 피땀을 흘린 결과 얻어진 것이었다.

마장 예수가정 본가의 신앙적인 내면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참으로 독특한 교회 공동체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경전영의 신앙의 영향을 깊이 받았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경씨의 성령체험의 신앙을 배경으로, 예수가정도 성령체험을 받고 방언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등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을 버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경전영의 신앙을 본받고 있는 것도 한 가지 특징이다.

“가정을 깨뜨려 세상으로 나가고, 가정에 참여하여 세상으로 들어온다”,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의식주를 타파하여 의식주를 온전히 이룬다”,

“마음을 다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등의 네 가지 생활 태도도 예수가정의 내면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수가정에 참가하려면 반드시 먼저 세상에서의 자신의 가정과 친척, 재산, 관계, 직위, 모든 개인 소유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하며, 철저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가정과 세상에서 벗어날 결단을 해야 했다.

가정과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코 불교의 승려와 같은 출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한 후에 예수가정 공동체에 들어와 노동생산, 성령체험, 형제 자매와의 상호협력력을 통해 힘써 수고함으로써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곧 가정과 세상에서 벗어난 후에 다시 가정과 세상에 참여한다는 뜻이었는데, 이는 예수가정에 참여할 때 필수적인 조건 중의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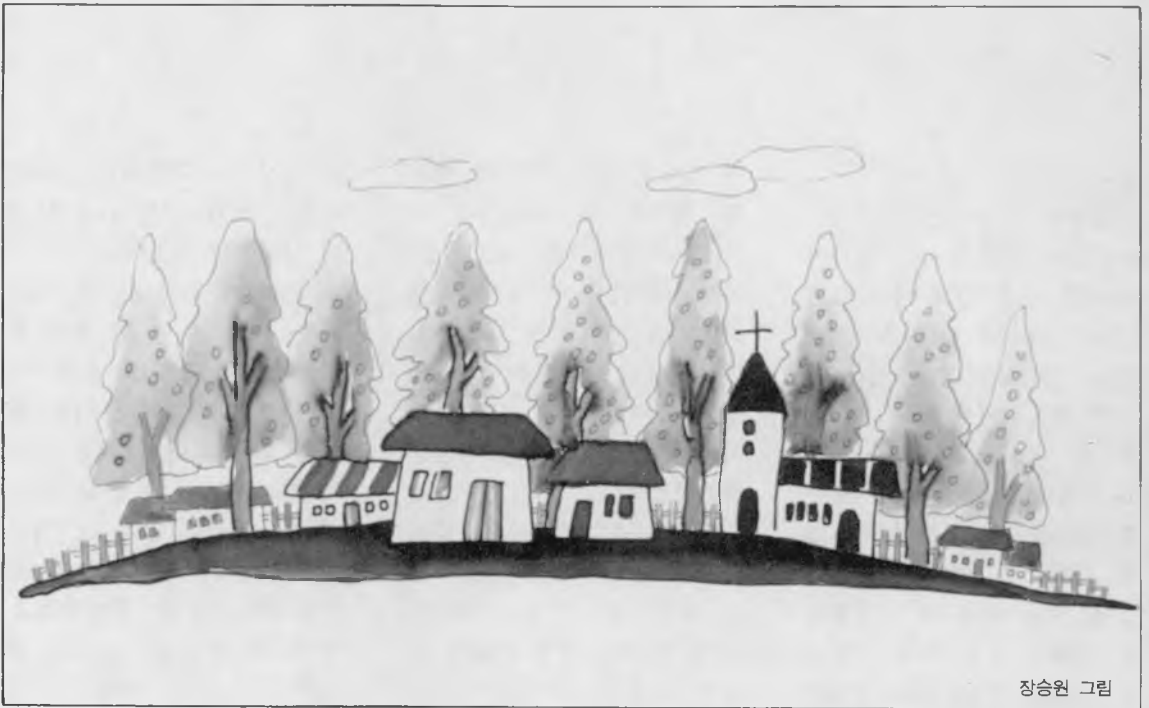
예수가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한 가지 다른 조건은, 반드시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집안의 주로 모시는 것이다. 그들은 일반 신도들이 길과 진리 두 부분으로써의 예수님은 중시하면서도 그분이 또한 참 생명이라는 부분을 소홀히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실히 깨닫고자 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의 의미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예수가정에 들어가려는 자들은 반드시 의식주를 초월하여 의식주를 완전히 해결하자는 참 뜻을 깨달아야 한다. 경전영은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세상사람들이 매일 걱정하는 것이 의식주의 문제임을 알았다. 만약 믿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한다면 개인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는 의식주를 초월할 것을 주장하여 대충 먹고, 대충 입고, 대충 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권장하였다.

이런 방식이 비록 의식주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의식주를 완전히 해결하게 되니 이로써 세상사람들에게 있어 늘 걱정거리였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가정의 구성원은 늘 마음을 다해 주



장승원 그림

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결단을 지낸다. 그들은 평범한 일상용어 속에서 영적 존재와 마지막의 <유쾌한 결과>를 얻는 체험을 한다.

마음과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육신의 걸림질을 버려 버리고 예수님의 따뜻한 품을 향해 나가는 것을 추구하여 즐겁게 여생을 보낸다.

이상이 예수가정 각 구성원들이 반드시 갖출 신념이다. 평범한 사람의 생활태도로 보기에는 그 요구 수준이 지나친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장 예수가정의 본가는 설립 이후 그 성과가 대단했다.

밝은 등불이 사방으로 비추어듯이 예수가정은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그 후 10년 동

안 마장 본가와 동일한 형태의 예수가정이 전국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으니, 화북·서북 등 아홉 성에 밀집되었고 모두 수 십 군데에 달했다.

경전영이 창설한 예수가정의 실제 생활은 과연 어떠했을까?

과거 예수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고 경전영과 관계를 맺었던 국내외 인사들의 회고록들, 즉 汪錫鵬의 <記耶穌家庭>, 李岱汶 (Dr.D.Vaughan Rees)의 저서 <馬莊之行>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전영이 창설한 예수가정 마장 본가의 신도들의 생활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식사 문제에 있어서, 구성원 모두는 매일 두 끼의 식사를 했는데, 아침에는 큰 술에 밥을 하여 '호도(糊塗)'를 먹었다('호도'란 잡곡과 콩가루

에다 감자조각, 채소 등을 넣어 물에다 삶은 호물호물한 상태의 죽 같은 음식을 말한다). 어떤 때는 물이 너무 많아 묽어져서 먹는 사람의 두 눈이 밥그릇 안에 비취지기도 했는데, 그들은 이것을 '네눈의 糊塗'라고 즐겨 불렀다.

저녁에도 조촐한 식사를 했다. 노인과 환자는 쌀로 만든 부침을 먹었고 아기들은 예외이므로 우유 등 충분한 영양식을 먹었다. 그들은 항상 식전에 감사기도를 드렸고, 먹을 때엔 천천히 꼭꼭 씹고, 먹고 난 후에는 그릇을 깨끗이 훤아 먹음으로써, 낭비도 막고 씻기에도 편하게 하였다. 이렇듯 먹는 데 있어서 너무나 검소한 생활을 하였으니, 그들이 즐겨 부르던 찬양 「美生涯:아름다운 삶」의 가사중에 표현된 대로 "대충대충 먹고..."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였다.

의복에 있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일률적으로 집단에서 만든 옷을 입고 베로 만든 신을 신었으며 남녀 모두 양말은 신지 않았다. 옷, 신을 만드는 베도 자체에서 제조한 것으로, 목화를 심고 솜을 타고 실을 짓고 베를 짜는 모든 과정을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 했다. 집 안에 재봉틀이 있어, 일년 내내 각 구성원들이 사계절 입을 옷과 신발들을 만들고 헤진 곳을 꿰매곤 하였다. 의복을 만듦에 있어서도 특정 개인의 치수에 맞는 옷이 아니라, 크기가 다른 몇 종류의 치수만을 구분해 만들어 각자 대충 맞는 것을 입도록 하였다. 베로 만든 신도 마찬가지로였는데 이 신은 튼튼하고 질기기로 유명했다. 또 화려한 장식은 좋아하지 않았고 헤진 부분을 깎고 꿰맨 옷을 가장 아름답다고 여겼으니, 옷은 그저 누덕 누덕한 것을 입으면 되는 것이었다.

주거에 있어서도, 전체 공동체의 남녀노소 모두 공동으로 벽돌과 돌맹이를 날라 지은집에 거주했다. 마장의 가옥들은 모두 200여 채쯤 되었다. 집을 지을 때는 그저 비바람을 피하고 휴식을 취하기에 알맞은 견고함만을 고려할 뿐 미관이나 편리함 등은 따지지 않았다.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데 있

어 특이한 점은, 사회의 핵가족 제도를 타파했다는 데 있다. 노인들에게는 노인방을, 아기들에게는 아기방을 제공하였으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성인 남녀들은 각각 남성 숙사와 여성 숙사로 나누어 합숙하는 공동생활 방식을 취했다.

부부들은 개별적으로 함께 기거할 기회가 있었지만, 마장의 예수가정에 부부가 많아져서 각 부부의 거처 분배가 어렵게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할 여러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결국 40세가 넘는 부부들에게는 부부방을 사용하는 기회를 포기할 것을 권했고, 40세 이하의 부부는 돌아가며 부부방을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2주, 내지 3주 동안의 동거생활을 끝낸 부부는 다시 다른 부부에게 넘겨 주는 방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또한 부부들의 작업의 직위를 조정하여 격리시키는 방식을 택해 지나친 사욕을 피하도록 했으니, 진실로 그들은 '대충 잘 것'을 주장한 사람들이었다.

이상, 경전영이 세운 예수가정 마장 본가의 의식주 생활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기타 각지의 예수가정도 마장과 같았다. 의식주를 초월하기 위해 이런 생활 방식을 취하였지만, 집단 생활에서 최소한의 생산은 늘 유지되어야 했으므로, 평소에 노

력 생산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 가운데 없어서는 안될 요소였다.

경전영과 기타 각지의 가정들은 신도 한 명 한 명의 능력에 맞게 조직을 분배하여 몇개 조로 나누어서 각종 생산을 해 나갔다. 자매들은 야채 씻는 조, 밥 짓는 조, 바느질 조, 아이들 양육 조, 학교 교육 조, 베 짜는 조, 보수 조, 수유 조 등으로 편성하였고, 형제들은 채소 가꾸는 조, 밭 가꾸는 조, 외부 전도 조, 철공 조, 목공 조로 나누는 등 집단 내 모든 구성원들이 생산 대열에 참여하여 힘써 노동하고 그 능력을 다 발휘함으로써 공동체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비록 공동생산을 한다 해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재원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기에 힘썼다. 마장 본가를 예로 들면, 공동체 가입자가 날로 늘어나고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특별히 영업식 생산을 하여 얻어진 소득으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였다. 그들은 부지런히 태산 기슭에 과실수를 심어 대추 맛이 나는 홍옥색의 사과와 바나나 맛이 나는 청백색의 사과를 생산하여 자신들은 먹지 않고 전부 천진·상해·남경 등지로 운반하여 각지 예수가정의 협조를 얻어 판매하였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龍口당면을 생산하였는데, 이

당면은 질이 뛰어나 연해 각 대도시로 전매하여 풍성한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콩즙이나 콩 찌꺼기는 음식 재료로 이용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렇게 의·식·주 방면에서 절약하고 힘써 생산하고 재원을 개발하였기에, 결과적으로 마장 예수가정은 수요공급의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더욱 견실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전영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가정 신도들의 의식주 문제, 노동생산 등이 아니었다.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강건한 신앙생활의 추구를 주요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예수가정은 대단히 깊은 종교적 분위기를 띄고 있었다.

그는 신앙생활이 건전해야 물질생활도 건전할 수 있다고 여겼다. 예수가정의 하루 생활 중 상당히 많은 시간을 만족한 신앙 생활을 추구하는데 안배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신도들은 대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 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난 후 가장들의 권면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 각자의 개인 묵상 시간이 있다.

8시에 아침식사를 하고 노동하러 나갔다가 황혼녘에 이르러 돌아와 모두 교회 집회에 참석한다. 찬송, 기도, 말

씀이 주 순서이며, 시간은 일정치 않으나 적당한 때에 마치고 나서 각자 처소로 돌아가 취침한다. 이런 식으로 이튿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공동체 내에서 대단히 존경받았던 경전영은 모든 성도들에게 ‘敬 아저씨’라 불리웠다. 그는 예수가정 가운데서 늘 영적인 말씀을 공급하고, 신도의 영성, 신앙적 성장 등에 마음을 쏟았으며, 실무 방면의 일은 이후 다른 가장들에게 책임권을 넘겨주고 자신의 관여는 최대한 줄였다.

중국대륙이 공산화된 후, 예수가정은 공산제도의 색채가 가장 짙은 기독교 단체로 공인되었지만, 중공정권은 여전히 예수가정의 존재를 허용치 않았다.

결국 1952년, 경전영은 조카의 고발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장기 감금형에 처해졌으며, 또한 각지의 예수가정은 강제로 재편성 되었다.

이 후의 경전영의 생사는 불분명하다. 많은 해외 교회들은 경전영과 그가 세운 예수가정에 대해 단지 몇 권의 저서를 통해 이 특이한 교회 공동체를 더듬어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中國基督教人物小傳, 上卷』 중에서)
번역 : 김현주(중국어문선교회 회원)

일꾼을 찾습니다.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장기 또는 단기간
피아노 교사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TEL: 594 - 8038,
533 - 5497
(담당: 임화평 간사)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기독교협회 부회장 총무 심이번(沈以藩)



전국양회(全國兩會)의 책임을 맡은 동역자들과 안휘성 장풍현(長豐縣) 교회 성도들을 방문한 심이번 주교 (가운데 손 들고 있는 사람).

심이번 주교는 크리스천 가문의 5대째 신앙인으로서, 친·외가의 할머니 모두 강소성(江蘇省)교구의 여전도사들이었다. 그의 부친 또한 산서성(山西省)교구 중화 성공회의 첫 번째 주교였으며 후에 상해 중앙신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1928년 태어난 심이번 주교는 국민학교, 중학교를 미션스쿨에서 받게 되었다. 그의 부모의 경건한 헌신에 강

하게 감명 받은 그는, 남경대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1948년에 영광된 졸업을 맞게 되었으며, 다시 중앙신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여 1951년에 신학 학사가 되었다.

1949년 이후 심이번은 그가 계획했던 바인 해외에서의 신학수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격동의 사회 현실 속에서도 그는 그에게 닥친 도전만큼이나 새롭고 강렬하게 드러난 중국의 현

상들을 목도하게 되었으며, 그 후 3년 반 동안 상해 만인 성자교회에서 봉사한 후 그곳에서 성직을 임명받게 되었다.

이어 1955년 중국 교회감독위원회 서기직에 임명되어 삼자운동 원칙에 입각한 교회 재무장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청년활동과 문서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계속해서 그는 1950년대 후반에 일어난 중국교회 단일예배체제를 위한 성도간 협력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으니, 이는 중국 교회 후기종파주의를 향한 결정적 단계가 되었다.

이어 1958년 상해 새은행교회의 목사로 임명되었고 1962년 상해 교구장에 임명되었다.

문화혁명 기간 동안 심이변은 홍위군의 박해를 받아 7년간 공장일을 하게 되었다.

80년대 초 교회가 다시 문을 열게 되었을 때, 상해 발전총회장으로 다시 복직되었으며 상해 사회과학원 종교학 습에서도 연구를 맡게 되었다.

1980년 이래로 심이변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회 재건과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1980년 그는 새로 조직된 중국기독교협회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었고, 6년 후 CCC(중국기독교협회) 부의장 대행에 피선

되었으며, 그 해는 부의장과 총서기에 임명되었다. 이어 1988년 상해 기독교협회에 의해 주교에 임명되었다. 그 자리는 상해지역 목회자로서 책임감과 사명을 더욱 크고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였다.

심이변의 신학적 관심은 최근에 발간된 논문과 에세이들을 통해 잘 표현되고 있다. <사고적 재고를 통한 중국기독교>(중국사학 가이드 북, 1985), <중국교회의 신학적 추세>(CTR : 1988) 등이 그 중의 하나이며, 중국 새 찬송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1988)는 심 주교 자신의 영광된 주를 바라봄에 대한 고백이 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사회적 혼란과 그에 뒤이은 교회 부흥의 기간을 통해 주님의 임재하심을 고

백하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한 찬송이 되었다.

또한 심이변 주교는 1987년부터 상해 동 중국사학원에서 조직신학과 기독교 역사 사상을 강의해 왔으며, CCC의 신학교육위원회 의장으로도 피택되었다.

1981년 이래 심이변은 아시아 여러 지역과 유럽, 북미 지역의 여러 교회와 교회 기관들을 순방하여 왔다. 그는 1991년 캔버라에서 열린 세계 교회협회 7차 모임의 중국 대표로 참가했으며 그 기회를 통해 중국기독교협회를 그 모임의 정식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대외적인 활동을 해 왔다.

번역:배다니엘(중국어문선교회 협력 간사)



심 주교는 홍콩 기독교 협회의 초청을 받아, '93년 6월 14일~21일에 걸쳐 두 차례의 신학 강의를 하였다. 홍콩의 기독교 문예출판사를 방문했을 때의 모습(중앙에 있는 사람).

내가 본 중국인의 민족성



방지일

내가 보고 느낀 중국인의 민족성에 대한 고찰을 기록해 본다.

이웃이요 오랜 관계를 가졌던 중국 사람이라 잘 아는 면도 있지만, 등하불명(燈下不明)이라고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도 없지 않을까 한다.

흔히 중국하면 만주를 지칭하면서 그 곳이 곧 중국인 줄 아는 이가 많은 듯 하다. 그러나 그 큰 대륙에서 만주는 한 변경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의 국경 신의주에서 봉천까지 천리(里), 거기서 산해관까지 천리, 도합 2천 리를 가야 소위 중국의 관문에 들어서게 된다.

거기서 산동의 제남(濟南)이 2천 리, 내가 있던 곳은 거기서 천 리를 더 가야 하는 곳이니 우리 국경에서 5천 리 되는 곳이 바로 내가 있던 곳이다.

남북으로 말한다면 내가 있던 곳이 거의 중간이 되나, 동서로 보면 또 해안가에 불과하며 그 곳에서 동으로 4천 리나 가야 옛 고도 서안이다.

대강 이렇게만 보아도 중국은 실로 큰 나라임에 틀림없다. 언어를 가진 족속이 32개 민족이요, 중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만 해도 16방언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

중국의 중심 민족은 물론 한족이다. 이 한족은 양자강과 황하를 중심으로 살아 오면서 문화를 발전시켰다. 다른 소수 민족은 그 변두리에 많이 살고 있다. 나는 한족을 대상으로 한 설교자 였다.

최근 백년의 배외성(排外性)

배외란 말이 듣기에 그리 좋지 않을성 싶다. 더우기 공맹(孔孟)의 도의를 극히 존중하는 저들에게는 분노까지 살지 모른다. 내가 본 그대로, 대국이

요 그 수많은 민족들을 한 중심점을 가지고 정치(政治)하였다 함은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또 민심을 꺾는데도 성공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역사의 고전만 자랑하고 지켜오던 이 한족들이 남의 신문화에는 뒤질 수 밖에 없었다. 이 황금덩이 같은 대륙에 눈독을 쏟는 국가들이 많던 중 북에 있는 러시아가 제일 먼저 만주에 손을 뻗었다. 부동항이 없는 저들은 대련, 여순이 탐이 났기 때문에 이를 무슨 구실을 써서든지 뺏으려고 했다. 때문에 대국이란 자부심은 있으나 역부족이었던 중국은 관민이 일치하여 배로(排露)사상을 확연히 드러내었다.

4반세기 동안 이 사상이 짝차서 어린애들에게 원수가 누구냐 물어도 俄國(러시아)이라고 답할 만큼 배로사상이 강하였다.

이 후 정세는 달라져서, 러일 전쟁에 패한 러시아는 물러가고, 그 다음에는 영국이 아편전쟁을 일으켜 마구 침략하였다. 이들은 천진시에 조계(租界; 중국의 개항도시에서 외국인이 그들의 거류 지구안의 경찰 및 행정을 관리하던 조직 및 그 지역)를 설치하고 산동의 위해를 조사하며 중국의 한복판인 한구, 상해, 광동에 조계를 가지는 등 대륙의 심장부까지 침식해 들어왔다.

이후 4반세기 동안 전국에 배영(排英) 사상이 짝차 있었

다. 그러다가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홍콩과 기타 조계지역을 가지고 있던 일본이 만주를 집어 삼키고 그것도 부족하여 내륙까지(천진, 제남, 상해 등) 군대를 보냈으며 무슨 꼬투리만 있으면 출병(出兵)하였다.

장개석은 분통이 터졌지만 군사대항은 못하고 배일정책의 태도로만 일관하였다.

내가 간 때가 바로 그 때였는데, 밤에 자던 아이에게 물어 도 일본은 원수라고 말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배일 사상이 대단했었다.

일본화(日本貨)에 대한 배척이 격심한지라 이 큰 대륙을 시장으로 얻고자 하는 일본은 군사력으로 대항하는 등 피차간의 갈등이 대단하던 때였다.

‘敬措愛字’라 하여 글자가 써어진 종이는 다 주워다가 소각하며 공경하는 의식을 갖추는 도교승들까지도, 일문자(日文字)가 써어진 종이는 집어서 번소에 버릴 정도로 취급하였으니 그 상황을 알만하다.

그러다가 일본이 항복하고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배미(排美) 감정에 불이 붙었다. 아침마다 등교하면 종이에 호랑이를 그려놓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면서 말하기를, “미제국주의자는 무서운 호랑이지만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쳤다.

모든 언론이 다 마찬가지로

으니, 만화에 보기 흉한 미국 대통령의 추태를 그려내는 일이 빈번했다.

근래에 와서는 많이 달라졌지만 한세기 동안 배로(排露), 배영(排英), 배일(排日), 배미(排美)사상으로 점철된 저들의 역사는 최근 백년사에서 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민족 통일의 한 길이었다.

자존심이 강한 민족

남의 단점에서가 아니라 저들에게 있어서 그 자존심은 큰 장점이다.

국호가 천하지중(天下之中)이라 中國이요, 외유내강하여 겉으로 ‘하오(好)’란 말을 연발하나 자기 주체는 버리지 않는다. 일본 사람이 전국을 다 점령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며칠 못 간다고 속으로 비웃고 있었다. 나의 친한 친구는 일본이 20년을 못갈 것이라며 자신있게 말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전쟁에는 패할지라도 외교에는 절대 패하지 않는 민족이다.

중국인들의 속이 얼마나 깊은지 그들을 속단하는 일은 무지한 일이다. 무력 앞에는 굴하면서 속으론 굴하지 아니하는 자부심을 가진 민족이다.

내가 20여 년 간 봐 온 관점이 사실일 것이다.

(『福音歷史半百年』 중에서)

방지일/중국어문선교회 고문,
전 중국 산동성 선교사

피난처 되신 주님

淑貞

나는 강소성(江蘇省) 어느 작은 도시의 장사꾼의 딸로 태어났다. 내가 3살 때 아버지는 절름발이가 되어 어머니가 삶바느질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했다. 그때는 자식이 나와 남동생 둘뿐이었으나, 몇 년 뒤 남동생 한 명과 여동생 둘이 또 태어났다.

이때 아버지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사당의 신(神)이며青衣패거리의 두목이라는 사탄이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게 했다.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돈을 꾸어 향을 사다가 피우며 보살에게 도움을 구했으나 아버지에게 씌운 사탄은 계속 어머니를 구타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종종 자다가 놀라 깨곤 했다.

예수 믿자 보살귀신이 떠나다.

어느 해 설날, 우리 집 문밖에서 어떤 전도자가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여! 평생토록 어

리석음 가운데 말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헛된 신을 숭배하니 하루빨리 회개하고 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이 찬송을 들은 우리 어머니는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 왜냐 하면 당시 우리 집에서 숭상하고 있는 보살님이 전혀 우리들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집에서 모시고 있던 위패들을 모두 없애 버렸는데 사탄은 또 아버지를 이용하여 야단법석을 떨면서 어머니를 구타했다. 어머니는 주님께 간구하였고, 어머니의 기도예 응답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은 아버지를 놓아주었다.

비록 우리 가정이 가난이 심했으나 이때부터는 잘 견디어 나갈 수 있었다. 결국 주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후로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항상 어머니를 따라 예배당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주일

학교에도 나갔다.

내가 10살 되던 해, 일본군의 침략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上海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 당시 어머니 나이는 30세였는데, 남의 집 빨래를 해서 우리 일가족을 먹여 살렸고 아버지는 하는 일없이 집에서 놀고 계셨다. 우리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다. 한 끼를 먹으면 다음 한 끼는 굶어야 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어머니가 우리들을 데리고 기도했다. 우리가 비록 배부르게 먹지는 못해도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었는데,

내 마음에 자란 복음의 씨앗

그런데 어떤 자매가 우리에게 上海難民所(상해 피난민 수용소)를 소개해 주어 그곳에서 매일 두 끼를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3년을 거기서 보냈다. 주님께 감사하게도 수용소 안에 예배당과 학교, 그리고 수 공예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 우리가 수공을 해서 번 돈으로 반찬 등을 살 수 있었다. 나는 수용소에서 주님을 경배했고 복음의 씨앗은 이미 내 마음속에 심어졌다.

그 후로 우리 3식구는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온 식구가 다시 함께 모여 살게 되었다. 이때도 한 끼 먹고 또 한 끼 굶는 생활이 계속되었



장승원 그림

다. 우리 가정이 비록 빈곤했으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비해 주셨다. 두세 끼씩 굶어 아직 어린 여동생과 남동생이 배고파 울음을 터뜨릴 때면 우리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구제하게 하심으로 물질과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해서 10여년의 세월을 보냈고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 그때 나에게 흥미를 가진 어떤 외국 선교사가 나를 보고 똑똑하다며 성경 읽기를 가르쳐 주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

이 새겨지기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 거듭난 새 생명

큰 환난이 닥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거듭나지 못했던 나는 주님께 도움만 받고 싶어하고 거듭난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장성한 뒤 보통 사람들처럼 허영과 명예를 사랑하면서 돈 많고 명망이 높은 남편감을 원하였고, 이후 다른 사람의 소개를 받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다. 내 남편은 그 당시에는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기에 나의 목적은 달성되었지만 결혼 후의 생활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남편은 화를 잘 내는 성질에다 예수를 믿지 않았고 늘 나를 욕했다.

결혼한 지 채 1년이 안되

었을 때 상해가 해방되어 우리는 상해를 떠나야 했다.

1년 뒤 우리는 광둥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은 도박에 빠져 우리의 생활비를 몽땅 날려 버렸다. 궁지에 빠진 우리에게 해결 방법은 오로지 두 가지밖에 없었다. 하나는 다 함께 자살하는 것, 다른 하나는 길거리에 나가 구걸하는 것뿐이었다.

주님께 감사한 것은 이때 내 남편이 나를 일깨워 주기를 “당신은 크리스천이면서도 궁지에 빠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남편을 돕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부끄러웠다.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다하다니... 그 동안 교회도 나가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던 나를 성령님께서는 내 남편을 통해 나를 일깨워 주신 것이었다.

성령님이 또 나를 감동시키셔서 남편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게 하셨다. “당신도 같이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우리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있고 능력도 큼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살길만 트인다면 나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겠

다”고 했다. 말을 마치자마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며 이날 우리는 함께 거듭나게 되었다. 무릎 꿇고 있을 때 난 내 남편이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았다. 나 역시 통곡하며 내가 그 동안 주님을 떠나 헛된 것들을 사랑했던 죄들을 용서하시고 지금의 오갈데 없는 형편을 불쌍히 여겨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히 찾아 왔다.

우리가 정착을 한 뒤로부터는 매일마다 집회에 참석하였다. 남편은 아주 열심이어서 회개한 뒤부터는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었다. 원래 나는 매우 연약하였지만 남편 때문에 더욱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 둘은 밤낮으로 함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 당시 우리 교회의 목사님께서 우리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아시고 자주 도와주셨다. 4개월 뒤 광주가 해방되었고 그 무렵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목사님은 우리에게 여비를 주시면서 함께 외국으로 갈 것을 제의하셨다. 그러나 내 남편은 변화한 세상에 나가면 범죄하기 쉽다며 목사님과 함께 가기를 거부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보고 싶다고 향에 가고자 하여 우리는 고

향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가는 길마다 만난 주님의 손길

작은 나무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만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십 리 밖에 도적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때 배를 타지 않으면 20일을 더 기다려서 해방군이 호송해 주는 배를 타고 도적을 피해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들은 돈이 없어서 20일을 더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셔서 이 배를 타고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그런데 그 배의 주인은 내가 도적에게 붙잡혀 갈 것이 두렵다며 우리 대신 다른 한 쌍의 부부를 태워 주었다. 그 부인이 30대라서 도적들에게 잡혀갈 염려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우리는 나루터에서 해가 저물 때까지 기다리다 우리를 태워 준다고 하는 어떤 배를 만났고, 교회를 찾으면 뱃삿을 주기로 하고 그 배를 타고 가게 되었다. 뱃길 가던 중에 선주가 말하기를 좀 전에 어떤 배 한 척이 도적의 습격을 당하여 30세 쯤 되는 부녀자가 납치당했고 그 남편도 맞아 죽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즉시 주님의 예비하심에 감사드렸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운명도 그 부부처럼 처참했을 것이다.

도중에 어떤 곳에서 열흘 동안 머물고, 이후에 해방군이 와서 열 몇 척의 배를 호송하여 도적을 피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그제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 번 도적을 만나 돈을 뺏겼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 돈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도적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 후 우리는 상해를 거쳐 광주로 갔고, 거기서 만난 정 장로님이 예배당에서 우리를 접대하고 배표를 사줘서 고향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상해, 항주를 지나 가까운 곳에 선주의 집이 있어 그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 쉬고 우리 가족만 배에 남아 밤을 지새게 되었다. 이때 또다시 도적들을 만나게 될 줄이야!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였고 그들은 배에 올라와 이리저리 살피고 몇 차례 훑어보더니 우리를 놔두고 그냥 가 버렸다. 새벽이 되어 돌아온 선주에게 그가 말하기를, 원래 자기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그냥 안심하고 배에 남기고 갔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자라가는 믿음

고향에 온 지 1년도 채 안되어 남편은 출신성분 문제로

인해 체포되었다. 우리에게 남은 재산이라곤 하나도 없었고 시어머니마저도 결혼한 시누이 가족들과 함께 상해로 떠나시게 되었다. 오로지 나 혼자만 남아 남의 집의 식모로 일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북경의 교통부 간부의 집에서 일하면서 주 일에는 교회도 갈 수 있었다. 당시 내가 다니던 교회는 왕명도 선생이 지도자로 있는 곳이었었는데 왕명도 선생이 잡혀갈 때까지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로 성장했다. 나는 헌신하기를 원했지만 내 문화적 수준이 미흡하여 신학(神學) 할 자격은 못 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꿈속에서 한 사람이 성경을 들고 나에게 와서 전도서 12장을 읽으라고 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創造者)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늙을 때까지 지체하지 말고 젊은 시절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축구의 말씀이었다.

내가 비록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길 원하지만 설교는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웃 도시의 교회로 인도하셨고 그 곳의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비록 성경지식은 없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성경은 “세력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靈)으로 만이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그 후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줄곧 기도으로써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내가 어렸을 때처럼 성경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거하도록 기도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했다.

그 이후 교회에서 성경공부반을 추천해 주어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은 지식을 터득할 수 있었다. 미처 성경공부가 끝나기 전에 그 성경반은 작은 교회와 합병됐다.

1956, 1957년쯤 내 남편이 드디어 석방되어 장사를 시작했고 나는 설탕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타나는 기적들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다.

4개월 후 또다시 운동이 발생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당국은 사람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떠날 것을 호소했다. 그때 내 남편이 그곳 청년들에게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며 오직 주님께로 가야만 영생이 있다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당국에 의해 반동분자의 딱지가 붙게 되었다. 딱지

불은 자들은 일거리도 없고 길거리 청소와 화장실 청소만을 할 수 있었다. 나는 그때 공장에서 옷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신식 의복은 만들지 못하고 재단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옷을 많이 만들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한 벌 한 벌씩 세어 가며 옷을 만들었고 내 남편은 집안일을 했다. 우리 부부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침저녁마다 함께 기도했다. 그이는 주님께 봉사하길 원했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복음을 전하였다.

내가 36세 되던 해에 문화혁명이 시작되었고 나는 심한 병에 걸렸다.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던 중 한 크리스천 의사를 알게 되었다. 내가 우리들이 집회할 장소가 없다고 했더니 그녀는 자기집에서 집회를 열자고 했고 이 덕분에 나는 몇 개월 동안 그녀의 병원에 입원했다가 완쾌되었다.

그 후 나는 조카의 집에 가서 심장병에 걸린 그녀의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이분은 17일간 아무 것도 먹지 못하여 말소리도 크게 내지 못할 정도였다.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녀에게 설교를 하고자 했지만 조카딸은 자기 시어머니가 공산당원이라 내 설교를 듣지 않을 거라며 이를 말렸다. 나는 아무리 공산당원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

혼은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에 씌어 있기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고 죽은 뒤 영혼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당신도 하늘나라에 가고 싶겠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텐데 당신은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겠습니까?”

그녀는 당연히 천국에 가길 원한다고 대답했고, 나는 천당에 가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 날마다 그녀를 찾아가 복음을 전했으며 결국 그녀는 예수를 영접하여 죽음에서 살아났을 뿐 아니라 회개하고 새사람이 되었다.

이 외에도 내 여동생이 사는 마을에 귀신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릴 때마다 음식을 거부하고 마구 사람을 때렸다.

이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 동생이 나를 불러 가서 보니, 그 사람의 가족들이 그의 치료를 위해 이미 많은 돈을 무당에게 써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부른 것이었다.

“많은 돈을 날렸지만 여전히 병을 못 고쳤습니다. 듣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만 하면 병이 치유된다고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신네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믿겠다고 얘기했고 나는 귀신들린 자를 위해 기도했다. 새벽이 되자 귀신들린 자가 말하기를 “너희들의 힘이 참으로 크다.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니 내가 나갈 수밖에 없다.”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나자 그의 온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 후로 우리는 그곳에서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나는 종종 가서 집회를 인도했고 내가 없을 때는 여동생이 찬송을 인도하고 성경을 읽었다.

주님과 함께 환난의 강을 건너며

문화대혁명 때에 나는 아무런 반혁명적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내 남편이 출신성분의 문제로 사람들에게 끌려나가 비판투쟁을 당했다. 남편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 내 몸이 약하고 위장도 매우 아픕니다. 제발 구타당하지 않게끔 도와주십시오”



장승권 그림

마침내 남편이 사람들에게 비판투쟁을 당하게 되어 투쟁이 가장 심각할 때 그녀는 입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로 투쟁당하는 것을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다니던 공장의 사장이 내가 반혁명분자의 가족이라며 나를 고발하였고, 나는 거리로 다니며 조리돌림을 당하였다. 나는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주님의 뜻이 아니면 비판투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 몸에도 이렇게 썼다

- ① 반혁명을 지지하는 반혁명 분자의 가족.
- ② 제국주의의 앞잡이 예수쟁이.

③ 사회주의(社會主義)의 벽을 허물려는 분자.

그들은 나로 하여금 온 성(城)을 돌아다니게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기쁨의 영이 넘쳤고 아무 근심도 없이 즐겁게 찬송가를 부르고 또 불렀다. 갑자기 다리를 건너가고 있을 때 사탄이 나로 하여금 자기연민에 빠지게 했다. '나는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출신성분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돌아다니며 조리돌림을 당해야 하는가? 아예 다리 밑으로 뛰어드는 게 낫겠다.' 찬송을 멈췄을 때 갑자기 이런 충동이 생겼지만, 이 생각이 나자마자 즉시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사 이것이 사탄에게서 온 생각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며 마귀의 꾀계에 넘어가지 말라

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자 죽고 싶다는 충동이 싹없어지고 사탄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죄인의 핏말을 듣고 다녀야 했다. 이때 나는 임신중이었고 우리 세 식구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비판투쟁을 당한 남편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시시때때로 너무 자주 예수의 얘기를 했다며 계속 예수를 믿으면 방망이로 구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당신을 위해 전도하고자 합니다. 나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남편은 방망이에 맞지 않았고 오히려 구타하려던 자가 파출소에 잡혀가는 일이 벌어졌다. 나도 그때

공장에서 비판투쟁을 당해 무릎꿇고 매를 맞았는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이 나에게 비판 투쟁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였다.

계속 농촌의 흉위병 아이들이 종종 우리를 불러내어 비판하고 투쟁하였지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나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난 후, 나는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된 찬송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린아이의 병이 나왔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갔으며 가는 곳마다 집회를 열었다.

나는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주님께 의지하고 차를 탈 때도 주님께 도와 달라고 기도하였다. 집회중에 찬송가를 인도하고 성경을 볼 때 어디를 떠면 그곳에 나오는 성경

을 읽었다. 그 때까지 나는 할 일이 있었다.

은퇴한 지 15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지켜 주신다. 67세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건강하다.

나는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中國與教會」 98기 중에서)

번역:차이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간사)

동역자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국어문선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분은

1. 먼저 본선교회와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기도가 가장 큰 후원입니다.
2. 후원금을 약정하여 매달 혹은 수시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3. 주신 달란트를 드러 손과 발로 펼 수 있습니다.
4.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능이 아닌 성실한 헌신입니다.
먼저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할 일을 찾게 될 것입니다.

중국어문선교회

(Tel. 594-8038, 533-5497, Fax. 599-2786)

(중국어 찬양)



奇異恩典 나같은 죄인 살리신

J. Newton, 1779

AMAZING GRACE: 8.6.8.6.

Traditional American Melody

Arr. by E. O. Excell, 1900

보통으로 ♩ = 96

1. 奇異恩典! 何等甘甜 我罪已得赦免;
2. 如此恩典! 使我敬畏 使我心得安慰;

前我失喪, 今被尋回, 瞎眼今得看見.
初信之時, 我蒙恩惠, 真是何等寶貴.

발음 :

- Qí yì ēn diǎn, hé děng gān tián wǒ zuì yǐ dé shè miǎn
qián wǒ shī sàng, jīn bèi xún huí xiā yǎn jīn dé kàn jiàn.
- Rú cǐ ēn diǎn, shǐ wǒ jìng wèi shǐ wǒ xīn dé ān wèi
chū xìn zhī shí wǒ méng ēn huì zhēn shì hé děng bǎo guī

우리말 가사 :

-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在敵人的地方

(約四6-44; 路四16-28)

원수의 땅

(요4:6~44, 눅4:16~28)

五百多年來，猶太人和撒瑪利亞人老死不相往來。耶穌向撒瑪利亞婦人要水喝，她怔住了。

500여년 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절대로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그녀는 놀랐다.



耶穌告訴她，他是從上帝那裡來的
救主。她相信了，跑回鎮上，逢人便講
這個好消息。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그 곳에서 온
구주임을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믿었다.
마을로 뛰어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좋은
소식을 말했다.

來吧！去看一個人，他把我的秘密全說
出來了，陌生人怎末也不可能知道的秘
密。他是應許的彌賽亞。他是救主！

“와서 보세요! 와서 이 분을 보세요.
그분은 나의 비밀을 전부 말씀합니다.

낮선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
는 비밀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약속하신 메시야이십니다.

그는 구주이십니다!”



婦人去鎮裡報訊；耶穌的門徒回
來了，請他一道吃買回來的食物。

여인이 소식을 전하러 마을로 갔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돌아와 예수님께 사가지고 온 음식을
같이 먹자고 청하였다.

謝謝，但我現在不吃。
我有食物，這是你們
不曉得的。

“고맙구나. 그러나 나는 지금은
먹지 않겠다. 나에게
음식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我們
不懂！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요?”



遵守差我來的天父的旨意作
工，就是我的食物。你們看，
這些人渴慕聽真道，要聽上帝
差我來跟他們說的話。

“나를 보낸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역하는 것이 나의 음식이다. 너희들은

이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있는 것을 봐라.

나를 보낸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撒瑪利亞人雖然恨猶太
人，仍有許多人相信耶穌
是他們的救主。他們懇求：
「留在這兒，多講點上帝
和祂的國的事給我們聽。」
耶穌留了兩天，然後去加
利利地。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록 유대인을 미워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예수가 그들의 구주임을 믿었다.

그들은 간절히 구했다. “이곳에 머무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일을 좀 더 들려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틀동안 머물렀고, 그 후에 갈릴리로 떠났다.



하상(河殤)

蘇曉康, 王魯湘 著 / 洪 惠 譯 / 동문선 刊
306쪽 / 값 4,000원



<하상>은 원래 1987년 중국의 국영방송인 CCTV에서 특별제작한 6부작 연속 기획프로그램이다.

<하상>은 황하를 중심으로 동서고금의 역사적 변천을 논하면서 역사와 현실로부터 중국의 문화, 사회구조, 문명의 성쇠, 과학기술, 철학, 인구, 교육 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은 대략 3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중국 문명의 근원인 황하로 인한 수차례의 재난으로 점철된 역사적 변천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중국이 약하고 부진한 원인을 설명한다.

두 번째는,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중국은 쇠락해가는 문명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고 공업문화로 가야 하며 반드시 내륙에서 해양으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토론하는 가운데 4개 현대화 건설과 개혁정

책을 기초 이론으로 제시하면서 중국 연안의 경제 특구를 발전시켜 중국이 국제적 경제 대순환구조에 진입할 것을 제의한다.

이 책은 개혁, 개방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1897년 당시 중국의 지식분자들이 쇠락해 가는 문명 속에서 고뇌하며 신중국의 이상을 그리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화해의 아이

돈 리차드슨 著 / 김지찬 譯 / 생명의 말씀사 刊
344쪽 / 값 5,000원



이 책은 전 네덜란드 뉴기니아(현 웨스트 이리안 혹은 이리안 자야)에 거주하는 사위(the Sawi)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돈 리차드슨 선교사의 선교 수기이다.

이 사위 부족은 뉴기니아 서반부에서 생활하는 약 40개로 추산되는 부족들 가운데 한 부족이다.

이 중 사위 부족은 배반을 하나의 이상(an ideal)으로 숭앙하는 부족이었다.

1962년 돈 리차드슨은 아내인 캐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새로운 세계관을 알려주기 위해 이 사위 부족에게 갔다.

하나님께서 사위 부족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구속 유비의 원리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적과 화해할 때 서로 자신들의 아이를 교환하는 “화해의 아이(peace child)”였다. 이것만은 적을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되었다.

돈 리차드슨은 “화해의 아이”와 그 밖의 구속의 유비들을 사용하여 사역을 하였다.

이 “화해의 아이”라는 책은 이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문화 중의 하나인 사위 부족 문화의 그 기초까지 파 내려가 연구한 후에, 그 문화의 구성원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쓴 돈 리차드슨과 그의 아내 캐롤의 고통, 그리고 승리의 기록이다.

이 책은 미전도 종족 및 중국의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적잖은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중공선교의 문이 열린다

폴 카프만 著 / 김영국 譯 / 생명의 말씀사 刊
188 쪽 / 값 2,000원

이 책은 중국 선교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나님의 약속 성취라는 관점에서 밝히고 있다.

저자인 폴 카프만은 ASIAN OUT-REACH의 설립자이며, 중국 산둥성과 티



벧 국경지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부모 밑에서 태어나 20년 이상 중국에서 활동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적 추수를 대비하여 많은 이들에게 보다 넓은 관점에서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전 인류의 1/4 이상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최대의 영적 추수지인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은 이 계획의 성취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들이 오히려 중국에 기독교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그의 대로를 넓히시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5천 년 중국 역사의 변천 속에서 유가도, 공산주의도 그리고 개혁에 따른 물질도 중국 영혼들에게 근본적인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여 그들의 마음은 공허함과 갈급함으로 메마른 상태이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혁명이 온 중국 대륙을 뒤덮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적 대 추수가 행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까?



비행기 및 열차와 더불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교통수단은 택시와 버스이다. 중국의 택시는 다소 비싸기는 하지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버스는 비행기나 열차로는 갈 수 없는 변경 지방이나 도시의 근교를 연결해 주는 매우 유용한 여행자의 발이다.

중국의 버스는 크게 나누어 시내 버스인 공공버스(公共汽車), 도시와 근교를 연결하는 근교버스(近郊汽車), 하루 이상 걸리는 장거리를 운행하는 장거리버스(長途汽車) 등 세 가지가 있다.

시내버스에는 일반버스와 전차, 소형버스 등이 있다. 일반 여행자 특히 단체 여행자들은 이런 버스보다는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행기나 열차와 달리 버스요금은 외국인 요금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싸기 때문에 버스를 적절히 이용하면 여행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서민의 발, 시내 버스

◇ 500원으로 북경 시내 관광을 할 수 있다

시내 버스(公共汽車)는 자전거를 제외하면 중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다. 가장 먼 구간이라도 5角 이하이므로 우리 돈으로는 80원이 채 안 된다. 북경의 경우 시내 버스를 이용한다면 하루 500원 정도의 교통비로 시내의 웬만한 명소를 둘러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버스 정류장 표지판에

는 그곳에서 정차하는 버스의 노선번호와 그 버스의 종점이 어디인가만 쓰여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반해 중국의 버스 정류장 표지판에는 그곳에서 갈 수 있는 모든 정류장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어디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는지까지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시내 버스 노선도 한 장만 있으면 시내 버스를 이용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

◇ 버스타기는 체력과 정신력의 싸움이다

중국 대부분 도시의 시내 버스는 그 혼잡함이 우리 나라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함은 우리 나라보다 더 심각한 듯하다. 체면을 차리고 우물쭈물하다가는 도저히 탈 수 없다.

버스를 타는 요령은 우리 나라와 거의 비슷하다. 자기가 타려고 하는 버스가 오면 그 버스가 어디쯤 멈출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서 기다렸다가 버스가 멈추면 체면이고 예의고 따질 것 없이 밀고 들어가야 한다. 조금이라도 우물쭈물하게 되면 경험 많은 중국사람들에게 밀려나게 된다. 버스를 타는 데는 정신력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체력도 필수적이다.

◇ 러시아워는 가능하면 피하자
출퇴근 시간에는 여행 경비가 부족하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시내 버스를 이용할 생각은 하지 않

자전거

는 편이 좋다. 노약자의 경우에는 '절대로' 출퇴근 시간에 시내 버스를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경험 삼아 버스를 한번 타보고 싶다면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자. 지하철도 마찬가지이다.

◇ 일단 버스를 타는 데 성공했다면 중국의 시내 버스에는 차장이 있다. 버스에 오르면 차장에게 차비를 내고 차표를 받아야 한다.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미리 종이에다 행선지 이름을 한자로 적어 두었다가 보여 주거나 지도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지점을 가리키면 된다.

시내 버스 요금은 구간에 따라 2~5角이므로 인민폐 5角 짜리를 내면 5角 이하의 구간을 갈 경우 거스름돈을 내줄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혼잡한 차에 탈 때는 현금 등 귀중품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와 교외를 연결하는

근교버스(近郊汽車)

近郊汽車는 주요 도시와 반경 100km 이내에 있는 주변 도시 및 마을을 이어주는 버스로 우리 나라의 시외버스에 해당한다.

사실상 일반 여행자들이 이용할 기회는 거의 없지만 이 근교 버스를 잘 이용하면 중국의 작은 도시나 마을의 속내를 볼 수 있다. 물론 이들 지역은 대개 개방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개방구역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

이기 때문에 근교 버스를 이용할 기회는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근교 버스로 갈 수 있는 곳에는 외국인 여행자가 묵을 만한 호텔이 거의 없으며, 개방되지 않은 곳일 확률이 높으므로 가능하면 당일치기가 가능한 곳을 고르고 옷차림은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돌아가는 차표를 사두도록 한다. 중간 정류장에서 차를 탈 경우, 시발점에서 만원이 되었다면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장거리를 연결하는

장거리 버스(長途汽車)

◇ 장거리 버스(長途汽車)는 예매를 해야 한다

長途汽車도 근교 버스와 마찬가지로 일반 여행자로서는 거의 이용할 기회가 없는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비행기나 열차로는 갈 수 없는 사막지대나 국경의 작은 마을을 연결해 주므로 관광 코스 이외의 지역을 보려는 사람에게 매우 유용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개방지구를 연결하는 노선에만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長途汽車를 타려면 장거리 버스정류장에 가서 표를 사야 한다. 근교 버스와는 달리 예약제이므로 가능한 한 예매를 해야 한다.

◇ 짐 간수하기

차에 가지고 탈 수 없을 정도의 큰 짐

이 있을 경우에는 화물 서비스 창구(行李服務處)에 가서 짐의 무게를 달아 운송료를 내면 운전사나 승무원이 짐을 버스 지붕위에 얹어 준다.

도중에 정류장에 여러 번 정차하게 되는데 이때 남의 짐을 몰래 가지고 내리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류장에 도착하면 자기 짐을 잘 감시하도록 한다. 귀중품은 반드시 몸에 보관하도록 한다.

택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택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기가 어려웠다. 대부분의 택시는 공항이나 호텔 부근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택시가 많이 늘어나 북경·상해·광주를 비롯한 대도시나 주요 관광지의 중심가에서는 길거리에서도 택시 잡기가 어렵지 않다.

두말 할 것도 없이 택시는 경제적인 교통수단은 아니다. 그러나 서너 명이 같이 이용할 경우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여행자로서는 짧은 시간안에 많은 것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우기 중국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익숙지 않은 여행자로서는 택시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 어떤 종류의 택시가 있나?

중국의 택시 요금은 지방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북경을 예로 들면 기본 요금이 10원이고 km당 1元 6角인 소형택시, 기본 요금이 12.6元이고 km 당 2元인 중형 택시가 있다.

이 밖에 여섯 사람이 탈 수 있는 승합택시가 있는데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방향의 승객을 합승시키는 택시이므로 시간 여유가 없는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 택시 이용 방법

택시에는 대개 미터기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미터기에 나온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미터기가 없거나, 구간 또는 시간을 정해 택시를 세 낼 경우에는 미리 요금을 협상해야 한다. 어느 장소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택시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대기료를 주더라도 택시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좋다. 물론 택시가 자주 드나드는 호텔 같은 곳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자전거 타기

자전거는 빌리는 데 큰돈이 들지 않으며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전거는 중국 어느 도시에서나 빌릴 수 있다. 빌리는 장소는 호텔에 문의하면 된다.

자전거 대여점이 호텔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호텔 종업원에게 그곳의 주소와 이름을 적어 달라고 부탁해서 택시 운전사에게 보여 주면 된다.

◇ 여권은 맡기지 말자

대여점에서는 보증금을 요구하는데 보증금 영수증은 받아서 잘 보관해야 한다. 보증금 외에 여권을 맡기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권은 남에게 맡겨서는 안되는 귀중한 물건이므로 국제운전 면허증이나 학생증 등 다른 신분증을 맡기거나 여권 사본을 맡아 주도록 부탁해 보라. 자전거를 빌릴 때는 자전거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한다.

◇ 자전거는 보관소에 맡기자

중국에서는 자전거 도난 사건이 많이 일어나므로 자전거는 절대로 아무 곳이나 세워 두지 말고 반드시 자물쇠를 채워 관리인이 지키고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맡겨야 한다.

자전거를 맡기면 번호가 써 있는 나무조각이나 종이를 두 장 주므로, 하나는 자전거에 붙이고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자전거를 찾을 때 요금과 함께 돌려 주면 된다.

(『한국인의 중국 여행』 중에서)



填字遊戲(피즐)정답

				雅	典		
		耶	利	歌			
		和			希	特	勒
		中	華	民	國		價
山	東			際			廢
				公	用	電	話
		約	瑟	法		腦	
哈	拿		古		恭		
利			典		喜	事	
路	加	福	音		發		
亞			樂		財		

중국은 듣던 대로 “만만디”

정요한

필자는 '93년 9월부터 '94년 1월까지 중국어문선교회의 선교중국어 집중과정 3기를 수료하고, 중국 현지 답사를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홍콩, 광주, 항주, 상해, 심천, 마카오 등을 다녀 오게 되었다. 그동안 기도해 오던 중국 대륙을 직접 밟아보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이기에 충분했다.

전체적으로 언어실습, 문화적응, 선교비전 확인의 3가지 여행목표를 가지고 이번 현지 답사에 임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심을 통하여 풍성히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목표를 중심으로 여행기간 동안 보고 배웠던 것을 간단히 나누고자 한다.

언어실습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어 소극적으로 임했었는데, 한두 마디 짧은 말들을 하면서 의사소통이 되는 것을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 몇 번의 기회를 통하여 중국인들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틀린 어법을 고쳐주며 중국어를 잘한다고 칭찬까지 해주었다. 어느 정도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지만 듣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좀 더 충실히 공부하고 준비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무엇보다도 실제 중국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큰 수확이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언어훈련의 필요성과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었다.

문화적응

처음 중국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외국에 왔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다. 중국인들은 외모가 비슷해서인지 우리 나라의 시골사람 같았고, 도시도 생각했던 것보다 발달된 모습이었다. 건물, 차, 옷차림 등이 낯고 허름해 보이긴 해도 거부감보다는 호감이 갔으며, 그곳 사람들도 정겹게 느껴졌다. 여행하는 동안 음식, 숙소 등에서도 별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었다. 여행이 끝날 무렵에는 오히려 한국에서의 적응을 걱정하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나는 사람들을 주의깊게 관찰하며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몇 가지 언급하자면, 중국인들은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았다. 언어 실습을 하려고 말을 걸면 주위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 들었고, 홍콩 우 공원에서 만난 가정교회 지도자와 이야기하는 동안 그곳을 지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 기웃거리곤 했다.

또한 그간 많이 들던 대로 '만만디'의 중국인을 볼 수 있었다. 장사(長沙)에서 영화관에 갔을 때, 상영이 20~30분 정도 중단되었는데도 아무런 불평없이 느긋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신기해 보였고, 또한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과 운전사들의 모습에서 '만만디'의 태도를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돈에 무척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상해에서 안면을 익힌, 호떡 팔던 아저씨는 자기에게 인민폐 2,000원이 있다면서, 한국에 갈 때 자기를 데리고 가서 한국에서 동업하자는 바람에 서투른 중국어로 거절하면서 해명을 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다.

중국인들은 의심이 많아, 돈을 받을 때마다 위조 지폐가 아닌지 몇 차례씩 확인하였고, 환전 할 때는 지폐번호까지 일일이 기록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동일시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특성을 알고 문화의 습관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교비전 확인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중국선교에 대한 현재 상황과 전략 등에 대해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기회들(광주에서 중국

가정교회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져 있는 임헌고 목사님과 중국인 형제와의 만남, 상해에서 우연히 만난 가정교회 지도자, 장사의 가정교회 형제 자매들, 항주와 상해에서의 삼자교회 방문 등)을 통해 부족하지만 중국 내의 영적 상황과 필요를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가정교회 형제 자매들의 뜨거운 마음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들은 내게 큰 격려와 도전을 주었다.

현재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삶을 나누고 체계적인 양육을 통하여 영적 굶주림을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이며, 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도움이 절실함을, 그들과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훈련되고 헌신된 수많은 일꾼들이 필요함을 느끼며, 주님께 내 자신을 작은 도구로 드릴 것을 다시 한 번 헌신하였다.

현재 중국인들은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신봉해 오던 '공산주의'에 대한 실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찾고 있지만 정신적 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때가 바로 세상적인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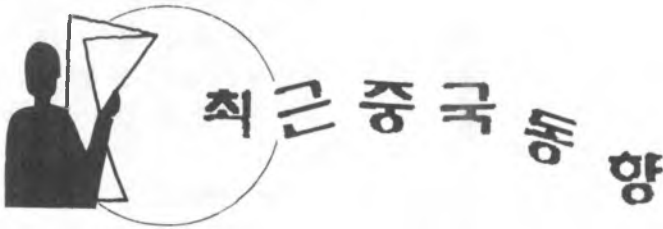
지금 중국에는 매일 28,000명 가량의 결신자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요 4장 35절의 말씀대로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추수할 많은 일꾼들을 부르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번 여행기간 동안 함께 한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동시에 나 자신의 부족한 영역들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에 나눔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었으며, 그동안 암송했던 말씀들을 수시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행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음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철저한 준비(개인적인 자질, 영적 자질, 사역 경험 등)를 위하여 기도하며 개발하고 훈련해야 됨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마카오를 방문했을 때, 모리슨 선교사의 묘비 앞에서 이분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한 알의 썩는 밀알이 될 것을 서원하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이번 여행 일정 가운데 교통편, 날씨, 건강, 안전, 경비 등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채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정요한/ 중국선교훈련원 3기 수료생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종교

● **중국, 종교통제 강화**

중국정부는 종교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인과 외국인 신도들의 연대를 제한하는 새로운 종교법령을 발표했다.

새로운 종교법령은 중국국무원에 의해 제정, 지난 달 31일 李鵬 총리의 서명을 거쳐 발표됐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령 13조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종교기관을 설립하거나 예배를 위해 종교장소 또는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또 전도를 통해 중국인들을 개종시키거나 중국인들을 사제로 임명할 수 없다.

이 통신은 또 중국사회의 이익에 해가 되는 내용을 담은 종교적 자료의 중국 내 반

입이 금지되며 외국인이 출판물, 녹음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를 포함한 종교적 자료를 개인적인 종교활동 외의 다른 용도로 들여올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법령 20조는 종교집회장소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외국인이나 개인이 집회장소를 관리할 수 없으며 집회장소의 기증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일보 94.2.7)

● **중국, 기독교도 10명 구속**

중국 하남성에서 종교활동을 벌이다 경찰당국에 구금됐던 미국인 기독교 선교사 3명이 15일, 구금 5일만에 거주지인 홍콩으로 되돌아 왔다고 이들 귀환자 가족들이 밝혔다.

선교사 부인인 캐시 발콧은 남편과 그의 동료들이 15일 오후 중국으로부터 되돌아 왔으며 매우 지쳐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발효된 신 종교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 미국인들과 함께 억류된 인도네시아, 홍콩, 중국인 등 기독교도 7명은 여전히 풀려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새 종교법은 외국인의 국내 종교활동 및 중국인의 외래종교 개종을 금지하는 한편 중국교회도 해외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94.2.16)

● 미국, 중국에 「선교사 역류」 경고

미국 국무부는 16일 중국의 미국인 선교사 체포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최혜국 대우 갱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선교사의 체포와 오는 6월의 최혜국 대우 시한만료에 관한 질문에 대해, 「나는 분명히 이를 일보전진으로 규정짓지 않을 것」 이라면서 중국의 종교제한과 북경 당국이 선교사 체포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미국의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일보 94.2.17)

● 중국 반체제 기독교도 경찰 구타로 사망

중국의 반체제 인사 구속사태로 미국, 중국간 관계가 긴장상태를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반체제 기독교도가 최근 당의 명령을 무시한 채 한 교회에 출석한 뒤 중국경찰에 구타를 당해 사망했다고 미국에 소재한 한 종교단체가 9일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애나에 위치한 사설기관인 『뉴스네트워크 인터내셔널』은 중국내 반체제 인사들이 홍콩의 교회단체에 보낸 한 편지로부터 호남성 사람인 정무생이라는 개신교 신도가 경찰의 구타 후 의사의 치료를 거부당한 채 숨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94. 3.10)

● 중국, 선교사 7명 추방, 종교활동 규제 고수

중국은 최근 외국인 선교사 7명을 국내에서 포교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구금시킨데 이어 이들을 사실상 추방조치함으로써 외국인 선교활동에 대한 강경입장을 분명히 했다.

吳建民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주례 뉴스브리핑에서 외국인 선교사 구금 및 추방조치와 관련, 이들은 「하남성에서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벌임으로써 중국의 종교법과 사회질서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면서 「본인들도 이같은 국내법 위반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 11일 미국인 3명 등 외국 선교사 5명을 구금시킨 것을 비롯 최근 7명의 외국인을 국내 선교활동 혐의로 구금시켰다. 이 가운데 미국인 1명은 16일 추방됐으며 나머지는 자진출국형식으로 중국을 떠났다.

(국민일보 94.2.18)



한중관계

● 기업 중국 진출 지원 확대

정부는 중국과의 교역을 늘리기 위해 수출입 은행의 연불수출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올해 안에 대중 투자 장려 업종을 선정, 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북경과 상해에만 있는 무역관을 대련(大連)과 중경(重慶)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일보 94.2.18)

● 중국에 4천만불 지원

정부는 올해 중국에 약 4천만 달러의 대외 경제 협력 기금(EDCF)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대중국 지원계획을 중국측과 협의한 뒤 빠르면 3월 하순 김영삼 대통령의 訪中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중국에 지원할 사업의 대상은 △천진 남강대교 건설 △산동성 용구항 확장 △흑룡강성 철도설비 구입 △하얼빈 비행장 통신 및 관제시설 확충 등 4개 사업이다.

(조선일보 94.2.22)

● 건설사, 중국시장 본격진출

92년 한·중 수교 이후 건설업체의 중국 진출이 부진했던 것은 투자 리스크와 여건 미비, 중국 내 사회간접자본 한계, 국제금융기관 자금공여 공사 제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올 들어 국내 대기업들의 제조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동반해 건설업체 진출이 늘고 있다.

지난해 싱가포르와의 제3국 공동진출에 합의해 한국-싱가포르 업체간 컨소시엄 형태를 띤 중국 진출도 적극 모색되고 있다.

(조선일보 94.2.28)

● 중국여행 4월부터 자유화

정부는 4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한 여행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을 특정국가로 분류, 중국 여행 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던 국무총리훈령「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정부의 사전 허가없이 중국을 여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유학이 허용되지 않았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중국유학도 자유화된다.

정부는 사회체제의 차이, 여행자의 신변안전, 국가안보 등을 고려해서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 등 4개 국을 특정국가로 분류, 여행허가제를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 중국이 특정국가에서 제외됨으로써 라오스 등 3개 국만 특정국가로 남게 됐다.

(동아일보 94. 2.27)

● 식품업계 중국진출 활발

세계 최고의 요리국임을 자랑하는 중국에 우리 나라 식품업계가 진출, 10억 인구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분주하다.

92년 수교이후 두드러진 이같은 식품업계의 중국진출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면서 저임금을 활용한 생산과 제3국 수출이라는 초기 형태에서 벗어나 현지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늘고 있다. 생산품목도 김,과자, 막걸리 등 다양하다.

동양제과는 최근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합작 형태로 '오징어 땅콩과자' 공장을 설립, 오는 6월경부터 연간 5백만 달러의 오징어 땅콩과자를 생산한다.

회사측은 생산량의 전부를 중국내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94.2.28)

● **한·중 해상우편 직통항로 개설**

오는 3월부터 중국 천진과 한국 부산 사이에 해상우편 직통항로가 개설된다고 홍콩의 대공보(大公報)가 6일 천진발로 보도했다.

이 항로는 한·중 수교 후 개설되는 최초의 해상우편 직통항로로 앞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해상 및 육상 우편물은 모두 천진을 통해 발송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동아일보 94.2.7)

● **세계최대 놀이공원 한중 합작건설 추진**

중국은 한국과 합작으로 북경교외에 세계 최대의 놀이공원을 건설할 것이라고 7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의 유니콘사와 중국의 북경아시아TV 시티사는 북경 서쪽의 푹치시대에 앞으로 3년 동안 오디오타운, 레저센터, 체육관 별장, 세계체육관 별장, 세계각국의 문화와 풍물을 소개하는 관광단지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94.3. 8)



학비(각종 잡비, 과외비 등 포함)가 비싸서 중국의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내용을 풍자한 만화 중국에는 7-15세의 아이들 중 학교에 다녀야 할 3천만 명이 학교 공부를 못하고 있다. 매년 400만명 이상의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진학을 포기하거나 자퇴하고 있다.

정치

● **중국, 의회권한 대폭 강화**

중국은 의회인 각급 인민대표대회(人大)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조사 감독하도록 실제적 권한을 부여하는 「중대한 정치개혁안」을 이달 중 광둥성을 시발로 통과시킨다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인 <文匯報>와 중립적 권위지 <明報>가 21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4.2.22)

● **중국 국방비 최대 증가**

중국의 올해 국방비가 전년에 비해 무려 27%나 늘어난 인민폐 5백 40억 원(韓貨 약 4조 8천억 원)에 달해 15년만에 사상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북경 주재 외교관

들이 밝혔다.

홍콩의 영자지 이스턴 익스프레스는 18일 북경 주재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 이미 이같은 대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다음달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그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국방비는 인민폐 4백 25억원이었는데 군대가 위력을 과시한 지난 89년 천안문 사태 후 국방예산은 지금까지 매년 12% 이상씩 증가돼 왔으며 올해 예산은 지난 89년의 두배에 이른다.

(국민일보 94.2.19)

● **중국 인권상황 89년 이후 최악**

중국의 93년도 인권상황은 지난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최악이라고 미국의 인권단체인 「아시아 워치」가 20일 발표했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시아 워치는 이날 발표한 6백 64페이지 분량의 중국 인권실태 보고서를 통해 1천 2백여 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열거하고 중국정부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동아일보 94.2.21)

● 중국, 「반혁명법」 폐지 검토

중국은 수천 명의 정치범을 양산하고 있는 반혁명 관계 법률의 폐지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즈紙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경주재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 중국 지도부는 반혁명 범죄를 다룬 법률을 폐지하고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관리는 이같은 움직임이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논의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논쟁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중국지도부간에 인권문제와 관련한 대화가 새로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동아일보 94.3.4)

● 지하철 공사 영국 제외

중국은 영국이 홍콩 민주화 개혁을 강행하는데 따른 보복으로 영국 기업들이 광동성 광주의 지하철 건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외시켰다고 홍콩 언론들이 27일 광주 발로 일제히 보도했다.

홍콩의 문화보, 대공보, 명보 등은 朱森林 성장이 26일 광동성 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 참석, 『정치와 경제는 결

코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 국가간의 관계는 기업간의 협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동아일보 94.2.28)

● 이봉, 대북 우호 최우선 언급

10일 북경에서 개막되는 중국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2차 회의에서는 국가 주석겸 중국 공산당 총서기 강택민이 제시한 안정을 위주로 한 <20자 방침>은 抓住機遇(경제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 深化改革(개혁의 심화), 擴大開放(개방의 확대), 促進發展(경제발전의 촉진), 保持安定(안정을 유지) 등 5가지의 방침을 20자로 표현한 것으로, 개막 첫날인 10일 이봉총리가 발표할 정부공식보고를 통해 제시될 예정이다.

또 이번서는 특별한 인사 변동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94.3.8)

● 중국 지도부 내분 심각

중국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 중앙정부인 국무원,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고위간부들이 업무나 정책 토론 때마다 서로 공격, 비난을 퍼붓고 고자질과 투서 등으로 분열, 등소평 사후를 앞두고 중국 당정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홍콩의 중국문제 전문지 <爭鳴> 3월호와 <香港 聯合報>가 26일 크게 보도했다.

이같은 분열은 지난 92년 11월 새로운 당정치국과 서기처가 탄생하고 93년 4월 국무원과 전인대가 새로 구성된 후 나타나기 시작, 시장경제개혁의 속도와 방향 등을 둘러싸고 지난해 10월 이후 더욱 깊어졌다고 <爭鳴>지는 말했다.

이는 『사후 안정을 기대해 온 등소평에게 큰 충격을 주어 鄧은 작년과 올해 세 차례나 중재에 나섰다 작년 10월 초 중앙지도부는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후 올해 1월 20-21일 북경에서 열린 정치국의 확대회의에서도 江澤民을 통해 정치국, 국무원, 전국인민대표회의는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爭鳴>는 말했다.

(조선일보 94.2.28)

● 중국 新株상장 전격 금지

중국은 지난 1990년 자본주의 경제방식인 주식제도를 도입한 후 작년 하반기 이래 지금까지 가격 폭락이 거듭되고 사회 불안과 증권파동이 우려되자 22일 처음으로 국내기업의 새로운 주식상장을 전격 금지시켰다고 홍콩 언론들이 23일 심천 발로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떤 중국기업도 별도 공고 이전에 심천증권교역소에서 주식을 새로 상장시킬 수 없게 돼 시장경제개혁이 차질을 빚게 됐다. 중국은 매년 봄 신주를 상장해 왔는데 올해도 인민폐 55억원 어치를 상장시킬 것이라고 이달에 이미 발표했었다.

(국민일보 94.2.24)

● 중국, 금융개혁 연기

중국공산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시장경제개혁이 일부 중단되거나 무기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朱鎔基 제1부총리가 올해 경제개혁의 최고 핵심인 금융개혁의 연기를 지시했다고 홍콩의 중립적 권위자 <明報>가 16일 북경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중국의 책임 있는 고위관리가 대대적 시장경제개혁을 천명했던 지난해 당 제14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14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금융개혁의 연기를 지시했다는 사실은 처음 알려진 것이다. (조선, 국민일보 94.2.17)

● 중국, 식량수매 정부관리

중국 국무원은 전국적으로 식량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시장경제방식으로 민간상인에게도 수매를 허용해 오던 지금까지의 정책을 전면 취소했다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 <文匯報>가 북경 소식통을 인용, 14일 크게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무원이 이에 따라 앞으로 식량수매와 수매가격을 민간상인의 개입이 전혀 없이 계획경제방식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94. 2.15)

● 이봉 올해 경제개혁 단행

李鵬 중국총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들이 단행될 것임을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대한 빨리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공산당중앙위원회가 94년도 지침으로 △심도있는 개혁추진 △대외개방조치의 확대 △사회발전 가속화 △

안정유지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회 안정 유지가 개혁과 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의 경제번영은 오직 공산주의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94.2.12)

● 노동자 시위 격화 우려

중국은 임금체불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쟁의와 시위가 격화될 것에 대비, 인민폐 30억원(한화 약 3천억원) 이상의 「긴급 자금」을 배정하는 한편 무장폭동 진압경찰을 주요 산업현장과 도시에 증원 배치하고 국가안전부와 공안부 요원들을 동원, 노동자들에 대한 집중감시에 나섰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4.3.3)

● **적령기 이전 결혼맨 강제 벌거 조치**

중국은 남자 22세, 여자 20세의 법적 결혼 연령보다 일찍 결혼한 신혼부부들의 결혼을 무효화하고 이들을 강제로 떼어내기 위한 새로운 혼인법을 공포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1천만 건의 결혼 중 2백만 건이 불법이고 이중 배우자의 나이가 문제된 것이 1백 60만 건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94.2.27)

● **중국 교사 - 학생, 「방학부업」 열기**

겨울방학 중 중국학생들 사이에 돈벌이 아르바이트가 한창이다.

지난 1월 하순부터 일제히 방학에 들어간 중국의 대학생들이 부업활동으로 돈벌이에 나선 업종은 공사판의 막노동에서부터 각종 장사, 관광안내, 통역은 물론 자동차 밀수 등 탈법적인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최근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북경대, 청화대, 인민대학 등 북경 시내 대학생들의 약 50%, 대학원생들의 약 70%가 이번 방학 중 돈벌이 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94.2.21)

● **심천 택시 대규모 파업**

중국의 대표적 경제특구인 광둥성 심천 경제특구의 택시 기사들이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3일 오전부터 대담하게 파업에 돌입했다고 홍콩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파업에는 심천의 6천 5백대 택시와 1만 명의 기사들 중 약 90%정도가 참가했다. 거리 도처에는 공안경찰과 교통경찰들이 배치돼 있으며 대로변과 택시회사 차고에는 운행을 중지한 차량들이 즐비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파업기사들이 영업중인 택시의 창문을 깨뜨렸다고 홍콩 언론들은 말했다.

(동아일보 94.3.4)

● **심천, 주해 無비자 체류 허용**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외국인들이 광둥성 심천 및 주해경제특구에서 72시간 동안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인 <文匯報>와 <商報>가 14일 북경발로 크게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심천시와 주해시가 자본과 기술,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제금융도시로 성장하는 한편 오는 97년 홍콩과 99년 마카오의 중국반환에 대비해 국무원에 이같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94.3.15)

● **격주 5일 근무제 실시**

중국은 생산성 제고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수십 년 간 실시해 온 週 평균 48시간 근무제도를 변경, 5일부터 주 44시간으로 4시간 단축하고 격주로 5일만 일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새로운 노동자 보호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홍콩 중국통신사(HKCNA)가 4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새로운 근로정책은 기업들을 비롯, 정부의 중국공산당내에서도 실시될 것이라고 전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오늘날 세계 근로제도의 전향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94.3.5)

● **중국성병 급속한 확산**

중국에서 최근 성병이 급속히 확산돼 환자수가 2년마다 거의 배로 늘고 있다고 북경 일보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성병이 매년 46.1%씩 증가, 전국적으로 성병환자가 10만명당 평균 77명이며 남부의 경우 2백명에 이른다는 이 「자본주의 국가의 잘못된 성 풍속」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동아일보 94.2.24)

填字遊戲

독자들의 중국어 낱말 실력향상을 꾀하는 뜻에서
이번호부터 중국어 십자낱말맞추기란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상의 용어, 생활상의 실용용어, 시사용어 등
다양한 낱말을 익힐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정답은 Page 95에)

도전 !!

가로열쇠

- (1) 그리이스의 수도
- (2)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공략한 성
- (3) 제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인 독재자
- (5) 대만의 공식 국호(國號)
- (6) 한국에 살고 있는 화교들의 대부분은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이주해왔는가?
- (9) 일반인들이 수시로 요금을 내고 쓸 수 있도록 길가에 설치한 전화
- (11) 이삭의 손자, 라헬의 아들
- (12) 엘가나의 부인, 사무엘의 어머니
- (13) 의사의 직업을 가진 저자가 쓴 4복음서 중의 한권
- (16) 기쁜 일, 경사스러운 일

세로열쇠

- (1) 구약성경 중 “歌中之歌”라고 일컫는
사랑의 노래가 담긴 책
- (2) 하나님께서 호렘산에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
- (4) 특별한 하가력
- (5)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극동과 근동의
중간 지역
- (7) 국제간에 ‘공동으로 지켜야 할 권리, 의무의 표준을
정한 법률
- (8) 쓸데 없는 말, 허튼 소리
- (10) 컴퓨터
- (11)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가다 바다의 큰 물고기
벉속에 들어갔던 구약의 선지자
- (12) 여호와를 찬양하라
- (14) 고전음악
- (15) 중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새해 인사말

				1.			
		2.					
					3.	4.	
	5.			7.			
6.							8.
					9.	10.	
	11.						
12.			14.		15.		
					16.		
13.							

중국을 위한 중보기도

1. 중국정부는 최근 종교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인과 외국인 신도들의 접촉을 제한하는 새로운 종교법령을 반포하여 현지 사역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 주님께서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현재 대륙에서 여러 모양으로 사역중인 선교사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계속해서 남아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2. 중국의 인권 상황은 89년 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한다.

♣ 주님께서 중국의 인권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주시며 특히 감옥에 갇힌 자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길.

3. 최근 중국의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기독교협회가 외국 종교기관과 활발한 접촉을 벌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정교회의 입지가 매우 좁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교회와 교류하는 외국의 교회나 선교사들도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 주님께서 중국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기성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신앙의 정통성과 올바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4. 중국은 93년 9월 말 현재 이미 70여만 명의 노동자가 해외에 나가 있고, 13만 명의 귀국하지 않고 체류해 있는 유학생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주님께서 이들 해외 체류 노동자들이나 유학생들에게 현지의 교회들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5. 해외에서 복음을 접하고 대륙으로 돌아온 귀국자들이 중국에서 더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진리를 가르칠 교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대륙에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도우시길.

6.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그들의 고유한 풍습과 전통과 종교에 얽매어 복음을 접한다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 주님께서 소수민족을 사로잡고 있는 풍습과 전통, 종교의 악한 영의 사슬을 끊어 주시고 이들 소수민족들이 복음으로 자유케 되도록 도우시길.

7. 한국정부는 중국과의 교역증대를 위해 기업의 중국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 주님께서 많은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마음 속에 중국선교의 소명을 심어주시고 중국에 기업을 세울 수 있는 길들을 더욱 많이 열어주시기를.

8. 현재 국내에 많은 조선족 불법체류자와 중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 주님께서 한국교회들이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며 이런 일에 각 교회들이 협력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9. 중국 교포와 중국인에게 제자의 삶을 훈련시키는 신림동 <사랑의 집>이 대륙현지에 분원을 세우기 위해 기도중이다.

♣ 주님께서 이 일을 축복하사 주님의 능력으로 대륙에 <사랑의 집>을 세워주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시길.

10. 중국현지에서 여러 모양으로 사역중인 많은 선교사들이 있다.

♣ 주님께서 세우신 기도의 동역자와 물질의 후원자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선교사들과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능력을 주시길.

11. 소수민족에게 들어가 복음을 증거할 헌신되고 준비된 선교사들이 그리 많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동양인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려는 자는 더욱 드물다고 한다.

♣ 주님께서 소수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새벽이슬과 같은 청년·장기사역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준비되도록 도우시길.

12. 국내에는 중국선교를 위한 여러 선교단체가 있다(중국복음선교회, 중국어문선교회, 호프, 대륙선교회, 갈릴리세계선교회, 모퉁이돌선교회 등...).

♣ 주님께서 각 선교단체들이 주님 안에서 동역하며 협력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역의 전문화를 꾀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길.

13. 각 선교단체들은 이름없이 수고하는 많은 간사들의 헌신과 회원들의 기도로 사역하고 있다.

♣ 주님께서 이들 간사들과 회원들에게 변함없는 헌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중국 복음화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필요한 사역비를 채워주시기를.

▶ **중국어문선교회 정기기도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중국을 위한 정기기도회로 모입니다.

중국어문선교회의 회원뿐만 아니라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기도로 중국을 주께로 드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4월의 정기기도회는 4일이며, 5월에는 2일입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장소는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 선교훈련원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Tel : 594-8038, 533-5497).

▶ **한국 OMF 제4회 중국세미나 개최**

최근 중국정부가 새 종교법규를 제정하여 종교통제를 합법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선교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OMF가 주관하고 중국선교협력회(중국관련 선교단체 총연합)가 주최하는 「중국을 알자 IV」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1994년 5월 10일(화)- 5월 12일(목)까지 오전·오후의 세미나와 저녁의 Open 집회로 이루어질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Dr. James Taylor III세와 양영학 선교사이며, 강의 내용은 『최근 중국당국의 종교정책과 적용』, 『삼자애국교회와 가정교회와의 관계』, 『중국의 소수민족』, 『현재 진행중인 사역』, 『창조적인 사역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등록방법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 OMF 선교회 사무실로

(TEL : 555-3958 / FAX : 563-6950).

▶ **추수할 일꾼을 찾습니다**

한국 OMF에서는 각 지역에서 사역할 전문인 선교사를 찾습니다.

<중국> 대학에서 가르칠 교사나 전문가(수자원 및 전력분야), 엔지니어, 외국어를 가르칠 교사, 무역 및 경영을 가르칠 교사, 농업 전문가, 중국 유학생 등

<홍콩> 재정 및 행정 담당 지도자 / 1명 ('94년 8월까지 즉시) 의료담당관(Medical Officer) / 1명 (급히)

<몽골> 일반 사역자 3부부

<베트남> 일반 사역자 2부부 (1995년 초까지 사역)

자격요건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OMF 사무실로 (TEL : 555-3958).

▶ **INTER-COOP 제3회 소아시아 탐사 · 선교세미나**

Inter-Coop(구, KTM)이 주관하는 제3회 소아시아 탐사 · 선교세미나가 『21세기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라는 주제로 '94년 7월 11일~7월 23일까지 13일 간,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열립니다.

초대교회의 선교의 발자취가 담겨 있는 소아시아지역 탐사와 함께 미전도종족 선교와 전문인 선교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를 이루어질 이번 세미나의 참가자격은 제2,3세계의 타문화권 선교에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앞으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교회 교역자, 선교위원, 선교단체 지도자 등이며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 서신이나 팩스로 개별 신청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Inter-coop 사무실로

(TEL: 585-3541-2 / FAX: 585-3543).

▶ **제4회 기도함주회 지휘자 훈련학교**

선교한국 '94 조직위원회에서는 지역, 교회, 캠퍼스에서 기도함주회 지도자 및 일반 관심자를 위한 훈련학교를 '94년 4월 22일(금)~ 4월 23일(토), 1박 2일 동안 성결회관에서 실시합니다. 영적 전투와 중보기도의 능력, 기도함주회 인도법, 패널토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이번 훈련 학교의 참가비는 2만 3천원이며 신청마감은 4월 16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선교한국 '94 조직위원회 사무실로

(TEL : 555-2713 / FAX : 563-0661).

▶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단기 의료팀 선교지역 참가자 모집**

갈릴리세계선교회(GWM)에서는 의료를 통한 봉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제7차 러시아 및 중앙 아시아 지역 단기선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94년 5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모스크바, 알마아타, 우즈베크 공화국, 사할린 등지에서 행해질 이번 단기선교에,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이·미용, 전도 등의 달란트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비용은 120~150만 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갈릴리세계선교회 사무실로

(TEL : 420-1450, 424-1144, 424-1244 /

FAX : 421-1425).

▶ **지역사회보건선교전략(CHE) 훈련자 세미나**

모통이돌 선교회는 미개발국 선교에 있어서 교회개혁, 전도사역과 함께 지역개발 및 보건 봉사를 병행하는 CHE (Training of Trainer for Community Health Evangelism) 훈련자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기존의 의료선교와 달리 예방의학적 성격이 강한 CHE 선교전략은 충분한 교육과 훈련으로 발병률을 낮추며 호별방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복음전파의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4월 4일부터 9일까지 5박 6일 동안 양수리 수양관에서 실시될 이번 훈련의 모집인원은 30명이며 수강료는 10만 원입니다. 접수는 3월 14일~3월 31일까지 모통이돌 선교회 CHE 등록 담당자에게 전화로 신청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모통이돌 선교회 사무실로

(TEL: 796-8846 / FAX: 792-7567).



우리는 이렇게 일합니다.

중국어문선교회는 중국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섬김의 도와 지체의식으로 중국선교의 여러 사역 중 특히 중국어문(中國語文)과 관련된 선교사역을 초교파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주요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교육훈련사역** : 중국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선교지망자들을 위해 중국선교훈련원을 통해 중국어와 현지적응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중국어 교재개발 및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연구사역** : 정기적으로 중국선교세미나를 개최하며, 국내의 선교정보의 수립 및 자료화, 중국교회 동향분석, 중국소수민족 및 각 성별 연구, 최근중국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중국선교 전략 연구 등의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 **문서사역** : 중국선교의 필요성과 전략이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격월간 “중국을 주제로”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선교책자 번역·출판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신앙 및 신학서적을 중역(中譯)하는 일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 ▶ **중국현지 사역** : 국내에서 방한 중국교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집회 및 “사랑의 집”에서 제자화 양육을 수행하였습니다. 교포들이 한국에 나오는 것이 어렵게 됨에 따라 중국현지에 “사랑의 집”사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 **승선전도사역** : 한국에 들어온 중국배에 매주 중국인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사람들

고문 방지일 목사·김지일 장로/대표 박진국 장로/총무 이요한/행정실 실장 장희락
행정간사 최동신/재정간사 강영옥/기획협력간사 문민/홍보협력간사 김정하/해외협력간사 루디아/
전산협력간사 김형동/교육부 운영위원 김성곤/협력간사 안거안/연구부 운영위원 석은혜/간사 권수영
협력간사 배다니엘/출판부 운영위원 석은혜/간사 차이나/협력간사 한영혜·전하리/편집디자인 정광숙
훈련원 운영위원 장희락/간사 김바울/전임강사 방주·우신화/선교부 운영위원 정선영/간사 기드온·주미애
임화평·서정열/인천지부 운영위원 우신화/협력간사 김성수/사랑의집 운영위원 박애린/간사 이순덕·
서세은/파송연구원 주안도/파견간사 김광석·윤승일/파송선교사 박애린(국내)·예보람(해외)
정선영(본부)·강성광(홍콩)/협력선교사 주성지·고대위

제4회 청년 학생 선교대회 (MISSION KOREA '94)

연합과 헌신의 선교한국 대회가 4번째로 열립니다.

수천명의 선교헌신자를 배출하며 은교회를 들끓게 하였던 바로 그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교회에서 선발된 5000여명의 학생대표들과 200여명의 북미주 한인학생대표, 그리고 아시아 10개국의 학생대표 200여명이 자신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한양대학교로 모입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 90여명과 국제선교단체 지도자 40명, 한국교회 선교지도자 50여명이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이 대회를 돕기위해

자비량하여 달려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족속마다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결정적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민족과 세계를 품은 이 땅의 청년들이 감당해야할 거룩한 도전입니다.

보십시오! 복음없이 죽어 가는 11,000여 종족을.

기도하십시오!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해.

참여하십시오! 선교한국 94 대회에.

기간 : 1994년 8월 8일(월) — 8월 13일(토)

- ◇ 주 제 : 모든 족속마다 교회를 !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
- ◇ 장 소 : 서울시 성동구 소재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 및 근린학사
- ◇ 참가대상 :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청년 대학, 선교헌신자 및 관심자 5,000여명
- ◇ 참 가 비

	1차(6월 10일)	(7월 20일)	2차 마감 이후
대 학 생	60,000원	70,000원	85,000원
일반인	70,000원	80,000원	95,000원

* 등록은 예약금 20,000원 입금 후 등록카드와 목회자 추천서를 선교한국 사무국으로 회원 단체는 각 단체를 통해 일괄 등록!

- ◇ 주 최 : 선교한국 94조직위원회(중앙우체국 사서함 6601<우;100-666>)
- ◇ 주요 프로그램 및 강사

- * 저녁집회 로버트 콜만(트리니티복음신학교 교수)
- * 주제강의 필 과샬(이슬람-아시아연구소 소장), 판야 바바(아프리카-ECWA회장), 데이빗 픽카드(아시아-OMF국제총재), M.골드스미스(지구세계-ANCC교수) 홍정길(북한-남북나눔운동 사무총장)
- * 성경강해 이동원(롬5,6장-지구촌교회), 정근두(롬7,8장-탄포리교회)
- * 선택강좌 국제선교단체 지도자 40여명, 국내선교 지도자 50여명, 한국 선교사 90여명
- * 경 건 회 김신호(일본), 김신숙(이집트), 홍베드로(인도차이나), 백재현(소아시아), 김병선(인나)
- * 국내 최대 규모의 선교박람회, 650여개의 소그룹모임, 다이나믹한 기도합주회, 최신 선교비디오와 멀티비전을 통한 영상 메시지, 220개의 다양한 주제의 선택강좌, 외국 참가자를 위한 동시통역 등

* 팸플렛 요청이나 문의사항은 서울 ☎ 555-2713, 563-0661(FAX) 선교한국 사무국으로!

회원단체 <학생단체> ESF, IVF, CMF, CCC, JOY, SFC, YWAM, CAM, NAVIGATORS
 <해외단체> GMF, AFC, 지구촌선교회, Inter-coop, 중동선교회, AM, OM, HANNA, 중국복음선교회, 제자선교회, 어린이전도협회, 중국어문선교회, PWM, WTF, GWM, 예수세계선교회, 바울선교회

중국을 주께로

1994. 5·6
제1호(통권 27호)
중국선교 전문지

발행처 / 시닝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발행·편집인 / 이 동 화
편집장 / 석 은 혜
편집기자 / 한 영 혜
차 이 나
권 수 영
편집디자인 / 정 광 숙

중국을 주께로

등록일자 /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 바 - 2078
발행일자 / 1994년 3월 30일
인쇄인 / 김수민(신성기획사)
값 / 2,5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 594-8038, 533-5497
팩스 / 599-2786
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308호)
전화 / 032-872-0742
사랑의 집: 관악구 신림10동 306-67
전화 / 873-2570

송금 온라인 번호
지로번호: 7602362

<중국을 주께로> 유가지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중국을 주께로>가 이번 달부터 제1호(통권 27호)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애초에 본지는 중국선교의 불모지에 서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중국선교를 돕자는 일념 하나로 손에 아무 것도 든 것 없이 믿음 하나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여러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성원을 힘입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는 잡지매체의 변화에 발맞추고, 중국선교에 있어 보다 심도깊은 정보와 자료를 원하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또한 본지를 통해 중국선교의 동참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유가지(가격 2,500원)로 전환하는 일이 시급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지는 공보처에 잡지등록을 함과 동시에 유가지로서 면모를 바꾸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을 주께로>는

유명 기독교서점에서 여러분을 만나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동역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 그리고 변함없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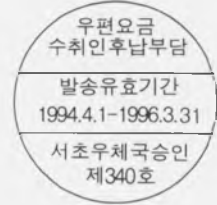
국내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입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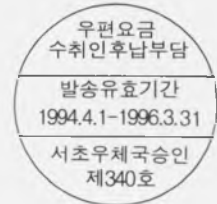
137-06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137-069

「중국을 주개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아래의 정기구독 신청엽서에 기재사항을 모두 적으신 후 우체통에 넣어주시거나 직접 전화(594-8038, 533-5497, 담당자:최동신)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료를 시중은행 99번 창구에 가셔서 지로용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02362

「중국을 주개로」 독자카드(1994년 3,4월호)

귀하의 의견은 「중국을 주개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한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다?

2. 「중국을 주개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을 주개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시시오.

정기구독신청서 (전화신청 및 문의: 최동신 594-8038)

1.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하십시오.

신규구독 재구독 주소변경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1년 15,000원 (6권) 2년 30,000원 (12권) 3년 45,000원 (18권)

2. 신청인 이름 (남, 여)

생년월일

배달주소(우)

전화: (집) (직장) 팩스:

교회명 직분

기타 요망사항

3. 주소변경; 성명 전화

변경주소(우)

* 주소는 통반까지 정확히, 그리고 우편번호도 꼭 기입해 주십시오.

선교 도서 안내

선교도서

1.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전문인협력기구)	3,000원
2. 중국선교 - 교회의 대장정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3,500원
3. 중국선교핸드북 (두란노서원)	4,800원
4.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1,500원
5. 중국어성경 번역소사	1,500원
6. 神愛世人	1,500원
7. 만 남	2,000원
8. 전도중국어(漢語傳福音)	1,500원

교재

1. 中國語 聖經 (신약+시편+잠언:주음부호)	7,000원
2. 使徒信經, 主禱文 외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	1,500원 1,000원
3. 經文背誦 經文背誦 Tape	1,500원 1,000원
4. 初級中國語 1 初級中國語 1 Tape(10개)	3,500원 7,000원
5. 初級中國語 2 初級中國語 2 Tape(10개)	3,500원 6,000원
6. 我的第一本聖經 我的第一本聖經 Tape	2,500원 1,000원
7. 사복음서 낭독 tape(12개)	10,000원
8. 信仰讀本 信仰讀本 Tape (2개)	5,000원 1,600원
9. 中國語 신약성경(한어병음)	8,000원
10. 中國語 신약 Tape (25개)	20,000원

*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은 우편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담당: 김바울 간사)
(전화 594-8038, 533-5497)

세계속의 카타딘 정수기 그 명성과 품질을 보증합니다.



스위스까지 가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을 허경근

1. 품질보증

- 세균 적리 아메바, 살모넬라, 콜레라, 이질, 위장염균, 비브리오, 바이러스 완전 100% 제거되며 방사능까지도 제거됨
- 염소, 비소, 카드뮴, 납, 수은등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은 완벽히 제거하며
- 인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등의 미네랄 성분은 그대로 통과시켜 줍니다.
- 미 하버드대학, 미 육군연구소, 미 환경보호청, 미시간대학, 스위스 바젤대학, 스위스 중앙연구소, 미 예일대학,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서울의대, 서울시 종합기술연구소등 세계 유명 시험기관에서 입증.

2. 세계적인 명성

- 카타딘 정수 시스템은 사용하고있는 세계적인 고객은 ; Coca-Cola, Pepsi-Cola, Heineken, McDonald's, Red-Cross, Lotte Hotel, Swissair, Esso, Shell, Dole, Mobil, Philips Petroleum, Unionoil, Statoil, Amoco Norway, Jebson Drilling, Texaco, USSR Shipping lines, India shipping, Mitsui, Nedlloyd, Hapag-Lloyd, Ben Line, British Petroleum, 외 1,500여개의 정수장과 3,000여개의 세계 유명 음료업체
- 국내에는 한라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제주생수, 현대상선(주), 한국해운(주) 등 의

3. 경제성

- 필터의 수명이 10년 이상으로 반 영구적 (타입제 1년 정도)
- 필터의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 (타입제 1만 리터)
- 5인 가족 연간 유지비 4만원선 (타입제 40만원 이상)
- 생수 이용시 보다 경제적이며 사용자 세균에 대한 불안이 전혀 없음.

4. 사업성

- 카타딘 정수 시스템의 제품 종류는 ;
- 가정용 • 등산용 • 생수회사용 • 음료회사용
- 대형호텔용 • 수도국 정수장용 • 계약회사 시설용 • 종합병원용 • 가두리 양식장용
- 선박용 • 주류회사용 • 비행기시설용
- Tablets • Spray • Powder 등 다양하며 정수 시스템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음.
- 타회사 제품의 추종을 불허하며
- 열성과 폐기가 있는 대리점 사업주는 카타딘 정수 시스템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 됨.

“요주의” 허위 선전 업체 고발

모 정수기 업체에서는 전기분해기나 TDS를 가지고 다니며 허위선전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으로 보사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실 수요자에게 눈속임으로 사기를 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에 속지 마시고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21번)

속임수에 의하여 정수기를 선택하신다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02)582-4505



나라가 다르고, 회사가 달라도
모두가 「카타딘」 정수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KATADYN
(주) 카타딘코리아
KATADYN KOREA CO., LTD.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10 11층
TEL: 02-582-4505 FAX: 02-582-4506